



5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5호

(루게 583)



차 례

동강의 새벽에	4
푸른 강에서	5
우리 장군님 백두산에서 오셨다	6
어머니의 노래	7
백두의 길이어	15
나는 래일을 위해 오늘에 산다	16
영원한 삶의 노래	16
강산에 넘쳐나는 인민의 노래소리	18
풍부하고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의 개방과 령도자의 빛나는 형상	20
량 심	24
승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25
명언해설	27
붉은기 휘날리며 조국이어 앞으로	28
추 억	29
인류의 진정한 향도자	35
문경고개를 생각하며	36
터밭에서	36
꽃을 계속 피우렵니다	37
내 목숨 묻고 사는 정	38

청 춘	40
생활의 수업	41
군복을 입었습니다	53
우리의 봄이다!	54
탑은 무엇을 전하는가	56
제주도의 동백꽃	59
농장벌의 밤은 깊어가는데	68
발동소리	69
조국의 이 봄들판에	70
순결한 애국정신의 시화	71
닭이 우는 새벽에	76
나래를 벗기자	76
모내기철	77
아,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77
조국의 흙	78
갯원등전	79

동강의 새벽에

박 영

봄기운을 한껏 호흡하며
밀림도 싱싱한 숨결을 내뿜는
동강의 새벽
우리의 **김일성** 장군님
조용히 귀틀집을 나서신다

고요한 밀림의 정적도
그이의 발걸음에 잠을 깨고
푸르릉 산새들의 날음에
일새우에 앉았던 물구슬
뿌려져 내리는데

예다른 이날의 환희를
이 새벽에 다 부어주시려는듯
걸음걸음 옮겨가시는 장군님
손에 잡으시네
통통히 살오른 개울가의 버들강아지

-봄이지
조용히 입속으로 되뇌이시며
하나, 둘...
꺼어드신 버들강아지
생각깊이 세여보시는 장군님

봄
봄소식을 전하는 버들강아지
엄혹한 눈바람도
태양의 봄빛을 막지 못했으니
끝끝내 생을 찾은 버들강아지
그이의 심중에 어이 정답지 않으랴

봄과 속삭이시듯
소중히 손에 드신 버들강아지
다시 더듬어보시네
이제 발표하게 될
《조국광복회창립선언》구절구절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조항조항을

피어린 전투와 눈보라 행군길
진대나무우에서 작성하신 불멸의 제강
끝없이 무르익히시며
타고타는 등잔심지 돌구시며

지새우신 밀영의 밤과 밤

얼마나 고대하던 오늘인가
-조국광복회!
심중속에 차오르는 감회를 터치시며
뜨겁게 마음속으로 외우시며
문득 하늘가에 시선을 보내시는 장군님

바라보시는곳 그 어디인가
신음하는 조국의 대지
피땀이 뿌려지는 그 어느 발머리...
착취와 고역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신음소리에 귀기울이시는가

아니면 그 빛나는 안광
세월의 먼 래일까지 다 내다보신
그 시선 드시고
광복의 봄
자주의 봄이 꽃피는 그날을
그려보시는가

그이의 손에서는
한껏 봄물오른 버들강아지
금시 그 무슨 환희를 터칠듯
장군님 그려보시는
그 봄날과 속삭이런듯

-봄이지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마음속으로 다시 외우실 때
하늘을 가르며
땅을 뒤흔들며
울려오는 봄우뢰소리, 봄우뢰소리
메아리쳐 울리어갔네
조국땅에로

조국광복회창립대회장으로
우리의 **김일성** 장군님
성큼 큰 자욱 떼여가실 때
그이의 손엔 쥐여져있었네
봄소식 전해주는 버들강아지가...

푸른 강에서

성민백

록음방초 우거진 대동강
해빛은 물결우에 반짝이며 뛰놀고
흰물새 훨훨 환희로이 날으는 일요일의 한낮
이랑이랑 큰물이랑 지으며 달리는 흰유람선우에
아버이수령님
외국의 정객과 나란히 앉으시였네

제 나뭇의 일가견을 가지고
크고작은 여러 나라 메주뽕듯 다니며
대조선전력을 추구하던 로회한 그 정객
수령님께 말씀드리네
조선의 하늘가 가까이에
제재의 위험이 드리워졌다고

슬그머니 내비치는 그 속심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환하게 웃으시며
수령님께선 말씀하시네
제재를 하겠으면 하라고
지금껏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어도
우리 인민은 끄떡없었다고

그는 다시 말씀드렸네
고운 새 지저귀는 아름다운 이 산천에
한폭의 그림인듯 수려한 이 강반에
피여오를 핵구름
내려덮일 불먼지에 대하여

외국정책의 신중한 그 말
들으시는듯 못들으시는듯
여기저기 은빛고기 뛰여오르는
시원한 강줄기 한눈에 담으시고
아침해처럼 밝게 웃으시던
아버이수령님
갑자기 배를 멈추라시네

이제 그 무슨 말씀을 하실가
이제 그 어떤 근엄한 선언을 하실가
외국정책의 얼굴에 남실대던 웃음은 삽시에
가셔지고
굳어진듯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데
한손 들어 저편 강기슭을 가리키시는
아버이수령님

- 좋구만
저기 낚시군들이 나와앉았구만

?!...
허둥지둥
갈피를 못잡는 그의 눈길
실버들 칭칭 휘늘어진 강변으로 이끄시며
수령님은 즐거워 그냥 웃으시네

휴일의 강기슭
낚시대를 드리우고 단몀을 식히는
제강소의 용해공들 생각하시는가
자애의 미소 함뻑 담으신
아버이수령님

- 나도 낚시질을 즐겨하는데
배가 지나가며 물살을 쳐놓으면
낚시군들은 다 싫어하거든
우리가 좀 늦더라도 천천히 갑시다

아 세상에 이런분도 계시는가
하늘땅을 뒤집어엎으며
대폭격기 편대가 밀려온대도
한몀에 지니신 사랑의 나래로 다 막아주실듯
내내 낚시군들을 정답게 지켜보시는
아버이수령님

이 순간
물이랑은 강물우에 더 일지 않아도
그의 가슴속에 격정의 파도 굵이쳤네
정녕 이분은
세계에 다시없을 위인중의 위인
사랑의 신, 수호의 신

일요일을 즐기는 낚시군들의 머리로
끝없이 비껴가는 저 환하신 영상
자애로 넘치는 그 뜻
진정 이 나라의 해빛
이 나라의 하늘이거니

그 하늘 그 해빛속에
어이 핵구름이 한줄기라도 비끼랴
어이 불먼지가 한점이라도 날리랴
그래서 이 나라 산천은 더욱 수려하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그리도 역센것 아닌가

- 주석각하

산천경개 참으로 좋은
여기서 잠시라도 살고싶은 생각이 다 듭니다
- 원 무슨 말씀을...
그러면 선생도 제재를 받으며 살아야 할텐데
하하하...

수령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네

가없이 들린 맑고맑은 저 하늘가로
멀리멀리 퍼져갔네
인류의 머리우에서
영영 불바람을 가시여 줄
그 밝은 웃음소리...
영원한 태양의 그 햇빛...

우리 장군님 백두산에서 오셨다

정동찬

우리 장군님
조국삼천리에
행운의 길 첫자욱 여시며
락엽을 밟으시고
맑은 내를 건너
인민에게로 떠나오신 소백수팔
예로구나

그 어디에도 났지 않고
그 어느 한곳도 흐리지 않은
신성한 백두의 세계에서
들려오느니
깨끗한 눈석임의 맑은 물소리
푸르고 하얀 밀림의 설레임소리

예있더라
고귀한 인간의 뉘과 눈물
지칠줄 모르는 행군의 자욱과 열정의 우등불
붉은기의 퍼덕임과
혈전속에 창조된 사람의 미덕이...

우리 장군님
이 성산을 뜨실적에
천지는 조국의 눈동자마냥
기쁨의 눈물 머금었고
수림은 손을 저어
축복의 눈송이를 날렸으리
이 조선에 대대로
행운의 길 이어진다고

산간막바지의 스러져가는 오돌막
혈벗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거쳐
찍어 넘기는 로목에 치여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던

이 나라 초부들의
그 설음을 거쳐

아 그이는
백두산에서
우리에게로 오셨다
예서 오시여
내 나라의 장군이 되시고
인민의 아들이 되시였다

그 첫시작부터
사랑하라
인민에게 정의로운 모든것 사랑하라고
눈속에 꽃을 피우는 태양의 빛과
광풍속에 한모습으로 솟은 장군봉의 믿음으로
온 겨레를
백두산집 한뜨락의 사람들로 품어주신
우리 장군님!

예서 소중히 안고 오신
밀림의 구호와 글발을
삶과 투쟁의 목표로
이 땅 그 어디나 나뭇기게 하시고
예서 굳건히 익혀오신
백두의 행군법으로
인민의 걸음걸이에 의지를 주시였거니

오 장군님은 백두산
백두산은 장군님
인민에게로
백두산에서 오신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
인민들속에
백두산으로 계시여라

어머니의 노래

홍일화

1

싸락눈이 흩날리는 초겨울의 음산한 날이었다. 걸얼어 꾸덕꾸덕해진 베천을 덮은 두부합지를 머리에 이고 다른손엔 보통이를 쥔 초라한 행색의 녀인이 사위를 두리번거리며 평양제1중학교 정문에 들어섰다.

녀인은 아들이 보고싶었다. 비록 아들이 스스로 다 자랐다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제 삼촌네 집으로 나가버렸지만... 그것이 달포전 일이건만 녀인의 가슴에서는 아들에 대한 노여움이 불눈처럼 녹아 스러졌다. 아들이 그리워 밤마다 잠을 못 이루었다. 인제는 아들을 만나보고싶은 눈물겨운 심정을 더 억누를수 없었다.

그애가 아직 학교에 있을까? 벌써 공부를 끝내고 삼촌네 집으로 갔으면 어쩌랴... 녀인은 가냘픈 희망과 불안감에 마음을 조이며 걸음을 옮겼다.

학교운동장에는 싸락눈이 한벌 덮였다. 아담한 2층짜리 벽돌건물인 교사의 유리창문들은 찌뿌둥한 날씨인데도 생기를 띠고 알른거렸다. 키낮게 둘러친 담장안둘레를 따라 심은 전나무들은 학교의 정숙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선듯 희끗희끗 눈을 정수리에 얹은채 푸른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녀인은 가끔 기침을 짓으며 빨갛게 언손으로 합지 모서리를 잡고서 교사로 주춤주춤 다가갔다.

수업이 끝난지 꽤 오래된 모양인지 학교는 고요하였다.

배자루의 두부물이 찌기 바쁘게 합지에 담아서 장마당에도 들리지 않고 서둘러 왔건만 늦은것 같았다. 그래도 녀인은 어느 교실엔가 아들이 외롭게 앉아있을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녀인은 두부합지를 교사의 현판문옆에 내려놓고 보통이만 쥐고서 널마루 칸 복도에 조심히 들어섰다. 어둡시그레한 복도의 교실출입문들은 꼭 닫혀있어서 사람이 있음직한 방을 가늠할수가 없었다. 복도 끝쪽 어느 방에선가 나지막한 풍금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풍금소리같지는 않았다. 녀인이 사는 등메동 학교의 풍금소리 비슷하면서도 더 맑고 쟁쟁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아마도 피아노소리인듯싶다. 후미진 강물의 흐름소리마냥 나지막히 울려더니 보슬비 내릴 때의 락수물방울처럼 선명한 소리로 가늘어졌다. 그러나 이어 복도에 드러운 적막을 헤치며 강물의 세찬 급류와도 같은

폭이 넓은 화음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녀인은 추위와 아들에 대한 불안과 그리움에 시달린 착잡한 마음속을 덥히며 아늑히 스며드는 그 피아노소리에 이끌려 걸어갔다. 그 소리는 《음악실》이라고 써붙인 반쯤 열려있는 방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기웃이 방안을 들여다보니 누빈 솜옷을 등에 걸친 학생이 피아노에 마주앉아 연주에 여념이 없었다. 자기 아들과 비슷한 열너덧살 나이의 학생이었다.

난로불을 지피지 않은 음악실은 추웠다.

녀인은 문설주에 기대서서 건반우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학생의 손과 잇따르는 온몸의 열정적인 움직임을 넋을 잃고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어쩔지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음악에 심취되어 저도 모르게 뒤구석의 결상에 조용히 앉았다. 서정깊은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니 라니 어느덧 녀인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아릿한 슬픔은 정화되고 봄날의 햇빛같은 따스한 안정이 깃들었다.

갑자기 피아노소리가 푹 멎었다.

학생은 피아노보면대에 허리를 굽히고 연필로 무엇인가 열심히 적어나갔다.

음악이 끊어지고 사각거리는 연필소리마저 들릴듯싶은 정적이 방안에 깃들자 녀인은 소중한 어떤것이 가슴에서 떨어져나가 허공에 사라진것같은 아쉬움을 느끼었다. 녀인은 어서 빨리 지난날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음악이 다시 울리기를 은근히 기다렸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필을 오선지에 놓고 명상의 눈길을 창문쪽에 돌리시였다.

밖에서는 싸락눈이 바람에 휘몰려 연기처럼 뭉쳐 다니다가 유리창에 와 부딪쳤다. 차츰 눈송이들이 커지는것이 알린다. 창너머 멀리 대동강변쪽의 아빠트건설장들에 솟아있는 기종기들이 눈발속에 희미하게 보인다.

김정일동지의 머리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른 선율과 가사의 글줄은 작은 오선지를 떠나 눈내리는 광활한 하늘가에서 울리고 썩여지였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여 짓는 노래였다. 그이께서는 벌써 여러날째 수업후의 조용한 시간에 음악실을 떠나지 않고 심혈을 기울이시는것이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어머니 생전에 다해드리지 못한 효성을 하고싶은것이 그이의 절절한 마음이었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진정 소년시절의 수많은 나날들에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어린 녀동생을 달래고 업어줄 때 자신께서도 소리없는 눈물로, 심장을 저미는것 같은 아픔으로 울며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시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겨울날 이 저녁에 아버님께서서는 만시름을 잊으시고 어린 녀동생을 안은채 어머니와 같이 방안의 쏘파에 앉아계실것이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창문결의 피아노에 마주앉아 이 어머니의 노래를 불러드릴것이다.

그러면 고생 많으신 어머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올었다. 그이께서는 명상에서 돌아와 다시금 고개를 숙이고 오션지에 악보를 그려나가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음악실의 썰렁한 랭기가 점점 더 몸에 스며들었지만 잔등에 걸친 솜옷의 앞섶을 여밀 생각도, 난로불을 지필 생각도 잊으시고 음악세계에 잠기시었다.

심장을 울리는 선율속에 추억은 불꽃마냥 번뜩인다. 까마득히 떨어진 어린 시절... 백두산 밀영의 귀틀집, 소백수 푸른 물, 군복을 입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눈보라, 백두산의 눈보라, 눈보라는 밀림을 휩쓴다. 살을 에이는 추위, 허리까지 묻히는 강설을 헤치며 조국으로 진군하는 빨찌산대오, 어머니는 배낭과 총을 등에 지고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서 진군길의 앞장에서 걸으신다. 어머니가 쓰신 털모자밑에 새어나온 머리카락과 눈섭, 총끝에는 성애가 하얗게 불렸다.

그이께서는 어머니의 품안에서 덥혀진 작은 손을 꺼내여 성애 불린 어머니의 머리칼과 눈섭을 가만가만 어루만지시었다.

어머니는 자애로운 눈길로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신다. 하얀 성애는 어머니의 눈가에서 살며시 녹아 작은 이슬방울로 가랑히 맺힌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살눈섭속에 매달린 맑은 구슬방울은 아들의 조그만 손등에 떨어진다.

눈보라는 우- 우- 소리를 지르며 빨찌산대오를 연기와 같은 장막으로 뒤덮는다. 어린 아들이 애써 녹여드렸건만 어머니의 털모자주위와 살눈섭과 머리칼에는 또다시 하얗게 성애가 불렸다.

어머니는 추위에 빨개진 아들의 손을 입김을 불어 녹여주시고 품속에 밀어넣어주신다. 아들의 털모자에 뿌얇게 내려앉은 눈가루를 털어주신다. 목에 감은 털수건을 바로 여며주시고 자신의 볼

을 사랑스런 아들의 볼에 꼭 대으신다.

속영의 밤, 우등불이 타오른다. 머리에 들쭉 아름답리 나무우듬지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나무가지에서 눈녹은 물이 우등불에 떨어지며 칙칙 소리를 낸다. 행군에 지친 유격대원들이 총을 가슴에 부여안고 배낭과 진대나무와 바위에 기대 잠들고있다.

어머님께서서는 우등불에 나무를 덧놓으시고 품에 안은 어린 아드님을 정겨운 눈매로 들여다보신다. 쉬이 잠들지 못하는 아드님을 다독이시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신다.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발한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자라 속히 자라 붉은기 들고
...

우등불은 고요히 타오르고 밀림의 음악인 눈보라는 별들마저 잠재우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노래에 머리숙이고 물러간다....

추억은 선물을 낳고 선물은 또다시 추억을 불러온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잔등에서 솜옷이 미끄러져내리는것도 느끼지 못하시고 열정적으로 오션지에 악보를 그려나가시었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

누군가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나고 솜옷을 어깨에 썩워주었을 때에야 그이께서는 악상에서 깨어나 몸을 돌리시었다.

구석쪽의 걸상으로 도로 가려던 녀인은 할바를 몰라 어쭙게 서있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낳았다. 줄기침이었다. 병색을 띤 녀인의 험색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녀인이 음악실에 들어와 있는지 퍼그나 된것 같이 느껴지시었다.

어깨와 아래섶을 기운 물낱은 솜옷을 입은 녀인이었다. 목에 둘러감은 재빛색갈의 광목토스레수건은 가장자리가 다 해지고 얇아져 바람을 막을것 같지 않았다.

《내가 학생에게 방해를 끼쳤구만...》

녀인은 기침을 겨우 진정하자 미안쩍어하며 말했다. 억양이 선명한 목소리와 추위에 시달린 얼굴에 비낀 연한 홍조는 녀인을 그닥 늙어보이게 하진 않았다. 다만 눈가에 때이르게 잡힌 실주름

과 관자노리어방에 희끗이 세인 머리오리만이 고생을 많이 한 너인임을 말해주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좀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쾌활한 음성으로 너인의 웅색한 심정을 풀어드리었다. 그리고 어깨에 걸친 솜옷의 팔소매를 꺾어입고 구리단추를 단정히 채우시었다.

《학생은 정말 피아노를 잘 타는구만... 이자 탄게 무슨 노래요?》

너인의 호감이 짙은 물음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쭙은 낯빛을 지우시었다.

《아직... 이렇다 할 노래가 못됩니다. 미완성곡입니다.》

《학생이 짓는 노래란 말이지... 놀랍구만. 듣기가 참 좋았소.》

너인은 저도 모르게 음악을 평가한것이 멧적은지 약간 게면쩍은 표정을 지었으나 감동에 젖은 눈은 어쩔수 없이 솔직한 심정을 나타내고있었다.

《그걸 왜 미완성곡이라구 하우?... 학생이 탄 피아노소리가... 음악이란걸 통 감상할줄 모르는 나같은 무식한 녀자의 마음까지 찌릿하게 만드는구려...》

너인은 감회어린 추연한 낯빛으로 나직이 말하였다.

《그 음악을 들으니 왜 그런지 아득히 지나간 일이 생각키우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체분소에 들어와서 놀더니 체분기옆에 종일 서서 일하는 이 예미가 힘들어한다구 어데서 나무토막의 자를 가져왔더랬지요. 톱으로 자른 자리에 송진이 내배고 개천흙이 묻은거였지만 앉아보니 얼마나 좋았겠소.》

너인의 얼굴에 시름겨운 미소가 떠올랐다. 침묵이 서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흥미를 가지고 다음말을 기다렸으나 너인은 아마도 낯모를 학생앞에서 때없이 아들이야기를 꺼낸것이 민망스러운지 입을 다물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신이 짓는 노래가 알지 못할 이 너인의 마음을 울리고 아들에 대한 그렇듯 생생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는 생각에 저으기 흥분되시었다. 너인의 이런 반향이 음악이 주는 보편적감정일때문일것이지만 어머니의 노래의 사상정서적의미가 어느 정도 형상의 깊이를 가진것만 같아 기쁘시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기쁨은 어느결에 사라지고 묵직한 상념이 그이의 마음을 휩쌌다. 너인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자신께서 어머니의 노래를 지으면서 다른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다는것이 속에 짊이시었다.

비록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노래이지만 수다한 다른 어머니들의 정신과 마음을 떠나서는 안될

것만 같은 생각이 갈마드시었다.

《어머니는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 따뜻이 물으시자 너인은 얼굴에 푸수한 미소를 띠었다.

《우리 앨 찾아왔다우, 남혁이라구...》

《남혁이요?! 채남혁입니까?》

《그렇다우.》

《남혁인 우리 학급입니다.》

《내 남혁이 예미라우.》

《그렇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반가이 인사를 하시었다.

《어머니, 정일이라고 합니다. 남혁이는 제 앞채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어이구, 그럼 친한 사이겠구만. 우리 앤 어디 갔소?》

《오늘은 수업이 일찍 끝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길이 엇갈린 모양입니다.》

《집으로요?!... 그애가 등메동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진 않습디까?》

너인이 다우쳐 묻는바람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었다. 남혁이네가 가루개의 모란봉기슭에 지은 새 집에 이사했고 그래서 전학해왔다는것으로 알고있는 그이이시었다. 자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고 학급동무들과 섞일리지 않는 남혁이였다. 전학해온지 얼마되지 않으니 그럴수 있으리라고, 이제 동무들과도 친숙해질것이라고 그이께서는 생각해보셨던것이다.

《어머니, 남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다우.》

너인은 보통이를 옮겨잡으며 황망히 뇌이였다.

이때 또 기침이 터져서 너인은 이마살을 찡그리고 기침을 겨우 진정시켰다.

《저... 우리 앤 어디 앓지나 않습디까? 공부랑 잘하우?》

《예, 남혁인 건강합니다. 수학문제랑 잘 풀어 선생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

너인의 창백한 얼굴에 기뻐하는 표정이 떠올랐으나 쓸쓸한 기색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없이 서계시었다.

남혁이네 집에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짐작하시였지만 어떻게 더 물으실수 없으시였다.

이윽고 너인은 손에 든 보통이를 내들며 나직이 말했다.

《저 미안한데... 부탁을 하나 들어주오. 이긴 털모자요. 우리 애한테 전해달라구. 겨울이 됐는데 그애한테 털모자가 없지...》

너인은 그이께 보통이를 들려주자 애수질은 눈에 물기가 어린채 문가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기더니 끝내 멈춰섰다. 눈길을 떨구고 무언가 인생의 소원을 터놓기라도 하듯 힘들게 그리고

간절히 말했다.

《남혁이더러... 집에 한번 오란다구... 내가 보구파한다구 말해주오.》

《그러겠습니까. 어머니. 그런데 좀 앉으십시오. 난로에 불을 지필테니 몸을 녹이고 가십시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둘러 방구석쪽에 가서 아껴둔 장작을 한아름 안아오시었다.

녀인은 엉거주춤 그이께서 장작을 내려놓는것을 도와주고 말했다.

《고맙소, 난로불을 피우라구. 방이 바깥보다두 춥구만. 손이 끝아드는 이런데서 노래를 다 짓자니 오죽하겠소.》

녀인은 기침을 짓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럼 학생, 잘 있으라구. 난 가겠소. 할일이 많다우. 두부를 열구지 았구 장마당에 가져다가...》

녀인은 어째서인지 판다는 말은 흐리마리해버리고 열적은 눈인사를 남기자 종종걸음으로 음악실을 나섰다. 널마루 칸 복도 저쪽에서 다시금 줄기침을 해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남혁이 어머니를 내려주러 복도로 따라나가지었다.

녀인은 현관에서 두부합지를 힘겹게 허리에 이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음을 재우쳤다. 숫눈이 두툼히 덮인 운동장에는 녀인의 고무신자국이 생생히 찍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담장둘레의 전나무들 너머 멀리 눈발속에 녀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있으시었다. 현관채양에서 훑날리는 눈송이들이 그이의 머리와 어깨에 내려앉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루개장마당쪽으로 간 남혁이 어머니에 대한 아릿한 걱정을 덜수 없으시었다. 감기가 심한것 같은데 그렇게 다니면 아주 몸져 누울수 있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음악실에 돌아왔으나 난로불을 피울 생각도 있고 피아노결에 가앉으시었다. 한손을 무겁게 건반에 올려놓으시자 침중한 마음을 대변이나 하듯 묵직한 불협화음이 웅글게 울려나왔다. 그이께서는 악보에 눈길을 돌리셨으나 자신의 고심어린 탐구, 열정의 산물인 하나하나의 음부들이 흐릿한 망막속에 비쳐드시었다. 오선지의 간살에 따로따로 떨어져있기도 하고 줄기로 한데 묶여지기도 한 그 음부들은 심장에서 흘러나온 창조의 피방울이고 거기서는 조선의 산악처럼 높고 장엄하고 들판처럼 푸르게 실레이는 음정이 굽이쳐 흐르고있건만 그이께서는 음악세계에 잠겨들지 못하시었다. 머리속에는 학급의 새동무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꼭 차오르시었다. 남혁이는 분명 집을 나오고 학교도 옮겼다.

무엇때문에 그랬을까? 어머니의 속을 태우며 가서 살고있는곳은 누구네 집인가?...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잇달았다. 그이께서는 남혁이에 대해 관

심을 돌리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시였고 어렵게 찾아왔을 어머니를 위해주지도 못하고 사연을 자상히 묻지도 못한것이 후회되시었다. 그이의 눈앞에는 기침을 몹시 하면서도 두부를 팔지 못해 고객을 기다리며 언문을 조그리고 앉았을 녀인의 모습이 떠오르시었다. 비록 두부합지를 앞에 놓았지만 그 어머니는 줄곧 아들을 생각할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휴식하니 자신께서는 월요일에 가서야 남혁이를 만나 어머니의 부락을 전할수 있다. 그러느라 아들을 그리워하고 근심에 차있을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에는 재가 앉을것이다. 아까 눈에 눈물이 글썽해있던 어머니였는데 또 사흘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김정일 동지께서는 음악실에 더 앉아있을수 없으시었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저택에 돌아가시여 감기약 봉지를 찾아들고 마당가로 나오시었다.

정원에서 나무가지에 하얗게 내려앉은 눈을 조그만 손으로 떨구며 놀던 어린 동생이 마당을 가로질러오며 깨꾸막뻘을 하였다.

《오빠, 또 어딜 가나?》

김정일 동지께서는 녀동생의 솜옷단추를 채워주시고 눈에 젖은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너 눈장난에 손이 다 얼었구나. 그러다 감기들겠다. 내 학급동무 어머니가 앓아서 잤다올테니 어서 집에 들어가거라.》

《오빠... 엄마노랜 다 지었나?》

동생이 정채도는 눈으로 초롱히 올려다보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묵묵히 서계시다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시었다.

《아직... 채 되지 못했어.》

녀동생은 약간 실망기어린 순진한 표정이더니 그이의 얼굴에 비친 그늘을 보고는 제법 다 헤아리는듯 어른스레 말했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마. 노래짓기가 얼마나 힘들다구. 저번때 오빠도 말했지. 세계 어느 명곡인가는 작곡가가 몇해를 걸려서 완성했다구.》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뭇 진지한 표정인 어린 동생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워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었다.

2

가루개장마당은 파장이 되는 시간이었어서 한산했다. 들어가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귀덮개털모자를 내리쓴 닻장사군은 화가 동하는지 채 팔지 못한 닻들의 발모가지를 한손에 움켜쥐었다. 한데 몰켜 거꾸로 매달린 울긋불긋한 닻들은 마치 무슨 꽃다발같았다. 그렇게 장마당에 나드는데 습관됐는지, 주인의 우악스런 손탁

을 아는지 닭들은 별로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잠차고 있었다.

강냉이가루를 묻힌 가락엿묵음을 손에 든 할머니들과 절군 고등어캐미를 쥔 중년의 녀인들이 눈발을 피하여 어물전처마밑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손님들을 기다리기에 지친 초조하고 행여나 하는 마지막 기대를 안은 표정들이다. 주름잡은 양철지붕아래 주련이 앉은 콩나물장사군들과 록두나물, 군고구마장사군들은 별로 바빠하지 않고 진득한 눈길로 손님들을 쳐다본다. 여느때보다 파장시간에 더 잘 팔린다는것을 알고있는것이다.

두부장사군은 몇사람 안되었으나 그중에 남혁이 어머니는 없었다.

보매 령감의 털등거리를 덧껴입고 집에서 뜯 털실수건으로 목을 칭칭 둘러감은 할머니는 몇모 남은 두부합지를 내쳐두고 옆의 군밤화로에 바짝 시들어 구부러진 손을 쫓이며 한가스레 말을 주고받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 다가서시자 할머니는 얼른 군밤화로에서 물러났다. 고객에게 던지는 지어낸 친절성이라고는 믿기 어렵게 푸수한 온정이 실주름 얹힌 얼굴에 내비쳤다.

《쯔쯔, 총각이 두부사러 다 오구. 몇모 달라나?》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안쩍은 기색을 지으셨다.

《할머니, 저는 두부사러 온게 아닙니다.》

《그러문?》

《좀 물어볼게 있어서 왔어요.》

《어서 말하게나.》

《여기에 두부팔러 등메동에서 어머니 한분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 그러문 총각이 그 등메동 아낙의 아들인가?》

할머니는 반색을 지으며 그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 아낙이 이렇게 준수하게 잘 생긴 끝끝한 아들을 두었구만. 그래 삼촌네 집에서 학교를 다닌다지. 삼촌이 거 뭐라더라... 건설성의 부국장?...새 벽돌집이라지?》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저 웅색해서 할머니의 지곳은 나무람을 잠차고 들으시였다.

《총각은 삼촌네 집이 아무리 좋아해두 어머니한테 자주 다니라구. 총각 어머니 아들자랑을 은근히 하데만 한쪽으론 여간 보구과하지 않더라니.

쯔쯔, 옛날부터 홀어머니 고생은 아들이 더 모른다는 말이 틀린게 아니지.》

두부장사할머니의 온정섞인 가벼운 꾸중은 계속되었지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용히 듣기만 하시였다. 학급의 동무에 대한 힐책이니 어떠한것도 자신께서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였다.

《할머니...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낮빛으로 물으시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두부를 다 파셨습니까?》

《에그, 어림있나, 못팔았지. 내열에 앉았다가 두부를 채 팔지 못하구서 갔지. 기침을 몹시 해서 이마를 만져보니 이 화초처럼 뜨거웠네, 눈오구 날 추우니 두부는 잘 팔리지 않지, 몸은 아프지... 그 아낙 정상이 말이 아니여서 내가 나머지 두부를 팔아주기루 하구 들여보냈다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 할머니는 혹시 그 건설성에 다니는 삼촌네 집을 모르십니까?》

김정일 동지께서 저으기 미안해하시며 물으시자 할머니는 놀래서 엉겁결에 일어났다.

《아니?! 나더러 삼촌네 집을 묻다니, 그럼 총각이 등메동 아낙의 아들이 아닌가?》

《예... 사실, 전 그 동무와 한학급입니다.》

《원 이런 변이라구야! 늙은게 큰 실수를 했구만.》

두부장사할머니는 당황해서 마른 손으로 그이의 솜옷자락을 어루쓸었다.

《날 용서하라구. 정말 성품이 대범한 총각이군. ...헌데 어떡한다. 난 그 삼촌네 집을 모른다니, 등메동 집만은 잘 아네.》

인정많고 다심스런 할머니는 그이께 등메동의 집 위치를 자세히 대주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남혁이 삼촌네 집을 모란봉 기슭에 새로 지은 벽돌집들 어방에서 찾아보는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으시였다.

그이께서 장마당을 나서시였을 때는 눈이 더 내렸다. 온 도시가 짙은 눈발속에 감겨들었다. 진눈까비는 신발에 철떡거리며 달라붙고 솜옷에 스며들어 눅눅하게 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퍼붓는 눈속을 한시간나마 다녀서야 남혁이 삼촌네 집을 찾아내시였다. 다행히 건설성에 다니는 사람을 만났기망정이지 더 고생할번하시였다. 천신발이 진눈에 푹 젖어 시려들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아담한 벽돌집의 현관에 들어서자 토끼털모자를 벗어 어깨와 앞가슴에 수북히 쌓인 눈을 터시였다. 푸른 뺨끼칠을 한 둔중한 참나무문에는 폐쪽이 달려있었다.

남혁이는 두칸짜리 넓다란 집에 혼자 있었다. 성에서 일하는 삼촌내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서양식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활활 타고있었다. 방안은 훈훈하였다. 털세타를 뜻뜻이 입은 남혁의 얼굴은 만족과 평온으로 불깃하였다.

《정일동무, 어서. 불을 켜여.》

남혁이는 수놓은 모직천을 씌운 의자를 벽난로 가까이 끌어다놓고는 주전자를 사기고뿌에 기울여 굴빛의 따끈한 차를 부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남혁이의 다심한 친절에 미소로 레의를 표시하고 의자에 앉으시였다. 그이

의 젖은 솜옷에서는 연한 김이 피어올랐다.

《우리 집을 대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찾안?》

《응, 힘들게 찾았어.》

김정일 동지께서는 혼연히 말씀하고는 무언가 궁금해하는 기색인 남혁이에게 보통이를 내미시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거야.》

《우리 어머니가?!...》

남혁이는 가스스름한 눈을 크게 떴다. 기쁨보다 놀라움과 불안스런 그늘이 그의 등실한 얼굴에 비껴지나갔다. 그는 보통이를 받았으나 무관심한듯 탁자에 아무렇게나 놓아버렸다.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던?》

남혁이의 걱정스러운, 그러면서도 감추려 하지 않는 불안기어린 물음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머리를 끄덕여보이시었다. 어쩐지 마음이 울적해지시었다. 후끈한 집안에서 털세타를 입고 태평스레 있는 남혁을 보느라니 광목토스레수건을 쓰고 기운 솜옷을 입고왔던 그의 어머니가 생각나시었다.

《어서 헤쳐보려무나.》

김정일 동지께서 부드럽게 충고해서야 남혁이는 뜨직이 보통이를 끌었다. 그러자 까만 털이 보르르 윤기도는 값진 털모자가 나졌다.

순간 남혁이의 시무룩한 낯빛이 흠칫하고 굳어졌다. 그는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털모자를 내려다보았다.

《맞는지 써봐.》

김정일 동지께서는 권고하시었지만 남혁이는 털모자를 밀어놓고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벽난로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이께서는 안타까우시었다.

《남혁아, 어머니가 널 무척 보고싶어하더라. 어떻게 된 일이니? 왜 삼촌네 집에 없혀있니?》

김정일 동지께서는 따듯이 물으셨으나 남혁이는 탁상의 식은 차잔을 끄당겨 한모금 추기고는 젖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침묵을 지켰다. 방안의 정적이 길어질수록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력력히 떠돌았다.

《남혁아... 어서 내게 말하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난 학교에 찾아온 너의 어머니가 피로워하는것을 보면서 외람될것 같아 더 물어보지 못했어. 네가 말해주렴.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지 않아. 가슴아픈 일은 속에 품고있지 말고 터놓으면 좀 나올거야.》

남혁이는 사위여가는 벽난로에 장작가치를 두어개 집어넣고 맞은켄 의자에 앉았다. 조그마한 난로불이 타오르는 그의 눈에는 원망이 깃든 서글프고도 결연한 표정이 어렸다.

《정일 동무, 학급동무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걸 용서해주어. 삼촌네 집으로 나온건 어머

니하고 다뿔기때문이야. 우린 서로 견해가 달라. 어머니... 어떻게 하나 고장난 제분기를 수리해둘리겠다고, 장사를 그만두지 않고있어. 여러해동안 계속해오지. 난 그때 철이 없어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말눈깔사탕이랑 사먹는걸 좋아만했어. 하지만 지금은 난 어머니를 설복해낼수 없었어. 정말 안타까와. 등메중학교에서는 학급애들이 전에는 <제분소집 아들>이라고 하더니 나중엔 <장사군아들>이라고 얼마나 놀려댔는지 몰라. 그런 때면 난 수치감을 떨어버릴수 없어 혼자 울기까지 했어... 그래 삼촌네 집으로 왔어. 학교도 떼웁기고...》

남혁이의 피로움이 짙은 눈에는 다시금 물기가 맺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남혁이의 울곤은 심정에 공감이가면서 그들, 어머니와 아들사이의 애정세계에 어떤 편애한 감정이 흐르고있음을 느끼시었다. 그이께서는 음악실에 찾아왔던 남혁의 어머니를 그려보시었다. 피아노소리에 심취해서 자기 아들의 어렸을 때 일을 추억하며 감동스러워하던 녀인, 기침을 깃으며 무거운 두부합지를 이고 눈발속을 걸어가던 초라한 행색의 녀인을 생각하시니 가슴속에서 끝없는 동정과 의혹, 선의의 착잡한 감정이 샘솟는것이였다.

《남혁아, 집에 제분기가 몇대나 있니?》

《두대 있었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제분기 두대를 다 돌렸어. 그렇지만 전쟁때 미국놈들의 폭격에 제분기 한대는 아주 마사졌어. 전후에 나머지 한대를 좀 돌렸는데 전동기가 타버렸어. 우리 어머니는 그 제분기가 아까워서...》

《남혁아, 그렇다고 집을 나온건 잘못된것 같구나.》

《삼촌이... 집이 비어 적적하다고 와있으라고 했어.》

《글쎄 림시로 그랬겠지?》

그이의 기대어린 온화한 물으심에 남혁이는 나약해지는 자기 마음을 가다듬기라도 하듯 결연히 머리를 쳐들었다. 얼굴에서는 아까의 서글픔과 피로움은 사라지고 원망과 결심의 차거운 표정이 어렸다.

《아니... 난 집을 아주 나왔어. 어머니하고는 헤어진거나 같애.》

김정일 동지께서는 신중한 기색으로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으시었다.

《남혁인 너무나한것 같구나.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복했어야지. 집을 나온건 자기만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옳게 살겠다는것이 아니냐?》

《우리 어머니 설복하지 못해. 제분기 없이는 살지 못하는줄 알아. 그래서 어머니 두부장사 하는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저번때 삼촌은 개인상공업자들이 다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됐는데 가문에 아직 장사군이 있다는게 뵈말인가고

막 야단했어.》

남혁이는 화가 나는지 장작가치를 벽난로 아궁이에 던지듯 집어넣었다. 불씨와 연기가 풀썩 일더니 장작가치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의 항변처럼 불붙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방안에 서린 침묵에 견디기 어려우시였다.

《남혁아, 개인상공업자가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다는건 그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어려운 변혁과정이야. 난 남혁이가 좀더 인내력을 가지고 어머니를 설복하길 바래. 원칙만 가지고 어머니한테 요구하고 집에서 뛰쳐나오면서 박정스레 그러지 말고 어머니의 아들로서 참답게 효성한다면 어머니가 꼭 말을 들을거라고 생각해. 남혁인 어렸을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정이 각별했더구나. 어머니는 남혁이가 체분기열에 늘 서서 일하는 자기한테 나무토막의자를 주어왔었다는걸 지금도 기억하고계시더라.》

《그야 까마득히 지나간 일인걸 뭐.》 남혁은 대수롭지 않은듯 시큰둥히 말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운한 낯빛을 지으시였다.

《어머니에 대한 정이 벌어지다니... 좋지 않구나. 그래도 털모자를 사들고 온 어머니한테서는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흐르고있었어.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말이야. 어머니의 그런 진정에 비하면 남혁이의 행동은 너무 몰인정하지 않을까?》

남혁이의 울분이 서렸던 눈에 차츰 온정의 빛이 살아났다. 그는 추억에 잠긴듯 초점없는 눈으로 탁자위의 털모자를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아까보다는 펄 누그러든 음성으로 피염피염 말했다.

《정말이지 우리 어머니 날 끔찍이 생각해. 그건 사실이야. 너무 지나칠 정도지... 그렇지만 어머니사랑이란게 과연 그런걸까?... 맛있는걸 먹여주고, 추울세라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그것만이 어머니사랑이 아닐거야. 어머니한테서는 자식을 감싸주는 어떤 정신적인 고상한것이 뿔겨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것이 없어. 그저 맹목적인 사랑만 있지. 그러니 사회야 어떻게 발전하든 자기는 체분기를 돌려서라도 잘살아보겠다는 리기적인 생각만 앞세우거든.》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들로써 지켜야 할 도리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요구만 팽팽하게 높은 남혁이를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시였다.

《남혁이,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 그 손길에서 걸음마를 뗐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깨치며 자랐어. 인간을 창조하는 어머니의 품은 위대한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어머니 사랑의 높이에 지성세계가 꼭 비례할수는 없어. 어머니마다 지성세계가 다를거야. 지난날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은 일제놈들한테 나라와 민족의 얼을 뺏기고 천대와 수모를 받으면서도 가정과 자식을 위

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해왔어. 배우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의 지적인 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인격에 고상한 정신적인것이 없다고 해서 괘시한다면... 그것이 과연 자식의 도리고 효성이라고 말할수 있겠어? 완성된 어머니의 사랑만을 바라는것은 불효한 자식일거야. 훌륭한 아들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지만 또한 훌륭한 아들한테는 나쁜 어머니가 없을거야. 진정한 울리사랑을 모른다면 내리사랑의 참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

남혁이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흥분된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그와 헤어지시였다. 생각같아서는 기다렸다가 남혁의 삼촌을 만나보고싶었지만 아직은 미루실수밖에 없으시였다.

차거운 대기가 그이의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솜옷주머니에 손을 찌르시고 퍼붓는 눈속을 천천히 걸어가시였다. 남혁이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그냥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과연 빨강계 언 손으로 두부합지를 이고가던 그 녀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타매할만큼 그렇게 고집스럽고 리기심에 찬 사람인가? ...어머니가 아무리 그런 녀성이라 해도 아들로서 혈연의 뜨거운 감정이야 식어질수 있는가. 자식이 자기와 결별을 선언했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적인 애정이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사랑을 잃는것처럼 아들을 사랑할수 없다는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머니결을 함부로 떠난 남혁이와 조카를 꺼림없이 받아들인 그의 삼촌에 대해 의분을 느끼시였다. 어쩐지 남혁이 어머니가 고장난 체분기를 놓지 않거나 두부장사를 해서만은 아닌것 같으시였다. 그의 가정에 꼭 무슨 사연이 있는것만 같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솜옷주머니안에 있는 약봉지가 손에 잡히자 무춤 걸음을 멈추시였다. 남혁이가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드리게 하려고 했던것이다.

바람이 눈발을 한층 세게 몰아왔다. 바람은 그이의 어깨와 앞가슴에 수북이 쌓인 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른 눈가루를 몰아다 덧쌓기도 하였다. 숨이 탁 막힐 정도로 찬 눈가루가 얼굴에 덮씩우고 입안에 흘러들었다.

밤추위에 가로등이 희미하게 떨고있다. 거리엔 차차 인적이 드물어갔다.

그이의 채 마르지 않은 천신은 발목까지 잠기는 눈속에 푹 젖고 발은 얼어드는것 같이 시렸다. 그러나 발시리는것은 잠시동안의 느낌이고 인차 잊으시였다.

피아노건반에 두고온 악보의 선율이 그이의 머리속에 떠오르고 가슴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얼어드는 신발은 찬 눈속을 헤쳐가건만 그이의 온심정은 채 완성하지 못한 음악에 잠겨있으시였다.

앞을 가로막는 흰 눈보라의 장막을 오선지처럼 여기고 거기에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음정을 악보로 새겨넣으시였다.

어머니의 노래 선율은 그이의 마음속에서 동무에 대한 불만을 따스히 어루만지고 보다 뜨거운 인정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문득 **김정일** 동지께서는 행길을 휩쓰는 뽀얀 눈보라속에서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을 보시였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영원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수 없는데서 오는 상실과 비애의 크나큰 감정이 안아온 추억의 영상이였다.

유년시절의 눈내린 겨울날, 그이께서는 거리의 소공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눈싸움에 정신이 팔려 놀다나니 운동화가 꼭 젖는것을 아시지 못하시였다. 발이 시리고 얼어붙기 시작해서야 집에 뛰어들어오셨다. 저녁준비를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그이를 맞아들여 부엌아궁이앞에 앉히시였다. 운동화를 벗기시고 언발을 따스한 손으로 주물러가시며 불에 쪼여주시였다.

그날밤 어리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감기로 열이나고 오한에 몸이 떨렸으나 아프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고 조용히 지리에 누우시였다. 어머니를 찾아 애무를 받으며 함께 있으면 아픔도 덜어지고 편안히 잠들수 있을것이였지만 그이께서는 차마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시였다.

열린 사이문으로 조선옷을 단정히 입으신 어머니가 학원에서 찾아온 원아들과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고계시였다. 일요일이면 어머니가 보고싶어 찾아오는 원아들이다.

저택의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고 찬 눈가루가 유리창에 부딪쳐 떨어진다. 문풍지는 가끔 추위에 떨며 불안스런 소리를 냈으나 방안은 아늑하였다.

장난질이 세찬 그중 작은 애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개삼아 네활개를 펴고 잠에 곱아떨어졌다. 지난해 동북의 거친 들판에서 데려내온 혁명가유자녀들중에 섞여있던 더벅머리 아이다. 그때 어머니께서 께진 베짖는이를 기워주겠다고 벗으라고 하니 그애는 얼굴이 빨개서 벗지 못했었다. 속옷이 변변치 않아 부끄러웠던것이다.

어머니는 잠든 그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뒤편에 앉은 목이 상큼한 원아에게 물으신다.

《그래, 넌 인젠 병이 다 나았단말이지?》

《어머니가 보내주신 약이랑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원아는 벌떡 일어서 팔과 몸을 힘껏 돌리며 건

강을 자랑했다.

그 몸짓이 우습고 재미있어 어리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픔을 잊고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애는 몇달전에 열병에 걸렸었다. 어머니께서는 학원의 의료일군들이 그애를 다른 방에 옮겨놓고 치료하고있는것을 아시고 어서 가보자고 하시였다. 학원일군들은 전염병을 앓고있는 원아의 방에 어머니를 모실수 없다고 막아나섰다.

어리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머니가 학원일군들을 물리서게 하시면서 절절히 하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하시였다.

《우리가 그애의 친부모라면 열병을 앓는다고 안가보겠습니까! 그애의 어머니는 손에 총을 들고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와 싸웠습니다. 자기 아들과 수백만 조선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오늘을 위해 몸바쳐 싸우다 애석하게 희생되였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애의 어머니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실로 가시어 겨우 몸을 일으키는 그 원아를 꼭 껴안아주며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없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이제 곧 낫는다. 지난날 부모를 잃고 그 모진 고생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만한 병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원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약에도 비할수 없는 크나큰 사랑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애가 소생하여 건강한 몸으로 찾아왔으나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어리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머니와 원아들의 즐거움이 넘치는 이야기에 방해될가봐 기침이 나오느것마저 애써 참으시였다.

어머니께서 원아들을 다 잠재우시고 옷방에 올라오시였을 때 어리신 그이의 머리는 불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초들초들 말라있었다.

《네가 저녁에 기침을 몇번해서 걱정했지만 이렇게 아픈줄 몰랐구나. 왜 말하지 않았느냐.》

어머니께서는 어리신 아드님을 껴안고 약을 입에 떠넣어주시였다.

《어머니, 정말 너무 아파 어머니를 찾으려했어요. 그렇지만 저 원아들은 래일 아침에 어머니와 헤어져 또 학원으로 가야잖아요.》

《원아들이 나하고 더 오래있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지... 네가 어머니맘을 알고있구나. 인젠 다 자랐어.》

어머니께서는 눈물이 글썽하시어 아드님을 다 시금 품에 안고 정겹게 불을 대이시였다. 어리신 그이께서는 백두밀림의 밤, 우등불가에서 자장가를 들으시던 그밤처럼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서 아픔을 잊고 잠드시였다.

그것은 영원히 추억에 남은 어머니의 사랑이였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머니 생전에 불보다 뜨

겁고 바다처럼 행성에 가득찬것이어서 세월이 흘러가도 식지도 마르지도 않는다. 추억으로 다시 받아안은 그 사랑만으로도 그이께서는 발이 시리지 않고 온몸이 후끈해나는 감을 느끼시었다.

바람은 팽팽히 언 전선줄을 뒹뒹 울리고 나무가지에 쌓인 눈을 뭉청뭉청 떨어뜨린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피아노건반에 두고온 악보, 흰눈보라의 장막에 즐기치게 그려넣은 악보를 돌이켜보신다.

노래는 아직도 그이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다.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셨건만 스스로 불만스럽다. 그렇다. 아들을 키워내고 손잡아 이끌어 주신 어머니의 사랑만을 그려서는 안될것이다.

강줄기의 폭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와 같은 어머

님의 생애가 곡에 울려야 하지 않겠는가.

어머님은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들을 낳은 그 모든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념원을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해오셨다. 그런데 자신은 남력이 어머니를 포함한 그 평범한 어머니들의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가?... 그 모든 어머니들의 슬픔과 고통... 희망과 소원... 깊디깊은 심정, 인정의 바다를 헤아리고 위해줄만큼 자신의 마음이 넓고 뜨거운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등매동쪽의 교외길로 발길을 옮기면서도 가슴을 새롭게 그려잡는 철학적인 선물에 흥분하고 반문하며 오래도록 심취되시었다.

(다음호에 계속)

백두의 길이어

성만실

싱그러운 백두의 바람소리
어디선가 풍겨오는 산물의 향기...
항일전의 자욱 력력한 백두의 길로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거니시여라

끝없이 펼쳐지는 수림을 바라보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안광에
따뜻한 미소가 어린다
눈석임물이 소리치며 흐르던
조국진군의 그 봄날을 여기서 그려보시는가
가까이 다가서는 풍상서린 백두의 산야들

소백수가 멀지 않은 숲이었지
우등불 타고르던 숙영지
어느 너대원이 부르던
《사향가》를 들으시며
수령님께서 잠못드시던
그밤은 얼마나 아름다웠으랴

김정숙어머님의 소중한 발자욱 깃든
소백수 물가에 지금은
물안개 고요히 피어오르고
작식대원의 모습도 보일것만 같은 이 길로
자욱자욱 이어가시는 우리의 지도자동지

백두의 숲이며 언덕이며 물가
그 어데인들 신비로운 전설 깃들지 않았으랴
하기에 걸으시는 자욱자욱마다에
뜨거운 진정을 고이시며
수령님 발자취어린 그 길우에서
거룩한 혁명의 뜻을 새겨안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5호물동가의 소담한 진달래꽃잎에
환하신 미소를 얹으시고는
조국진군의 그 봄날을 추억하시며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고

배개봉숙영지를 지나실 때는
수령님께서 무수해산나물을
여기서 처음 맛보셨다고
무수해, 청취일을 뜯으시며
그날의 수령님 모습도 그리시고

친애하는 그이 오시기를 기다려
등판마다 백두산철쭉꽃, 물초롱꽃
숲속엔 나리꽃...
꽃망을 봉긋이 펼치고
가시는 길우에 그윽한 향기 가득 풍기여라

오 길이어 백두의 길이어
장설을 헤쳐오신 자욱을 이어
이제 헤쳐갈 자욱 준엄하기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
이 길을 밝아보시는것이 아니냐
이 길우에 천만대오를 세워주시는것이 아니냐

이 길을 걸어보아야
조국을 안다고
이 길을 걸어보아야
억천만번 원썬을 칠수 있다고!

나는 래일을 위해 오늘에 산다

박호범

행복이여라
기쁨이여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미래에로 나를 불러주신다

잠들 때면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깨어날 때도 그 목소리에 잠을 깨며
나는 때없이 나에게 묻는다
너는 그 많은 나날을 살아가면서
조국의 미래앞에
남긴것이 무엇이던가

평온한 날에 당부하신 목소리라면
가슴이 이처럼 뜨거움에 끓을수 있으랴
준엄한 오늘에 깨우쳐주시였기에
온몸, 온 넋을 불붙여주는
고마우신 우리 장군님의 그 목소리

그 짧은 한마디 말씀속에
백두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우리 혁명이 걸어왔고
나 또한 병사의 배낭을 메고 헤쳐온
승리의 장장천만리가 비껴있고
조국의 천년미래가 숨쉬고있나니

인간의 삶이
무엇때문에 아름다운가를 깨우쳐주는
아 우리 장군님의
그 위대한 인생관

그 인생관을 삶의 좌우명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긍지로운것이나
오늘의 하루로

김정일시대의 주춧돌을 놓아가며
자기를 바쳐가는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것이나

삶이여 한껏 아름다우라
미래여 끝없이 만발하라
신심으로 미래를 열어가며
락관으로 승리를 안아오며
혁명의 붉은기 높이
조선은 미래에로 미래에로 나아가나니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시며
오, 나를 불러주시는
오, 조국을 불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생관속에
내가 있다, 조국이 있다, 천년미래가 있다!

(1996. 3. 6)

영원한 삶의 노래

조창제

새기고 또 새겨보노라
숭고한 그 뜻에
가슴뭉클 젖어드는
장군님 말씀

-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봄비를 맞는 푸른씩마냥
부풀어오르는 환희를 안고
나는 생각하노라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관을

우리 아닌 그 누가 지닐수 있으랴

뜨거이 생각하노라

희망의 등대처럼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이

무엇을 밝히고있는가를

그이 견고걸으시는 현지도의 그 길이

어디에 잇닿아있는가를

쪽잠으로 지새우시는 그런 밤에도

그이의 안광엔 무엇이 빛나고

그이의 심장은

무엇으로 더 세차게 고동치고있는가를

그것은 아, 그것은 미래

끝없이 번영할 조선의 래일

그이는

그이는 오늘을 건설하시며

래일을 꽃피우시는분

그래서 그이의 웃음은

강철을 녹이는 해빛처럼

그리도 밝고 따뜻한것이다

제일먼저 아침을 맞으시는

그이의 심장은 언제나 열정에 끓고

미래를 앞당기는 그이의 걸음은

언제나 젊음에 넘쳐있는것이다

그렇다

김정일 동지, 그이는 벌써

우리의 운명도

후대들의 운명도

행복의 봄언덕 새 세기에로

굳건히 이어놓으신분

삶의 영원한 철리로

미래를 열어주시고

락관으로 승리를 안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인생관으로 숨쉬기에

우리의 하늘은 저리도 푸르르고

우리의 세월은 이처럼 빛나는것이어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나는 보노라

고난의 행군길에 언 풀뿌리를 씹으며

눈보라속에서 오늘을 향해 걸어온

투사들의 그 모습을

결전의 그 언덕들에서

총창을 비껴들고 달려나가던

영웅전사들의 그 눈빛을

혁명선배들이

당과 수령 앞에 랑심과 의리로 성실했고

후손들앞에 떳떳했던것처럼

나 또한 오늘앞에 래일앞에

마음바쳐 깨끗하고

몸바쳐 떳떳하리니

자랑과 긍지에 넘쳐

나의 눈시울은 젖어드노라

영광의 이 길에

억천만번 죽더라도

후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는 최후에 웃는 승리자로 되리라

오, 맞이하리 미래여 새 세기여

그것으로 오늘을 살며

그것으로 래일을 안아올

위대한 장군님의 참된 인생관

그것을 영원한 삶의 신념으로

불타는 심장에 우리 받아안았다

-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1996. 3. 6)

강산에 넘쳐나는 인민의 노래소리

아침에 비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깊은 밤 눈내려도 온 나라 돌보시네
...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을 잊지 못하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란가 끝없이 끝없이 울리는 노래.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인민을 위하시어
멀고 험난한 길을 걷고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의 그 영상이 눈앞에 어려오고 오늘도 인민의 행
복을 지켜 한밤을 지새워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의 그 로고에 가슴뜨거워지는 우리 인민이다.

5월의 단비가 소리없이 내리는 밤이다.

드넓은 도로와 마을의 포석우엔 물보라가 가볍
게 일고 명멸하는 불빛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거
리마다에선 은은하고 경쾌한 선율도 흘러나오는
듯싶은 정서깊은 밤.

하건만 수도의 불밝은 극장무대들과 집집의 창
가들에서는 노래소리, 웃음소리로 시간이 흐른다.
마치 이밤에는 노래와 웃음만이 있는듯싶다.

참으로 좋은 밤풍경이다.

인민의 문화정서생활로 흘러가는 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
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장군님의 끊임없는
보살피심속에서 마음껏 노래부르며 행복을 누리
갈때마다 우리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하
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업적을 뜨겁게 새겨보군한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갈마드는 우리의 생각은 의
례히 푸른 추녀 나래편 평양대극장으로 미쳐간
다.

인민의 기쁨이 무르익어 노래소리, 웃음소리
멧을줄 모르는 평양대극장.

그 이름 불러보노라면 황홀감에 즐거움에 먼저
가슴이 몽클 젖어들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배풀어주신 사랑이 미쳐와 우리의
심장은 끓어오른다.

우리 식 극장건설의 력사가 비껴있고 온 세상
사람들을 경탄시킨 《20세기문예부흥기》의 서막
을 열며 그 첫 고고성이 여기에서 울리지 않았던
가.

우리 수령님이 그리워, 그래서 더욱더 사무치
는 그리움속에 이곳을 찾아올 때마다 대극장의

푸른 지붕은 하많은 사연을 전하며 우리의 추억
을 이끌어준다.

어버이수령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평양
에서 대극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던 196
0년 5월 30일이였다.

일찍부터 인민을 위한 문화전당을 하나 잘 마
련해주시려고 설계와 터전에까지 깊은 관심을 돌
려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도 몸소 현지에
나오시였다.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
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곳에서 한동안 결
음을 멈추시고 들끓는 작업장쪽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아무래도 무대부분의 지붕이 잘 어울
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동행한 건설일군이 동평양에서 사는 한
로동자가 보내왔다는 편지를 어버이수령님께 삼
가 보여드리였다. 편지에는 무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제나름의 소견이 적혀있었다.

깊은 관심속에서 그 편지를 읽어보시던 어버이
수령님께서서는 이윽하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
시며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
다.

《웁소. 인민들이 나쁘다면 다 나쁜것이고 인민
들이 좋다면 다 좋은것이요. 이 극장이야 인민들
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좋다는대로 지어야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러시면서 네마리의 기러
기가 날아가다가 기러기 한마리가 처진것 같으니
극장의 지붕을 고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
다.

대극장은 옛날에 지은 경복궁과는 질적으로 다
른 건물이라고, 우리가 짓는 이 극장은 인민을
위한 예술의 전당인것만큼 인민들의 요구대로 후
손만대에 길이 전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
물로 잘 지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기도 하
시였다.

이름없는 로동자가 써놓은 소박한 글줄에서도
그속에 비껴있는 우리 인민의 미학적감정과 문화
정서적요구를 헤아려보시며 극장의 지붕추녀에까
지도 인민의 정사와 지향이 어리도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민족적형식을 띠고 사
회주의적내용을 담아 무른 나래를 편 평양대극장
의 웅자는 이처럼 인민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크
나큰 사랑에 받들리어 솟아오른것이다.

하기에 어버이 그 사랑이 고마와 날아가던 기
러기때도 여기에 내려앉아 합각지붕을 펴고 이렇

게 웨치는것만 같다.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그리고 부디 가슴에 새기시라.

평양의 중심에 어떻게 되어 인민의 문화전당으로 불리우는 이 대극장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는가를, 그리고 이 지붕아래 어떤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들이 수놓아져있는가를...

그렇다. 평양대극장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남기신 불멸의 업적이 아로새겨져있어 더더욱 못잇을 력사의 집이다.

가극혁명이 포성을 울려가시던 그 나날 이곳에서 밤낮을 잇으시고 때식도 번저가시며 새로운 혁명가극을 창조해가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사색이 숨엄히 깃들어있는 이곳.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고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도 열어주시였다.

인민의 문화적재보가 된 혁명가극을 가장 완성된것으로 만들어주시려고 때로는 연출가가 되시고 때로는 관람석에 앉은 인민의 립장에서 혁명가극의 장면장면을 지도하시며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자정이 이속해진 밤까지 한마디의 대사를 두고 사색을 거듭하시고 먼 후날에도 인민이 즐겨부르게 될 한곡의 노래를 완성하시려 수천곡의 가요들을 듣고 들으시던 전설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있는가.

작품을 놓고 새날의 려명도 맞으시며 밝아오는 첫 새벽에 전화로 불멸의 노래도 창작가들에게 안겨주시던 그런 일화들을 인민은 마음속에 안고 산다.

노래의 절가화와 방창의 도입, 립체적인 무대 미술의 리용... 가극전설의 이 독창적인 사상도 인류는 여기에서 받아안았다.

력사의 그 나날들을 못잊어 대극장무대우에서 장군님 지으신 그 노래를 사람들은 목청껏 부르 고부른다

그 노래를 실은 추억의 물결을 거슬러오르려니 또다시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난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실 새형의 피아노를 보아주시며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던 1988년 4월의 화창한 봄날.

영광과 행복에 싸여 감격해있는 연주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악선율을 훌륭히 연주하도록 고무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

건반우에서 울려나오는 피아노의 맑은 소리를 세심히 들어주시며 우리 인민에게 또하나의 문화

적재보를 줄수 있게 된것으로 하여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

악기 하나를 만들어도 노래 한곡을 들으시고 한편의 소설책을 보시여도 인민이 누리갈 그 생활을 위하여 마음을 합쳐가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 지들은 가는곳마다 꾸려져 이 나라는 말그대로 락원의 강산이여라.

세계에 손꼽히는 만수대에술극장이며 인민문화궁전, 로동계급도시의 자랑인 함흥대극장과 문화회관들이 우리를 부르고 도시와 멀리 있는 산간마을 세채의 살림집을 위해서도 텔레비존중계탑을 하늘높이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누구나 맑고 밝은 텔레비존앞에서 노래경연무대도 함께 보고있다.

저기 5월1일경기장과 청춘거리체육관들에서 손에 땀을 쥐고있는 젊은이들, 창광원을 나서는 늙은이들의 상쾌한 걸음이며 이 봄철에도 빙상관의 은반우를 달리는 아이들 그리고 관성렬차에 몸을 싣고 대성산을 굽어보며 손을 휘젓는 청춘들도 모두 하나의 모습이거니.

우리 사람들은 수집음을 잘 탄다고 성미까지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꾸려주신 평양산원앞 공원에서는 복덩이를 안고 젊은 부부가 어쩔줄 몰라한다.

꽃배가 떠다니는 대동강물결우에서 인민이 터치는 기쁨의 분출인양 분수가 타래쳐오르는데 조국의 하늘가엔 무지개가 비끼였다.

휴식일이나 퇴근후에 이채로운 유보도의 풍경.

명절과 생일이면 축하장과 기념품을 주고받으며 다정한 형제로 화목한 인민.

참으로 사람마다 로동이 그대로 기쁨이고 노래인 우리 생활, 노래속에 웃음속에 삶의 희열이 넘치는 내 나라.

우리 인민은 알고있다.

우리모두를 세상에서 가장 문명한 인민으로 내 세워주시려고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정속에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은 이렇듯 활짝 꽃피나고 이 나라의 명승지마다에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의 자리잡고있으며 우리 생활은 그리도 밝고밝은것임을.

하기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격정에 뜨겁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그 업적을 칭송하여 부르고부르는 충성의 노래들은 이세상 가장 열렬한 축원의 노래가 되어 세월을 이어가며 영원히 울려갈것이다.

조봉국

풍부하고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의 개방과 령도자의 빛나는 형상

-총서 《불멸의 향도》 중의 장편소설 《동해천리》에 대하여-

정릉진

문학작품창작에서 인간의 풍부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작품에서 인간의 성격은 항상 그 인물에게만 고유한 사상심리적인것의 총체로 표현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하는 작품인 경우에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지난 기간 우리 작가들은 기념비적총서작품들과 일련의 작품들에서 각이한 정황에서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체험세계를 넓혀나가는 수령의 내면세계를 심오한 경지에서 선명하게 펼쳐보임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이러한 형상원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보여주는 작품창작에서도 다르게 될 수없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 계시며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가장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로 향도하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성,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과 인간적품모의 위대성 역시 딱딱하고 격식화된 형상으로는 보여줄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방법으로 풀어나가시며 혁명전사들과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모든 력사적사실들을 작품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자체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보다 중요한것은 그것들이 현실로 실현되기까지에 바쳐진 심오한 사색의 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의 높이와 깊이, 위대한 인간

으로서의 정신적령역의 풍부성을 폭넓게 일반화할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견지에서 최근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동해천리》(백남룡 작)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총서작품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개방하는데 주의를 돌리지 않은 작품은 없다.

그러나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동해천리》는 그것이 완결된 체제성을 가지고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전개되고있다는데 특성이 있다.

부닥치는 사건앞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체험하시는 사색의 세계는 극히 자연스럽게 제시되며 그 모든 내부적체험들은 비반복적이면서도 내적으로 깊이 련관되어있다.

작품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체험하시는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는 경제사업에서의 땀땀 고리를 풀어나가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에게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과정에서 길게 부각되고있다.

경제문제와 관련한 체험세계는 많은 경우 지도일군들과의 관계에서 전개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해천리를 현지지도하시던 1970년대 중엽은 경제사업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던 시기였다.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넘쳐수행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비료문제, 검덕광산에서 국가계획밖에 6톤의 연, 아연을 더 생산하는 문제, 무산-청진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 건설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만일 작품에서 기술실무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이런 경제적난관을 제시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지에 도착하시여 그것을 손쉽게 풀어나가시는 식으로 처리하였더라면 그 형상은 독자들에게 그렇듯 깊은 감명을 안겨주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해당 대책을 세워나가기까지 그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야 한다.

현지에 도착하시여 풀리지 않는 난문제앞에 이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그 난문제와 관련된 모든 고리들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신다.

이 과정에 그이의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가 참으로 깊이있게 개방되고있다.

비료생산문제만을 놓고보자.

동해안농촌들에서의 비료문제는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장천이 현존소비량에 대한 조절안을 내놓을만큼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지 못하기때문이었다.

작가는 비료문제와 관련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풍부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개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건적정황을 제시하고있다.

그 첫번째가 구형협동농장 처녀작업반장 백리향의 발기로 진행되는 유기질비료생산을 친애하는 그이께서 직접 목격하시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료생산의 견지에서 매 인물의 사상과 관점에 대하여 많은것을 생각하신다.

어떤 인간이 진실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가. 적지 않은 관리위원장들이 비료를 얻자고 《사업》을 하며 동분서주하고있는데 어떻게 되어 백리향은 자체로 자급비료를 만들어 강냉이비료로 쓸 궁리를 하는가.

그것은 분명 백리향의 열다섯해전 콩지머리시절에 쌍곰바위밑에서 웅달샘을 가꾸며 제고향사랑을 하던 그 소박한 애착심을 오늘에 이르도록 소중키워온것이기때문이라. 그런데 리장천은 백리향에 비하여 식견도 넓고 직위도 높는데 왜 이런것을 발견도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속되던 사색의 흐름은 드디어 비료문제를 그 어떤 경험이나 지식, 직위보다도 땅과 고향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사랑만이 해결할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리장천으로 하여금 몇백년 묵은 늪바닥의 흙을 파서 소달구지로 실어다가 땅을 걸구어 풍년을 마련하던 옛 농촌위원장시절의 그 소중한 마음을 변함없이 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신다.

더우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리장천이 농업대학을 졸업한 조카 길석이를 평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행동을 두고 대학생총각을 사랑하던 농장처녀 백리향의 운명,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농촌의 장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신다. 그 과정에 그이께서는 그 현상이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농업부문일군자녀들의 사회진출에서 일부 편향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감득하신다.

사색의 시작점은 백리향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하나의 작은 경제문제에 불과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듯 생활에 대한 인간들의 견해와 관점, 농촌문제, 청년들의 장래문제에로 사색을 넓혀나가신다.

사건적정황의 그 두번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께서 허상민과 한만규가 비료증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촉매물질에 관한 연구사업을 적극 밀어주지 않고있음을 목격하시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앞의 이야기에 비하여 보다 심각한 내용을 안고있다.

여기서는 비료문제가 사랑과 우정, 의리와 도덕, 성실성, 진실성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운명문제와 보다 밀접히 어울리고있다.

비료증산을 위한 중요한 공간인 압축기개조문을 놓고보자.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창안 및 설계하고 시험까지 하다가 폭발사고로 잘못된 한 로동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폭발당시 그가 공장설비에 손상을 주었다고 그의 량심을 언제까지나 미해결문제로 남겨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허상민처럼 법적추궁이 무서워 새 기술혁신안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결부되고있다.

허상민과 한만규가 P 촉매의 연구를 적극 도와나서지 않는것은 언제나 현실에 들볶이우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또한 자기 직무에 성실한 인간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보신주의 및 근시안적사업방법과 관련되어있다.

작가는 이렇듯 두번째 사건적정황을 인물들의 운명선상에 제시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매 인물들의 신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색할수 있는 충분한 계기점을 마련해주고있다.

허상민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색은 어떻게 하면 그를 근본을 잊지 않고 로동자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인간, 의리가 있는 인간으로 되돌려세울것인가 하는데로 흐르고있다.

이것은 두번째 사건적정황을 제시하면서 작가가 의도한 굵을 따라 사색이 깊어지고 체험이 축적되어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처음으로 알게 되신 허상민은 지난날에는 불우하게 자란 소년이었고 해방후에는 항학열에 불타던 로동청년이었다. 그는 당의 배려로 류학갔다 돌아와 들끓는 현실생활속에서 지식있고 결패있는 경제일군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이즈음에 와서 그의 사생활과 경제지도 사업에서는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는 비료공장 기사장사업을 할 때 압축기개조안을 지지했다가 실험의 실패로 법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은바 있다. 그때부터 그는 정치생활에서 이런 오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새롭게 제기된 그 압축기개조안을 무작정 멀리하며 P 촉매의 연구도 달가와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날 실무가 높고 사업에 대한 구상과 열정이 있고 담대하던 그의 긍정적성격측면을 느낄수 없는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신다.

차라리 무언가 큼직하고 대담한 사업조직을 하다가 과오를 범하기라도 했다면 그이께서 그토록 가슴아파하지시지 않을것이다.

그의 가슴에서 사랑과 의리는 다 어디로 갔는가, 왜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생활의 성실한 방조자가 되어준 안해와 장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한만규는 실속없는 정치사업의 그늘 밑에서 어찌하여 일종의 자기만족을 느끼는가.

이런 사색과 체형세계의 안받침이 있었기에 작품의 이 대목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그토록 감명깊게 부각될수 있었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허상민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과 의리심을 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검찰소에 미결건으로 남아있던 강진희문제를 우리 당의 인간애사상의 견지에서 완결하도록 하시며 북천강화화학공장 지배인 차웅섭을 자기 위치에 그대로 복직시키고 그가 심혜옥기사의 P 촉매연구를 계속 도와주도록 하시는 이야기들은 매우 감동적이다.

검덕광산에서 운광문제가 해결되고 무산-청진 사이 장거리정광수송관건설장에서 송암진펄극복방도가 탐구되는 대목에서도 독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득하게 된다.

검덕광산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석수가 쏟아지는 갱막장으로 몸소 들어가시여 광차를 늘이고 운반궤도를 복선으로 하는것보다 벨트콘베어를 놓는것이 운광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라는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검덕에 오시여 35리 구간에 벨트콘베어를 놓도록 하여주신 혁명적인 조치는 이런 사색, 이런 구상이 낳은 필연적결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송암땀에 가시여셔도 진펄정복을 위한 기술실무적문제만 풀어주시지 않는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불모의 습지에서 목숨을 잃은 수난자들의 과거에 대하여 생각하신다.

쓰라린 설음과 절망에 잠겼던 그들은 애오라지 희망을 안고 이 습지대로 찾아왔다가 점점 깊어지는 감탕에 빠져 세상을 하직하면서 눈물겨운 비사를 남겨놓았을것이다.

그렇수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죽음의 땅》을 그대로 남겨둘것이 아니라 크나큰 경제적가치를 안은 조국땅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송암진펄을 개간하고 거기에 곧추 수송관을 설치하도록 명안을 내놓으시는것 역시 이런 사색의 확대심화과정에 싹이 트고 결실제로 이어진 위대한 발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일련의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리장천, 허상민, 한만규, 리인결 등 지도일군들과의 관계에서 깊이 체험하시는 사색의 세계는 또한 일군들을 인민의 총복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숭고한 모습을 뜨겁게 느끼게 한다.

여기에는 대중속에 들어가는 하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에 대한 그리고 일군들의 사업과 언행, 문건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참다운 신뢰와 애정, 믿음이 풍겨나지 못하는것에 대한 준철한 꾸짖음이 있고 또한 일군들을 더 잘 교양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살게 하시려는 열렬한 사랑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직접 만나시여 그들에게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며 체험하시는 사색의 세계 역시 령도자로서 지닌 그이의 숭고한 풍모의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제문제가 있는곳에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얹혀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시고 먼저 사람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시는 사업방법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일반적으로 사람문제는 왕왕 사상, 견해, 관점, 도덕, 의리, 사랑, 우정 등 복잡한 감정에 기초하여 제기되며 그것은 표면에 나타날수도 있고 길이 숨겨져있을수도 있다. 어떤것은 본질과는 다르게 다른 형태로 눈에 띄이는 경우도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해천리에 현지지도의 자욱을 찍으시면서 먼저 사람들을 료해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때문에 가슴을 태우는지를 죄다 알아내시고 풀어주신다.

군당책임비서 리중결, 공장지배인 차웅섭, 너기사 심혜옥, 오랜 기술자 하영술, 농장작업반장 백리향, 착암공 홍종선 그리고 송암군의 한 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속에서 자기들의 소원을 풀고 값있는 삶의 길에 들어선다.

그 파정에 그 모든 인물들의 운명과 관련하여 그이께서 마음쓰시는 내부적체험세계는 독자들에게 하여금 온갖 인간적미덕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안게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배인 차웅섭과 너기사 심혜옥의 운명에 대하여 사색하시는 장면만을 놓고보자.

《그이께서는 차웅섭의 잔주름살이 얹힌 눈확속에서 젊은이의것과 같은 생의 욕구와 충동으로 번쩍이는 눈을 보시였다. 눈은 정신과 마음의 창

문이다. 조그만 모닥불이 타오르는 지배인의 그 눈에서는 꺼칠한 턱수염과 시들어 푸르죽죽한 입술과 가혹한 주름살과는 상반되는 도저히 늙을수 없는 사랑과 정신의 아름다움이 황황 불타고있었다.

그이의 머리속에는 차웅섭의 집뜨락의 어린 포도나무와 두툼한 연구자료, 실험실로 되어버린 방안의 정경이 되살아나시였다. 뒤울안에 있던 밀확이 빠진 쇠절구들을 생각하니 다시금 가슴이 뭉클해지시였다.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가!... 참답게 사랑할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사업도 생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할것이다. 그리고 젊어질것이다.

차웅섭은 마땅히 심혜옥기사의 사랑을 받아야 하며 그럴만한 정신도덕적, 인격적품모를 소유한 사람이다. 심혜옥기사가 줄없는 악기와도 같은 이 지배인을 받들어준다면 만사람이 뜨거워 할 생활의 아름다운 새 선물이 사회의 장중한 교향악속에 합류될것이다.》

P 축매연구사업을 도와준것으로 하여 차웅섭은 《생산에 무관심한 일군》 당사자인 심혜옥은 《간부홀아비한테 시집가려는 로처녀》로 뒤소리를 들으며 두사람 다 자기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거듭하신다.

생활속에서 싹트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누구한테서도 인정받지 못해온 철늦은 사랑의 진가를 해부하시며 그 사랑이 깨끗한것처럼 앞으로 그들의 사업과 생활도 영원히 진실할것이라고 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의 세계는 얼마나 고상하며 훌륭한것인가.

작품에서 매 인물들의 운명문제에 기울어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색은 그 운명의 성격에 따라 비반복적인 양상을 띤다.

늙은 외과의사 정의빈의 인생말년생활과 그의 《수술일기》와 관련한 그이의 내부적체험세계는 젊은 시절뿐만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시기까지도 값있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사려깊은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압축기공강진회의 미결건을 바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내부적체험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혁명전사의 공로와 량심을 바로 평가해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부각해주고있다.

또한 외곡된 자료로 그릇되게 인정받고있는 군당책임비서 리중걸에게 청렴한 당일군의 본색을 다시 찾아주려고 애쓰시는 체험세계와 관리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으나 사상단련을 잘하고있는 박림수에게 오리목장 지배인의 새 직무를 주려고 애쓰시는 체험세계는 정치생활에서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정치적보호자로서의 그이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착암공 홍종선의 암반제거투쟁을 높이 평가하시며 화산입당을 시키도록 배려하여주시는 장면은 천만자식의 마음속그늘을 헤아려보시고 깨끗이 가져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그이의 인자한 모습을 돌고어주고있다.

문제제시와 내용에서 서로 다른 이 모든 사색과 체험세계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자로서의 위대성과 인격적품모의 다면성, 정신세계의 풍부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하고있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작품에 전개된 친애하는 그이의 풍부하고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가 독자들의 마음을 감명깊게 이끌어가는것은 거기에 철두철미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따르시는 그이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이 힘있게 구현되어있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해지부에 대한 현지지도의 나날 검덕광산에서 년간계획회의에 6만톤의 연, 아연을 더 생산하고 무산-청진사이에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을 건설하며 동해안농촌들에 비료를 넉넉히 대줄데 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시고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사색하시며 일군들도 그런 방향에서 사고하고 사업하도록 이끌어나가신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장천이 군여지책으로 현존시비량에 대한 조절안을 내놓았을 때 서해안광창지대의 군들과 포천들의 시비량은 수령님께서 수첩에 적어가시며 오랜 기간 관찰하시고 종합분석하신 수치이므로 그 신성한 수치를 절대로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대목은 수령님의 뜻을 관철하는데서 자그마한 예누리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완강한 원칙성과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길가에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이 제대로 미쳤는가를 가늠하여보시며, 석수를 맞으시며 막장을 찾아 광부들의 심중의 말을 들으실때도 수령님의 뜻대로 이들을 어떻게 더 잘 내세워줄것인가를 구상하신다.

작품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옥쌀공급문제와 관련하여 량정총국장과 전화를 하시며 깊이 생각하시는 장면이 있다.

여기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옥쌀공급을 실현하려는 량정총국의 계획은 좋으나 좀 더 가공기술을 완성하여 입쌀에 못지 않는 옥쌀이 완성되었을 때 공급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신다.

인민들이 옥쌀밥을 먹게 됐다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옥쌀밥을 먹는가가 중요하며 입쌀에 못지 않는 좋은 옥쌀을 완성해야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그이의 투철한 관점, 이것은 집무의 ऐसा로운 날에 있는 사실이지만 영원히 잊을수 없는 화폭으로 우리의 뇌리에 새겨진다.

작품에 전개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풍부하고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가 독자들의 마음을 감명깊게 이끌어가는것은 또한 그것이 빈틈없는 감정조직에 의하여 설득력을 획득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레로 백리향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체험세계를 보면 구획이 뚜렷한 단락에 의하여 감정축적이 논리정연하게 이루어 지고있다.

처음은 공지머리시절의 백리향을 놓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고향에 대한 소박한 그의 애착심을 기록히 여기시는 단계이고 다음은 유기질비료 생산현장에서 백리향에 대하여 보다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시는 단계이며 그다음은 도시로 떠나간 길석이로 하여 백리향의 앞길에 드리워진 한가닥 그늘을 느끼시는 단계이고 마지막은 길석의 귀향으로 인한 두 청춘의 결합을 무한한 기쁨으로 맞으시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순차성도 있고 비약도 있으며 감정의 굴곡도 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는 시작도 있고 전개도 있고 종결도 있는 하나의 감정흐름을 이루고있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가지고 감정의 흐름에 이끌려들어가게 하며 풍부하고 심오한 사색의 세계에서 큰 감동을 받아안게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문학론》에서 일부 작품에서는 수령의 형상이 어딘가 시원하게 탁 트이지 못하고 범접할수 없는 경제와 율타리를 친듯한 감을 주는데 이것은 수령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관조적으로 그린것때문이라고 지적하시였다.

만일 령도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추구를 존엄성 없는 외람된 일로 여기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의 문제를 놓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그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는 언제든지 꺾여지지 못할것이며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모습은 형상으로 빛나게 실현되지 못할것이다.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동해천리》에서 작가가 대담하게 전면적으로 활용한 형상창조의 이 수법의 장기를 깊이 리해하고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친근한 어버이로, 스승으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모습을 더 잘, 더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량 심

리기력

량심이여
먼 인생길을 가며
심장속에 나날이 움터나
소중히 안고사는 량심이여

유혹은 젊은 시절의 병이여서
명예에 마음이 동한적도 있었다만
너의 가차없는 눈길을 두고는
내 단 한번도 판눈 팔수 없어
청춘의 푸른 꿈
막장에서 꽃피울수 있었나니

아, 량심
전사의 배낭을 흠뻑히 적시던 그 땀방울에
썩살 박힌 내 어깨를 파고들던 그 목고채에
쏟아지는 석수앞에 내대던 그 가슴에
언제나 진정으로 습배던 너

조국에 빛이 될 석탄
우리 수령님 귀밑머리
그 석탄때문에 더 희여지신것만 같아
가슴에 고이고고이던 더운 눈물,

인민에게 열이 될 석탄
그 석탄이 격정되시여
우리 장군님 한밤중에
탄전을 찾으시던 전화종소리
잊을수 없는 그 마음

그 눈물
그 마음이더라 량심은
땅밑에서 조국을 받들며
한생을 살리라는 맹세
그 맹세더라 량심은

없으면 나도 죽고
지키면 나도 있는
신념의 뿌리에서만 억세게 움터나고
효성의 자양분으로만 싱싱히 자라나는
아 너는 내 심장의 심장!

한생을 변함없이
깨끗히 안고 살 때
돌이켜보라 어지러운 자욱은 없으리라
돌이켜보라 후회되는 자욱은 없으리라



위대한인간 —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주처럼 무한대하고 용암처럼 뜨거운 혁명적의리의 정화로 영원한 충효일심의 서사시를 조국력사에 찬란히 수놓아가고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는 모든 세대들이 혁명선배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전진하며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도덕의리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시는 성스러운 사업에서 최고의 높이로 발현되어 영원불멸할 충성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은 자신의 전부이시고 우리 조선의 전부이시며 세계의 전부이시라는것이 바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영원불변의 신념이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맞고보내시는 나날들은 그처럼 충성과 효성으로 빛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늘 긴장하게 사업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을 두고 언제나 마음쓰시였다. 어느해의 2월에는 일군들에게 친히 전화를 거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라도 휴식을 하도록 사업보장을 잘할데 대하여 간곡한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진정 넘치는 말씀을 전해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오래동안 방안을 거니시다가 나직한 음성으로 한평생 험한 길을 걸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지 못하고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한몸을 먼저 생각하겠는가 하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는 투쟁에 한몸 다바치는것이 자신의 더없는 보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답게 살며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이 주체위업에 몸바치나선 혁명가의 신념이며 투철한 생활관이라고 진정에 넘쳐 절실하게 말씀하시

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기시며 그 길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찾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그날부터 우리 인민은 불타는 맹세와 빛나는 실천속에 맞고보내는 날과 달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간직하신 혁명적원리의 고결함과 숭고함을 더욱 뜨겁게 느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영원한 충성의 구호를 새겨주시고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온 세상만방에 펼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하게 꾸리시여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청류다리와 금룡2동굴을 건설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군인들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완공의 날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받들 어갈 충성심을 지니시고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폭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실로 가장 고결한 도덕의리로 충성의 장을 펼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은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찬란히 빛나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김정일** 동지는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 아주 좋은 품성을 지니고계신다고 늘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훌륭히 건립된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온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업적을 길이 전하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고결한 의리와 철석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

아버 이수령님을 받드는 충성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우다 생을 마친 혁명렬사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

주작봉마루에서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는듯한 혁명렬사들의 반신상들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처음에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련사들의 반신상을 인조대리석으로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렸었다.

그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의 나날 일편단심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바친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을 인조대리석으로 만들어놓는것은 량심이 허락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수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동으로 무게있게, 빛이 나게 만들어 세우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실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안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한몸바쳐 싸운 혁명렬사들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그대로 영웅메달의 빛발이 되고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비문이 되었으며 주작봉은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봉우리로 솟아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전사들에 대한 가장 고결한 동지적의리로 우리 조국땅에 일심단결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게 하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탄생 60돐을 맞으신 뜻깊은 날에 혁명동지의 귀중함을 깊이 깨우쳐주시는 연설을 하신데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면서 동지란 이름보다 더

고귀한 칭호는 없다고, 동지적관계야말로 인간들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고 귀중한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동지를 구하는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시고 동지적사랑속에서 기나긴 혁명투쟁력사를 빛내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처럼 동지란 말을 인간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고상한 칭호로 보시며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함께 하는 동지들의 운명을 언제나 자신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키시었다.

1981년 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뜻밖의 병으로 사망한 한 일군의 비보를 들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여 온밤 잠못이루시며 비내리는 창가를 떠나지 못하시었다. 새날이 밝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평양으로 가고 하시면서 일정계획을 바꾸어 남먼저 문밖을 나서시었다. 그때로 말하면 차길은 무더기비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평양으로 가는 우회길도 여간 험하지 않았다. 그러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초가 새롭다고 하시면서 험한 산골짜기를 지나시고 사뭇치는 강물우에 놓인 철다리를 건너시었다. 또 발목까지 빠지는 강냉이밭이랑도 서슴없이 걸어 넘으시었다. 그렇게 간난신고를 하시며 평양에 당도하시자 이어 그길로 전사의 령구가 안치되어있는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전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며 그는 우리결을 떠났지만 당은 그를 잊지 않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비보를 받으신 때로부터 장례식을 다할때까지 그렇게 애석함과 슬픔속에 날을 보내시면서 당과 수령에게 바친 전사의 충실성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유가족들도 그의 뜻을 참답게 이어가도록 따듯이 고무해주시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느 먼곳에 가있다가 이제 돌아올 사람을 생각하듯이 늘 그 일군을 추억하시며 그는 혁명에 무한히 충실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그의 후대들에게도 친아버이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대를 참답게 이어가도록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참으로 이런 뜨거운 혁명적의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조국의 수많은 일터와 가정들에서 날마다 꽃피어나고있으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진정 사랑과 의리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신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이 세상 끝까지 따를 우리 인민의 신념은 더욱 굳세여졌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김일성** 조선으로 영원히 빛내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가 그대로 우리 인민의 기상이 되고있으며 그것은 또한 숭고한 의리로 존재하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힘차게 내려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은 우리 혁명가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빛내어나가야 하는가를 밝혀준 귀중한 가르치심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에는 비록 자기자신을 락을 보지 못한다 해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한몫 바쳐나가실 친애하는 그이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구현되어있다. 또한 여기에 우리모두가 이를 인생의 철리로, 좌우명으로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이 담겨져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명언을 새기면 새길수록 그 뜻이 너무도 심원하고 웅대하여 우리 가슴 더더욱 후터워진다.

세상에는 력사에 이름을 날린 정치가, 철학자, 명인들이 내놓은 인생에 대한 철학, 인간의 삶을 론의한 명언들도 많다. 그러나 력사는 우리 장군님의 명언처럼 간결하고 쉬운 말속에 것처럼 숭고한 리념과 공산주의적인격, 락관주의정신이 맥박쳐흐르는 위대한 명언을 아직 모른다.

이 명언이 그토록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깊은 사색으로 이끌어주고 그 요구대로 삶을 빛내이도록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하나의 대구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정치리념, 위인으로서의 공산주의적인격, 필승의 신념에 기초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인생관화되어 삶의 좌우명으로 뜨겁게 안겨오기때문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이다.

《오늘》과 《래일》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대명사로서 명언에서는 인생관을 규정짓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은 혁명가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투쟁의 보람과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혁명적인생관이다.

혁명선은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투쟁이며 이 투쟁은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창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위한 오늘의 삶은 참다운 삶이라고 할수 없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삶의 투쟁속에서만 혁명가들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그속에서 혁명가로서의 삶의 보람, 긍지와 행복을 느끼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인생관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자가 잘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조국,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후대들을 사랑하시고 미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인간의 한평생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세대의 창조가 없이는 현세대의 행복이 있을수 없고 오늘의 세대의 투쟁이 없이는 다음 세대의 번영이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통찰하시고 가장 어렵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헤쳐오시면서 래일을 설계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험벗고 굶주리던 마안산아동단원들을 한몫에 안아 그들에게 새옷을 해입히시고 소년중대를 조직하시여 그들을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골간으로 키우신것도 그리고 전화의 나날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도 작성하도록 하시고 한사람의 전사가 더 필요한 때 싸우는 전사들을 대학으로 부르시여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우신것도 바로 조국의 래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였다.

언제나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신 어버이수령님의 인품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매 일 매 순간을 혁명에 바치시며 언제나 우리 조국의 래일, 인민의 행복을 생각하시고 꽃피워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기관차인 우리당이 하루라도 일을 그만두면 우리 인민이 남먼저 공산주의사회에 들어설수 없다고 하시면서 잠도 쪽잠으로 대신하시고 식사도 췌기밥으로 예우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우리 혁명을 이끌어주신다.

이러한 위대한 분이시기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위대한 명언을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은 다음으로 자기자신을 락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한몫바쳐 싸워야 한다는 공산주의적인생관이다.

예로부터 황금의 노예인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

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혁명가들은 미래를 창조하고 앞당기는 투쟁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긴다.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무궁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최상의 기쁨을 찾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사랑의 길을 수없이 걸고계신다.

전쟁으로 완전한 폐허였던 이 땅에 만년대계의 대기념비들이 솟아나고있는 위대한 전변의 역사를 통해 알수 있다.

하나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설하시여도 우리 인민과 후대들을 위한것이라면 그 어떤 경제적타산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우리 인민이 소원하는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며 살던 료환선거리에 일떠선 금강산절경을 방불케 하는 창광거리며 녀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평양산원, 수도중심부에 자리잡은 인민대학습당, 창광원, 빙상관 그리고 서해갑문 등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난것은 언제나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인생관이 낳은 빛나는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은 다음으로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굳게 믿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간고분투하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다고 하여 물러서거나 주저앉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오늘 당장 쓰러진대도 말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그 길에서 순직하는것이 부닥치는 난관을 웃으며 뚫고나가는 참된 공산주의혁명가이다.

가사

붉은기 휘날리며 조국이어 앞으로

우리는 수령님 따라서 붉은기 휘날리며
백두의 준령도 전화의 불비도 헤쳐네
혁명의 붉은기는 주체의 우리 신념
조국이어 앞으로 붉은기 더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

우리는 제 힘만 믿고서 붉은기 휘날리며
내 나라, 내 조국 부강을 누리며 떨쳤네
혁명의 붉은기는 우리의 백전백승

력사적으로 혁명의 길에서 순풍이 불어올 때는 만세를 부르다가도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면 뒤전에 물러나 혁명을 외면하거나 배반하는자들은 레외없이 혁명적신념이 없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결여된자들이었다.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은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간고분투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락관에 넘쳐 우리는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반드시 밤 12시까지 건설을 중지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모든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1990년대초엽 사회주의좌절위기로 온 세계가 우리 조선을 주시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나무심기를 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여 세계를 경탄시키시였다.

이것은 바로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주의정신에 기초한것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장군님의 명언은 실로 우리들에게 혁명적락관주의와 필승의 신념에 기초하여 참된 인간의 삶의 목표와 투쟁방향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 또한 우리 혁명전사들이 살아서 참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죽어서도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하는 인생항로를 환히 밝혀주고있다.

더우기 오늘의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더욱 간고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가슴깊히 새기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나가야 한다.

류동호

조국이어 앞으로 붉은기 더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

우리는 폭풍을 맞받아 붉은기 휘날리며
장군님 따라서 주체의 위업을 완성하리
혁명의 붉은기는 불패의 사회주의
조국이어 앞으로 붉은기 더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

추억

리명균

빠리에서 《프랑스-조선친선협회》결성모임이 있는날 저녁 회원인 테레자부인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21살나던 해 겨울에 있는 일입니다. (나와 만났을 때 부인은 70객이었다.) 펍 오래전 일이지요.

그해에 저는 빠리에서 전문학교를 마쳤는데 졸업하자 약혼문제가 제기되어 부모님들의 승인을 받으려고 상해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상해 프랑스조계지의 교회에서 목사로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네가 좋다면 반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눈으로 보아야 안심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청혼자를 상해에 왔다가도록 편지하라는것이었습니다.

청혼자는 빠리에서 신문기자로 있었는데 저의 연락을 받고 새해에 시간을 얻어 상해로 오겠다는 회답을 보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짧지 않은 기간을 어머니가 운영하는 프랑스어야간강습소에 강사로 나갔습니다. 몸이 쇠약해지신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릴겸 심심파적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뜻밖에도 강습생들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강실안은 활기를 띠었고 청강생들은 호기심이 났습니다. 어린 빛나는 시선들을 저에게로 집중하곤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방금 며칠 전까지 빠리에서 살았으니 프랑스의 최신유행과 생활어를 잘 알고있으리라는 점 그리고 21살 꽃나이의 처녀강사라는 점이 견인력으로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습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청강생들은 30명가량 되었는데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프랑스류학을 위해 회화를 익히려고 오는 청년도 있었고 프랑스상선이나 조계지안의 프랑스상점에 취직하려는 목적을 품은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학습열이 높았습니다. 누구도 결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젊은이만은 강의에 이따금 빠졌습니다. 이상스레 인상이 침울한 청년이었는데 늘 뒤자리에 앉아 묵묵히 강의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회화숙달이 위주인만큼 강의시간의 대부분은 강사와 청강생들 또 청강생들 호상간의 질의응답으로 되어있었고 아직 익숙치 못한 회화를 읊기느라니 강실안은 시종 유쾌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명랑한 강습소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어회화에 숙련되자면 말을 자주 해봐야 합

니다. 쓸데없는 말이라도 자주 지껄여보고 논쟁을 해봐야 하지요.

강습생들은 앞을 다투어 나에게 질문을 하고 될수록 나와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한번도 나에게 먼저 무슨 질문을 하는 일이 없었고 늘 함구무언으로 앉아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도 언제나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 청년에게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이 강습소에 흥미를 잃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이 결강을 할 때면 나는 아마도 강습소를 그만둔 모양이다, 이제는 나타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강습소를 그만두지 않았고 2~3일 결강하다가도 다시 출석하곤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가 다시 나타나면 나는 반가웠고 강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가 배우지 못한것을 가르쳐주려고 강의를 마친후에 혼자 남게 하고 반시간가량 보충강의를 해주곤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이것을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자주 결강을 하는데... 용서해주시시오.>

<왜 결강하곤하지요?>

<...>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수그리고있는 그의 몸을 주시하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억세게 생긴 커다란 손, 키는 큰편이지만 홀쭉하게 여윈 체구...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낮시간의 대부분을 고된 로동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일것이라고 짐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날 낮이었습니다.

공동조계지에 있는 일본인상점에 갔던 나는 범선들이 무수히 떠있는 황포강기슭을 따라 소풍을 하며 천천히 돌아보고있었는데 불현듯 놀라운 광경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중절모를 눌러쓴 두명의 일본인형사가 한 젊은이를 체포해가는데 그 젊은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경악하여 비명을 지를번 하였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저고리는 찢어지고 어깨에서 팔굽으로 붉은 피가 흥건히 배어나오고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물으려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뺨혹하기로 이름난 일본인 경찰들이 그것을 허용할리 없다는 생각과 또 그

런 상태에서 나를 대하는것이 그 청년으로서는 부끄러울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나는 못본척 외면하였습니다. 왜 체포되었을가? 무슨 범행을 저질렀을가? 절도? 강도?

집에 돌아온 나는 뒤숭숭한 생각에 잠겨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날저녁에 그 청년이 강습소에 출석한것이었습니다.

어깨에 피가 배어나왔던 옷대신에 다른 옷을 입었으나 청년은 출혈을 많이 한 사람의 창백한 얼굴이었고 피로움을 참는 사람의 강인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를 남게 하려고 했는데 그는 나의 지시가 없이도 다른 강습생들이 다 돌아간 빈 강실에 그대로 앉아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많이 상했어요? 나는 낮에 학생을 보았어요.>

<저도 선생님을 보았지요.>

뜻밖에도 청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가 웃는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흰이를 드러내며 싱긋이 웃는데 인상이 어찌면 그렇게 달라질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울한 모습은 없어지고 장난군과도 같은 쾌활이 느껴졌습니다.

<상처는 어때요? 처치를 받았어요?>

<상처는 대단치 않습니다. 대충 처치도 했지요.>

<약을 더 바르자요. 우리 집에 그런데 쓰는 약품이 좀 있어요.>

<약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붕대를 더 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놓여나왔구요?>

<우리 동무가 하나 체포되어가는걸 구원해주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동무는 무사히 빠져나갔는데 대신 제가 붙들렸지요. 그렇지만 경찰서에 끌려가 심문을 받다가 나도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쉽게?>

<쉽게는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했지요.>

두놈의 경관이 심문하다가 한놈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앉아있던 결상으로 남아있는놈의 면상을 후려쳤지요.>

<어마나... 무슨 위법행위들을 했기에 그렇게 생명을 모험하면서 탈출했어요?>

<위법행위는 한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체포되나요?>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때문이지요. 나라의 독립을 원한다고... 저는 조선사람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사람이에요?!>

강습생들 가운데 조선사람이 하나 끼여있다는것을 더우기 독립운동자가 있다는것을 저는 그때까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만난 첫 조선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의 기색을 주의깊게 살피더니 잠시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에게 한가지 부탁하자고 합니다.>

<뭔데요? 어서 말씀하세요.>

<오늘밤... 제가 이 강습소에 남아있도록 허락 해주실수 없겠습니까? 거리에 수색이 퍼질수 있습니다. 일본경찰의 의뢰를 받고... 정확히 말하면 매수공작에 넘어가 프랑스경찰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정들도 날치고... 여기는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강습소는 교회당구내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경찰이 범접할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었지만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지지할만한 레열은 지니고있었습니다. 더우기 그 청년은 제가 강사로 있는 강습소의 청강생이었습니다.

<어서 그렇게 하세요... 참, 저녁은 자셨어요? 제가 뭐 좀 가져오지요. 잠깐 기다리세요. 아니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가는게 어떻가요.>

청년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시게 되고... 복잡해집니다.>

<여기는 좋겠는데요?>

<추위같은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후 제가 집에 들어가 몇가지 음식을 구력에 넣어가지고 강습소로 나오니 그 청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았던 자리는 비어있고 빈 강실에 전등불만 환했습니다.

나는 실망하여 강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굳어졌습니다. 나를 믿을수 없어 다시 생각해보고 가버린것일까?

싸우는 식민지청년에 대해 애잡짤한 련민의 정을 품고있었던 저는 불신을 당하였다는 생각으로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나 원망할수는 없다고 리해되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생사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 청년이 나를 믿어야 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잠시후 나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음식구력을 손에 든채 강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당에 나서니 울타리결 어둠속에서 그 청년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잠간 자리를 뗏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걸 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몸을 피했었다는것을 깨달았으나 저는 노엽지 않았고 왜 자리를 뗏뗏는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강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내가 음식을 퍼놓자 청년은 더 사양하지 않고 집어들었습니다.

청년은 음식을 천천히, 그러나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가져온것을 말끔히 다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끼니를 번진듯했습니다.

<더 가져올가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어제저녁부터 굶었었지요.>

<참, 밤을 지내자면 침구가 있어야겠군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집에 들어가 모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결상들을 나란히 놓아 침상을 만들고 그 위에 모포 두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추울것 같아 나는 어깨에 걸치고있던 외투를 벗어 모포를 덧씌웠습니다.

청년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나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있었는데 내가 외투를 벗어 덧씌우는것을 보자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별로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의 추위는 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외투는 입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외투를 입지 않았습니다.

<성한 몸도 아닌데... 신열이 있을거예요. 오히려 날수 있어요.>

저는 외투를 벗어놓은채 강실을 나왔습니다.

<편히 쉬세요.>

청년은 나의 등뒤에 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성공하세요.>

이날부터 청년은 나에게 대한 굳은 신뢰를 표시하였고 나도 따뜻한 감정으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우리는 더욱더 다정한 사이로 되었었습니다.

청년은 그후에도 자주 결강을 하였는데 청년이 결강하다가 나오면 나는 반드시 보충강의를 해주었고 보충강의가 끝나고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하는것이 즐거웠습니다.

소설에서나 보았던 독립투사를 실재인물로 목격한다는 감동이 그 근처에 놓여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분노를 표시할 때면 나는 22~23살의 청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난을 다 겪은 사람을 마주한듯한 착각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프랑스어는 내가 청년의 선생이었지만 그외의 일체 문제에서는 청년이 나의 선생이라는것이 곧 판명되었습니다.

청년은 독학가로서의 완강한 탐구력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있었습니다. 한번 들은것은 잊지 않는듯했습니다. 결강을 가장 많이 하는 청강생이었지만 그의 어학성적은 첫자리에 있었고 떠들거리기도 하고 문법상착오도 많았지만 자기 의사

를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실력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청년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망국사와 독립운동을 환히 꿰뚫고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독립운동을 깊이 연구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문득 물었습니다.

<참,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프랑스말은 왜 배우지요?>

나의 돌연한 질문에 청년은 당황하는듯하였습니다. 시선을 들어 쳐다보니 청년의 길쭉한 얼굴에 난처해하는 기색이 나타나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질문을 취소했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그만두세요.>

청년은 잠시후 진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신의에는 신의로 대답하는 도덕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래년 1월부터 빠리의 베르사이유궁전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렬강들의 수뇌자들이 다 모입니다. 클레망소, 윌슨, 포이드 조지... 오늘의 세계를 대표하는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혈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한일합방은 기만이다, 위조이다, 조선민족은 독립을 소원하며 독립국으로 될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금 민족자결주의가 온 지구를 휩쓸고있습니다. 이 세계사적 사조앞에서 일본제국주의는 변명할바를 찾지 못할것이며 우리의 청원은 렬강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청년은 에스또니아, 라트비아, 리트바, 체스꼬슬로벤스꼬, 유고슬라비아, 마자르 등 약소민족들이 다 독립을 얻게 되었는데 5,000년 력사국인 우리 조선이 왜 독립을 얻지 못하겠는가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권강탈자인 일본제국주의를 세계의 면전에서 폭로하고 우리 민족의 의사를 세계만방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독립달성의 첩경입니다. 빠리강화회의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암시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리로 가자고 합니다.>

청년은 부르짖듯 열렬하게 말하였고 나는 깊은 감동에 잠겨 그의 열변을 들었습니다.

나는 청년을 위해 기쁨을 느끼면서 물었습니다.

<언제쯤 떠나시나요?>

<준비가 되는 차제로 떠나겠습니다.>

<저도 오래지 않아 빠리로 돌아가겠는데 함께 갔으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수도 있겠는데요.>

나는 진심으로 말하였습니다. 청년은 반색하였습니다.

<아, 그래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리가 전혀 초행이지요.>

<출발날자를 미리 알려주세요. 저도 될수록 그에 맞추겠어요.>

청년은 준비가 끝나면 출발날자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두주일후 청년은 강의가 끝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다가 저에게 이런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독립청원서입니다. 프랑스어문인데 수고스럽지만 선생님이 교열을 해주실수 없겠습니까?>

<제가 교열을 해도 된다면 기꺼이...>

<부탁하겠습니다.>

그는 청원서를 내놓았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게 하는 곡진하고 애절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인민이 얼마나 땅을 치고 호곡하면서 독립을 갈구하고있는가를 통절히 깨닫게 하는, 피가 타는것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다 기억할수는 없지만 몇문장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빠리강화회의의 여러분이여! 프랑스수상 클레망소여! 미국대통령 윌슨이여! 영국수상 로이드 조지여! 일본제국주의의 살인적인 식민지학정의 생지옥속에서 10년세월 아비규환의 참경을 체험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당신들을 구세주로 우러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민족자결주의의 가치를 지구의 정상에 높이 추켜든 당신들은 박애와 인도와 정의의 화신이오며 세계약소민족의 어버이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2,000만 민중의 독립소망을 청납하고 우리 나라가 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널리 포고해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글줄마다에 넘치는 애국충정과 독립열원에 감격하여 저는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저는 한자한자 따져가면서 지성껏 교열을 했고 아버지의 교회에 있는 타자기로 타자까지 정갈하게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청년은 한동안 강습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월말에 프랑스에서 저의 청혼자가 도착했습니다.

청혼자를 본 저의 부모님들은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흰칠한 몸매의 미남자인 청혼자는 세련된 레절과 기자다운 박식, 채치있는 화술로 저의 부모님들을 하루저녁사이에 완전히 자기편으

로 만들어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한것은 꽃피는 세느강반에 서있는 한 녀학생을 보고 봄에 대한 단상을 써서 호평을 받았는데 후에 알고보니 그 녀학생이 바로 저였다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대단히 만족해하시었습니다.

<그런걸 연분이라고 하지.>

둘이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저는 지난봄에는 세느강가에 나간적이 한번도 없어요.>라고 항의하니 그는 눈가에 선량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테레자가 세느강에 나갔는가 안나갔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 말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렸다는것이 중요하지. 결과가 좋으면 좋은것이 아니겠소? 나는 테레자에 대한 나의 위치를 숙명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해 조그마한 일화를 꾸며냈는데 하느님이 성을 내셨을가? 하느님은 미소를 지으셨을거요.>

저는 그것을 사랑의 과잉이 낳은 유희로 리해하였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약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혼식이 있는 바로 다음날 낮에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실에 들어가 마주앉아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결강하셨어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틀림없이 그때 저의 얼굴에는 전날 저녁의 흥분과 기쁨이 그대로 어려있었을것입니다.) 청년은 시름겨운 어조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제는 강습소에 더 나울것 같진 못합니다. 프랑스로 떠날 준비가 채 안되어서...>

<준비는 무슨 준비가 더 있겠나요? 청원서는 제가 타자까지 다 쳐놓았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왜 또 다른 준비가 없겠습니까. 무엇보다...>

<무엇이에요?>

<...>

<어서 말씀하세요.>

청년은 피곤한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체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열혈독립단의 전체 성원이 이미 2개월전부터 부두에 나가 상하선작업을 했지요.>

<상하선작업요? 상하선작업은 왜 하나요? 무슨 상하선작업인가요?>

<닥치는대로 하지요.>

<닥치는대로?>

<품삿만 준다면 아무 일이나...>

<품삿?>

행복감으로 도취되어 있던 저는 한참후에야 그것이 돈을 벌었다는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러비를 벌었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가슴이 저러드는것 같은 아픔과 측은함을

의식하였습니다. 대표단이 빠리에 가서 활동하면 러비도 그렇고 적지 않게 자금도 들것입니다.

청년은 말하였습니다.

<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원래 3명이 대표단을 무어서 가려던것을 저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 눈곱이 뜨거워졌으나 무엇이라고 조언을 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모님들에게서 용돈을 타쓰고있던 저의 처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방도가 없었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읽은 청년은 저를 안심시키려는데 말했습니다.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데야 혼자서도 충분하지요. 게다가 선생님도 안내역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문제될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청년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제가 교열을 하고 타자를 친 청원서를 읽어내려갔고 글이 훨씬 좋아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면서 저에게 거듭 사의를 표시하였습니다.

<2월 10일 낮 1시에 상해-마르세유행 려객선이 출항합니다. 저는 그 배를 타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날 떠나주실수 없겠습니까?>

<떠나겠어요.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키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우리 동무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독립기념탑을 세울 때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선생님을 초빙해야 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예요...>

청년이 돌아간 다음 집에 돌아온 저는 약혼자에게 2월 10일에 프랑스로 떠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약혼자가 불쾌한 안색으로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누구요? 나는 다 보았소.>

<강습생이예요.>

<강습생? 강습생이 어떻게 당신이 프랑스로 떠나는 날까지 정해줄수 있는지 흥미있군.>

<당신은 뭐 질투를 하시는게 아니예요?>

저는 깔깔 웃었습니다.

<나는 나 하나 이외의 사람이 특히 청년이 나의 약혼녀와 밀담을 하는것을 유쾌하게 생각할수 없소.>

나는 다시금 소리내어 명랑하게 웃고나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프랑스청년들은 사랑밖에 생각하는것이 없지만 불행한 나라의 청년들은 사랑같은건 안중에 없어요. 그들은 몇천 몇만배 더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고 모대기고있지요.>

<무슨 문젠데 그렇단말이요?>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

고... 그 청년은 조선의 독립운동자예요...>

<조선의 독립운동자?!>

나는 약혼자의 의혹을 말끔히 가셔주기 위하여 청년과 약속한 내용을 대충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자결주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베르사이유강화회담장을 복음이 울려나오는 성지로 여기고있어요!>

약혼자는 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듯 깊은 생각에 잠기는것이였습니다.

2월 10일 낮 1시를 몇분 앞두고 우리 세사람은 부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이겠습니까?!

부두에서는 너무도 뜻밖의, 너무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승리하려고 사다리에 올라서는 순간 프랑스경관이 청년을 멈춰세우고 그러자 어데서 나타났는지 중절모를 깊이 눌러쓰고 추켜세운 코트깃속에 목을 움츠린 두 일본인형사가 급히 좌우쪽에서 다가들며 청년의 팔을 짹 거머잡았습니다. 그들은 뇌였습니다.

<낮익은 친구로군.>

그것은 정말로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였습니다.

청년은 체포되었습니다.

청년이 체포되었다는것을 깨달은 나는 졸도하였고 의식이 들었을 때에는 배가 이미 대양 한가운데를 달리고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야 해요! 꼭 가야 해요!>

아마도 내가 이렇게 헛소리를 쳤던 모양, 현실에 나를 눕히고 물수건을 이마위에 올려놓으며 간호하고있던 약혼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무 속대우지 마요... 그 젊은이는 빠리에 갈 필요가 없소.>

<예?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약혼자는 눈가에 웃음을 띠채 나를 굽어보며 마치 어린 아이를 타이르는듯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청원서는 웃음거리요. 이미 그런 시도를 한 단체들이 많았소. 그러나 누구도 그런 청원서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소. 그 청년은 수십개나 되는 그런 단체의 하나를 대표하고있을뿐인데 그 운명은 같소. 내가 상해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을때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 신문에라도 내달라고 청원서를 보내왔댔소. 우리 신문에 보도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대사관에서 그것을 실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몇배의 보상을 약속해왔소. 결국 실지 않았소.>

나는 불현듯 차거운 얼음물을 얼굴에 들쓰는듯한 느낌이였습니다.

약혼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빠리에 간다 해도 베르사이유궁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할것이고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휴지통에 처박히는 신세를 면치 못하오.

한장의 종이장으로 식민지가 독립국으로 둔갑할 수는 없겠지요.>

<...>

<더우기 일본은 강점국인데 어떻게 강점국의 발톱에서 하소연으로 빠져나올수 있겠소? 사자나 독수리의 발톱에 걸린 토끼가 하소연을 하는것은 이소프의 우화에서나 있을수 있는 일이지.>

세상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소. 약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강자는 없소...>

이때 나는 문득 놀라운 의혹이 번개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그런걸 알고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해주려고 하다가...>

<말해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던 말이에요?>

<생각을 달리했지. 한가지 구상이 떠올랐거든... 어차피 휴지통에 들어가야 할 문건이니 그걸 내가 좀 유효하게 리용할수 있겠다는 구상이 떠올랐단 말이지. 돈벌이가 될수 있겠거든...>

<뭐예요?! 돈벌이? 그럼 당신이 밀고했던 말예요?!

>머저리들만이 기회를 놓치는거요.>

그 순간 나는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텅기듯 일어나며 약혼자의 뺨을 호되게 후려쳤습니다.

<비렬한! 사기군! 뺨혈한! 당신같은 뺨혈한을 밀고...>

약혼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연자약한 자세로 서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후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베르사이유궁전에 모여있는자들도 다 뺨혈한들이고 사기군들이요. 그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은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있소... 그 청년은 아무래도 속아야 하고 절망을 체험해야 할 운명에 있소...>

<물러가요! 썩 사라져요!>

저는 너무도 억이 막히고 하늘땅이 캄캄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으나 이미 뒤집혀진 일을 바로잡을수는 없었습니다.

아,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것입니까!

제가 그 청년을 어느 지경에 몰아넣은것입니까!

그러나 제가 아무리 허바닥을 깨물고 아무리 머리칼을 쥐어뜯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덩굴어도 그 청년을 구원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으로 저는 약혼자에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떻게 청년에게 지은 저의 죄를 씻을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죄를 씻을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써도 그 죄는 씻을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씻을수 없는 죄였습니다. 저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부인은 말을 멈추고 손수건을 꺼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씻었다.

수십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은듯하였다.

나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부인은 한참동안이나 말을 잊지 못하고있다가 내가 담배를 반나마 태웠을 때에야 마음을 다잡은듯 계속하였다.

《...그후 저는 그 청년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희생되었을것입니다. 악독한 일본경찰이 그를 살려두었을리 만무하지요... 그때로부터 저는 속죄받을길 없는 죄인으로 뉘우침속에서 한생을 살아옵니다. 조선의 한 애국자를 제가 죽음에 이 끌었다는 뉘우침과 고뇌속에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청년의 모습이 선히 떠오릅니다. ...밤에 자다가도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하여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러면 자책과 회오와 뉘우침속에서 미칠것 같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제가 <프랑스-조선친선협회>에 남먼저 가입하는것도 그 청년앞에 아니,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죄를 천만분의 하나라도 속죄할수 있을가 하는 념원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고통을 덜어볼수 있을가 하는 념원에서입니다. ...주체조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또 남모르는 고통을 심장에 체험합니다. 저의 심정을 리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저는 있었던 사실을 숨김없이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속죄하는 심정에서입니다...>

부인은 말을 뱉었다.

나는 가슴이 막막해지는것을 의식하면서 묵묵히 담배를 말았다.

잠시후 나는 물었다.

《혹시... 그 청년의 이름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잊겠습니까. 림청산이예요... 눈에 흠이 들어갈 때까지 잊을수 없는 이름이지요.》

×

그뒤 조국에 돌아온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여나 하는 기대를 품고 림청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또는 림청산을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나의 모든 시도는 헛된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몇년후 혁명박물관 문서를 보던 나는 1938년에 독립군에서 인민혁명군으로 의거해온 최윤구부대의 대원명단가운데에 림청산이라는 이름이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림청산?! 과연 그 사람이겠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최윤구부대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명준동지를 찾아갔다.

항일빨찌산참가자 김명준동지는 나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였다.

《림청산? 알구말구. 나와 한중대에 있었고. 상해에 있다가 왔지. 그 사람은 오른쪽팔이 없었소. 왜놈들에게서 탈출할 때 칼에 잘리웠지. 그렇지만 왼쪽손으로도 싸창을 아주 잘 썼소. 명사수였소. 독립군사령 김활석이 장개석을 찾아가겠다고 나섰을 때 그것을 망상이라고 극력 반대한 사람이 바로 최윤구부사령과 림청산이었소.

림청산은 의거를 단행할 때에도 최윤구부사령을 도와 선봉에 갔던 사람ियो.

인민혁명군에 넘어와서도 잘 싸웠지. 룡과송전투에도 참가했고 대마록구와 홍기하전투에도 참가했소. 전투장마다에서 호랑이처럼 용맹을 떨치는 그를 치하하시면서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소.

<동무는 한쪽팔이 없이도 일당백을 하는데 그 팔이 성했다면 일당천을 할수 있었겠소.>

림청산은 고개를 수그리며 말씀올리었소.

<장군님, 저는 두팔이 성했을 때에는 어리석게도 남의 손만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쪽팔이 끊어진 다음에야 제 나라를 찾자면 자기 손을 믿어야 하고 자기 손에 총을 쥐어야 한다는 리치를 깨달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었소.

<그래도 한쪽팔이 남아있을 때 교훈을 찾았으니 늦지 않았소. 많은 사람들이 팔이 이나라 목이 끊어질 때에야 그 교훈을 찾았지. 원수놈들의

총칼에 개짐승처럼 목숨이 끊어지면서야 땅을 치면서 그 교훈을 찾았던말ियो...>

우리는 조국에도 함께 개선했소.

1948년에 림청산은 인민군 련대장의 책임을 지니었고 조국해방전쟁때에는 련단을 지휘했소. 공화국영웅이요.》

《예? 공화국영웅가운데는 림청산이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이름을 바꿨지. 인민혁명군에 넘어온 다음 치욕스러웠던 과거와 영원히 결별하겠다고 이름을 지 바꾸었던말ियो.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되던 날 그는 이제부터 자기의 새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했소. 참생활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지... 희생된것은 락동강전선에 서었소...》

한 투사의 자랑스러운 생애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불행하고 다난했던, 그러면서도 즐기차고 영웅적이었던 우리 민족사의 여러 단면들이 투영되어있는 꼭질많은 생애였다.

나는 림청산의 그후 운명에 대해 빠리의 테레자부인에게 편지로 쓰리라, 부인에게 그가 만났던 첫 조선사람의 후반생에 대해서 알려주는것은 부인의 피로움을 덜어주는 일일뿐아니라 벗들이 우리 민족과 력사에 대해, 우리 인민이 왜 주체사상을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지에 대해 옳바른 리해를 가질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인류의 진정한 향도자

프랑쑤아

그이의 저작을 읽은 사람들
그이의 풍모를 전해들은 사람들
그이를 직접 만나보은 사람들
누구나 그이의 위대성에 감복하나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모두의 진정한 스승이시여라

사랑에 넘치시는 정겨운 미소
금강석같이 빛나시는 자애로운 눈빛
가슴가슴을 울리시는 그이의 말씀
만사람은 가슴속 깊이 새겨안나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모두의 진정한 향도자이시여라

세계도처에선
가실줄 모르는 어둠이 하늘을 덮고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한숨과 절망 속에 방황하여도
그이의 향도의 빛발은
암흑을 밀어내고 가시덤불을 헤쳐주나니

착취와 가난에 시달리는 인민들
해빛도 등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찬란한 향도의 그 빛발에서
삶의 앞길 찾는다네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네

인류의 진정한 향도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계시여
어두운 가시덤불길 더는 없으리
암흑의 지난날은 영영 끝장나리
하기에 인류는 뜨거운 감사를
친애하는 그이께 삼가 드리노라

(필자는 마다가스까르목사임)

이번호에는 평안남도 온천군에 사는 영예군인 호대선동무와 그의 아내 리은하 그리고 평양시 락랑구역에서 사는 영예군인 권명수동무의 작품을 편집한다.

이들의 작품은 아직 문학적으로 채 세련되지는 못하였다.

허나 조국을 위해 한목숨 아끼지 않았던 병사 시절의 심장이 뛰는 한 잠재울수 없는 조국을 위한 복무정신을 시에 담아 자기들의 진정을 소박하게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병사시절의 그 자세로 시문학의 어려운 행군길을 결연히 떠난 이들의 첫걸음은 그것만으로도 크나큰 위훈이 아닐수 없다.

창조와 탐구의 고행길을 서슴없이 헤쳐갈 맹세도 드높이 시문학의 대오에 들어서는 영예군인 신입병사들은 첫 전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안고 래일에는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편집부-

문경고개를 생각하며

호대선

문경고개는 얼마나 높던가
오늘도 결전의 그날을 불러
내 조용히 이 노래 부르며 걷는다
포연자욱한 그날의 령길
마음속으로 밟아오른다

지동치는 총포탄에 몸부림치고
피어린 격전으로 날이 새고 해가 저무는
문경고개는 오르면서 70리
내리면서 70리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문경고개를 잊지 말라고
이 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던
포장동지의 피에 젖은 모습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새겨진 고개

두팔이 다 부서지면
내 이 두어깨로
포장동지의 복수를 담아
쓰러진 전우들의 원한을 재워
멸적의 포화를 들썩은 고개

전승광장으로 잇닿은 승리의 길도
수령님 품에 안기는 영광의 길도
이 고개에 이어져있기에
쓰러지면서도 피흘리면서도 기어이 넘어선
내 마음에 솟아 빛나던 승리의 고개여

아 문경고개를 넘으며
이 나라의 아들딸들
한목숨 아낌없이 바친 위훈에 받들려
오늘의 내 조국은 솟아 빛나고있어라

전우들의 피와 땀이 스민 문경고개
그날에만 있는것 아니더라
통일광장으로 가는 앞길에 솟아
너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세우거니

아 내 비록 침상에 누운 몸이어도
승리자의 자부 안은 장군님 전사
그날에 못다 재운 포탄을 안고
오늘도 나는 문경고개에 서있노라

러발에서

리은하

이른봄 씨앗을 물을 땀
언제면 빠끔히 새싹이 틈가
파릇파릇 첫잎이 돋아났을 땀
언제면 우리 님 밥상에 오를가

나라 위해 한몸 아끼지 않았다고
나라에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그 사랑 집안가득 차고 넘쳐
부러운것 없건만은

이슬에 치마자락 적시며
아침저녁 물주고 거름주며
내 정성 다했더니
이제는 제법
푸른옷 단장하였구나

빨간 무우 봄배추는
님 좋아하는 김치를 담가야지
소담한 부루 향긋한 쪽갓은
참쌀고추장에 받쳐
생채로 올려야지

정갈한 썸물에 정히 씻어
밥상을 차려드린 그날에는
영예군인 우리 님
환한 웃음 피우고
정말 맛나게 잡수실게야

잠간사이 밥 한그릇 다 비우고
오늘 점심 밥그릇은 적게 뒀다고

아이들처럼 투정할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내 마음 너무 기뻐
뜨락의 터밭을 떠날수 없어라

정녕 내 마음 내 정성
청신한 남새에 깃들여
님 건강의 자양분되고 보약되어
대지를 마음껏 활보한다면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뻐하시랴

아, 그 길에
기쁨을 드리는 그 길에 내 삶의 전부가 있고
그 길우에 내 가슴의 충효성도
나날이 붉게 피어나리니

내 가꾸는 뜨락에는
사계절이 찾아와도
님을 위한 내 마음엔
언제나 푸른 계절만 있어라
장군님께 기쁨드릴 푸른 계절만!

꽃을 계속 피우립니다

권명수

밝은 햇빛 비쳐드는
나의 침상에
정히 걸려있는 한복의 기발에
나의 숨결이 이어져있다
《꽃은 계속 피어야 합니다》

환하게 웃음지으시며
나를 정답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대원수님
우렁우렁하게 말씀하시는듯

침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네
친아버지가 되신듯
다심하게 말씀하시는듯

펼 펼 날던 어제날의 병사시절처럼
신심을 잃지 말고 굳세게
김정일 장군님 받들어 끝까지

한길을 가라고 간절히 부탁하시네

그 말씀 가슴에 새길수록
나는 더더욱 쓰러질수 없는 몸
몸은 비록 전갈지 않아도
총대를 쥐었던 그 시절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야 할 몸

조국에 바친것 있다고
오늘에 편히 앉아 사랑에 묻히랴
군기앞에 다진 선서를 지켜
수령님 그 말씀 심장에 새기며
붓대를 총창처럼 비껴안고
어제나 전호가에 사는 이 마음

꽃을 계속 피우립니다
김정일 장군님 우리로
충성의 마음 안고 변함없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립니다

내 목숨 묻고 사는 정

홍현양

그리움

어머니가 보고싶어
이국의 바다가에서
버들숲 강변을 그릴 때면
빨래방치소리 들려와라
잠자리때 따라 뛰놀던 푸른 방천길
고향은 천리에 있어도 꿈속의 길

떠나고싶어 버린 땅이라면
망향의 그림자가 인생길에 따르라
풀피리 불던 가난의 황토여
머나먼곳 비내리는 타향의 거리에 서면
어머니가 비벼주던 조밥에 된장이 사무치더라

나도 몰라라 어이하여 그런지
기러기때 날아가는 하늘가를 우러러
속절없이 슬픔에 잠기는 때
아, 그것은 고향떠난 서글픔
반두질에 해지는줄 모르던 그 시절의 그리움

이 세상 그 어디에 살아도
달디단 그 맛은 주지 않더라
어머니가 떠주던 밥숟가락
내 입에 대신할수 있는 정은

고향아, 너의 장맛에만 있더라
타하지 말아다오
초가집의 락수물소리 못잇는다고
그리움이 백발을 안으면
동구길의 풀 한포기조차
어머니의 치마자락처럼 붙잡고싶은 몸부림

아, 타는 이 목마름
조종의 산에 올라
밀영의 맑은 샘물 마시며
알아 다시 깨우친것 있더라
우등불가에 감돌던 《사향가》소리
조국을 이 가슴에 다시 안겨준것
다시 울 고향을 인생길로 주었더라

못버려
백두산이 솟은
자드락길 고향은 못잊어
그리움은
손잡아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꿈속인듯 버들방천에 나를 세워주더라

들쭉따는 처녀들

산제비도 그 노래에 취해버린듯
아득한 고원우에 나래를 뿜소
들쭉따는 처녀들의 청고운 목소리
8월의 하늘도 맑게 띄웠소

바람은 산들산들 푸른 잎새 흔들고
고운 손은 스리살짝 익은 열매 따들이고
바구니에 넘쳐나는 기쁨의 향기
백두고원 천리에 들쭉풍년 들었소

달려오는 프락프르 어서 오라 부르며
하얀 머리수건 날리는 아릿다운 모습
들쭉따는 처녀들은 백두고원의 꽃
보라색 열매마다 그 마음이 익었소

빨간 책가방 메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주머니마다 들쭉이 불룩 찼소
백두의 류다른 따스한 햇빛이
그늘없는 동심을 무럭무럭 키웠소

아, 끝없는 농장길 들쭉밭을 지나다
나도 그만 취해버렸소
새콤 달달 그 꿀맛
타향살이 시름마저 다 잊었소

바라던 소원 처녀들의 웃음속에
아이들의 눈동자에 별빛으로 빛나
산제비도 춤을 추는 새가 되었소
바람도 흥에 겨워 노래가 되었소

들국화 한송이

들국화 한송이 꺾어
그대에게 준다고
처녀야 머리 숙이지 말렴
눈부리 아득한 벌에 땀을 묻으며
가꾼 이삭이 너의 모습이다

금물결 파도치는 땅에
옷자락 적시는 이슬이 좋아
너와 나 꿈같이 걸은 두렁길
처녀야, 들국화 한송이
가을날이 다 말해주누나

수양버들 늘어선 물결우에
휘영청 달 밝은 그밤이
너와 나의 사랑을 태울수 있었으리
그대에게 주는 들국화 한송이
내가 아는 너의 모습이다

누가 보건말건
들국화는 가을날에 아름답구나
누가 알건말건
그대는 이 땅에 사랑을 묻어

처녀야, 황금이삭이
너의 모습으로 내 가슴에 가득 찼구나

작은 손
작은 가슴으로
천리벌에 금파만경 안아온
너의 모습
그대에게 주는 꽃송이
그 눈빛 사랑하는 내 마음
가을날 이 땅의 들국화이구나

찬서리를 맞으면서도
꽃의 향기로 지지 않는 들국화
눈비를 맞으며 황금의 이삭을 익힌
그대의 마음을 기다려
사랑으로 솟겨온 내 마음

아, 들국화
그대에게 안겨주는
그대를 닮은 꽃
내 마음 내 사랑
진정이 움터 꽃이로구나

대흥단의 감자구이

하얀 봇나무
숲속에 피어나는 한줄기 연기
장작이 튀는 소리
귀한 손님맞이 감자구이다
대흥단의 감자구이

돌가마가 달아올라
말아올리는 구수한 냄새
이교장 이 벌의 인정미가
스며들어 이 가슴치는
대흥단의 민속놀이

어디에 가서
이런 대접 받으랴
부채같은 곰취나물
푸른 잎사귀
정히 싸서 들려주는 감자알
대흥단의 후한 인심

한줄기 흰 연기여
사라지지 말아라
뜨거운 돌가마에 서리여
이내 마음속에 감기여
풀리지 말아라

돈주고도 못사는것
사람의 정일진대
감자구이 손님으로 나를 맞은 이 땅
소박한 그 정속에 이내 목숨 묻고
한생을 천년을 살려나

대흥단이여
무포의 물소리 높은
이 걱정속에
내 피를 끓이며
달리는 살수 없는 조선사람
네 감자의 진미를 버리지 않으리라

단풍의 붉은 의미

가을날 떨어지는 그 순간
푸른 빛을 태우며 열정에 끓는
단풍은 그 무엇을 말하는가
백두의 산발에 물드는 그 선혈의 빛

계곡을 치는 맑은 물결우에
한잎 떨어져도 그 붉은 빛
흰눈우에 묻혀도 지워지지 않는
웨치며 맥박치는 그 피의 붉은 빛

찬서리에 황이 들어
속절없이 지는 그 잎이라면
백두의 단풍은 붉게 타지 않으리
빼앗긴 조국을 찾아 이 산야에 넋이 묻혔다

태어나 걸은 길을 생각해보시라
이름모를 산발 한그루 나무밑에

고이 묻힌 령혼을 잊은적은 없는가
단풍이 말해주는 그 붉은 의미

고향집 토방돌우에
짜리가 익는 프락우에
백의민족의 피눈물이 마르지 않던 시절
백두산만은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아, 단풍은 그 넋을 지녀
떨어지며 백두산의 노을로 물드는
그 의미
바친 사랑 그 참모습이구나

그것 없이 어이 타랴
그것 없이 어이 피와 같으랴
생의 길에 오는 최후
백두의 단풍처럼 뜻을 남기리

청 춘

(총련)권경미

정녕
산더미같이 할 일 많은
우리의 청춘

파연 무엇일가?
우리의 청춘이란

순간을
즐기려만 하는가
본때를
차리려고만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할것이니
우리의 운명은
우리자신이 열어가야 할것이니
그것은
량심이어라, 조국이 부르는 의무여라

보배같은 청춘시절
순간이라도 헛되이 지내면
그만치 늦어지는
조국의 통일

민족의 력사에
부끄러움을 찍지 말게
먼날의 후대들이
오늘의 우리를 욕하지 말게

들끓는 정열을 안자
청춘들이여
주체의 신념을 안자
청년들이여

뜻과 뜻 한데 모아
손과 손 굳게 잡고
철쇄와 같이 하나로 단결하자

맥박과 같이 고동치는 심장으로
불과 같이 뜨거운 열망으로
조국의 승리를 위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앞으로 앞으로 오직 전진뿐
조국이 부르는 웨침이어
우리의 청춘이어!

생활의 수업

-한 중대정치지도원의 수기-

박 윤

군관학교시절에 나를 담당했던 군사예술헌강좌 교원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자기를 완성해나가는 길에 있다고 늘 외우곤하였다. 하긴 그 말이 옳은지도 모른다. 한때 군관학교에서는 새 교재 편찬을 위하여 능력있는 철학강좌의 일부 교원들을 구분대들에 떠나보냈다. 그리하여 졸업반학생들의 미진된 철학강의를 우리 담당교원이 맡게 되었다. 머리가 회색회색한 중좌는 교무과의 이 뜻밖의 《민음》에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았다. 그는 모처럼 차례진 기회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았다. 미래의 군관동지들은 중좌에게서 교재내용을 훨씬 벗어나는 아름다운 지식들을 소유하게 되었단 것이다.

하지만 군관학교 과정안은 결코 정숙한 강의실이나 규정학습과 대렬훈련을 지도하는 교관들의 엄한 구령밑에서 끝난것이 아니다.

내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배치된지도 벌써 한 해가 되어온다.

사실 오늘 아침에 있는 일만 해도 그렇다. 며칠 후에 있게 될 훈련을 앞두고 나는 행군로정에 주민지대가 많이 끼여있는만큼 병사들에게 군민관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었다. 그런데 어제저녁 연대지휘부에 후방물자를 타러 갔던 운수차가 구분대 주둔지역가까이에 있는 마을을 지나면서 뜻밖의 사고를 빚어냈다. 마을을 벗어나던 운수가 동네의 좌상격인 정령감네집 울바자를 넘어뜨린 것이다. 엄중한것은 사고를 저지른 호송군인들이 후에 고쳐준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냥 돌아온 것이었다. 소문은 밤이 짧았던지 오늘 새벽에야 기통수의 입을 통해 중대부에 알려졌다.

중대부에 앉아 인민군신문간지에 실린 시를 가위로 정성껏 잘라내고있던 김삼덕중대장은 대뜸 낮빛이 달라지며 짙은 눈썹이 가운데로 모아졌다.

자기를 은근히 《병사시인》으로 자처하고있는 우리 중대장동무는 감동되기도 잘하고 격하기도 일쑤인 《홍분파》이다. 찍하면 책상을 손으로 두드려대군하는데 새벽마다 부지런히 《특수체육》 훈련을 하는 우리 중대 사관장보다도 한결 손탁이 센편이다.

운행을 책임지고갔던 1소대의 고길남분대장이 걱정이 실린 얼굴로 혈금씨금 달려왔다. 중대장의 책상우에 놓여있는 재털이와 군용전화기가 드르릉 소리내며 흔들렸다.

《제기랄! 이건 대단한 비상사건이요. 동무네 분대때문에 군민관계에 크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요.

단단히 대책을 세워야겠소!》

책상우의 군용전화기가 다시 한번 드르릉소리를 낸다. 마지막말은 나를 보고 하는 소리다. 《화력지원》을 요구하는것이다. 나는 김삼덕이 가위로 오려내고있던 신문지를 당겨놓고 들여다보는척하였다. 몇번 경험한데 의하면 이런 때 정치지도원이 끼여드는게 아니다. 함께 맞장구를 치며 《합동공세》를 들이대면 상대방은 응당한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은근히 뺨이 뒤틀리는 법이다. 이런 경우 정치일군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얼굴표정마저 《로숙하게》 짓고있어야 한다. 추궁을 받은뒤 만나서 하소연도 들어주고 중대장의 격한 말을 부드럽게 모를 죽여 리해시키고 주석도 달아주며 어느 정도 마음을 풀어줄수 있는 《공간》을 나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해야 한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몸을 비빌수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짐짓 실눈을 하고 손으로 신문의 시를 다독이며 유감스럽다는 표정을 짓고있었지만 실은 김삼덕 못지 않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하지만 나는 꼭 참고 귀로는 김삼덕의 점점 더 거칠어가는 목소리와 고르롭지 못한 고길남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으로는 신문간지의 시를 대충 훑고 있다. 나는 원래부터 시에 대한 리해가 깊지 못하다. 군관학교때의 그 담당교원은 시에 대하여 《읽으면 심장을 쿵 치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늘 외웠는데 나는 무슨 시를 읽든지 감동을 별로 받지 못한다. 무슨 덕성기사나 신문사설같은 단숨에 쭉 읽게 되고 감동도 받지만 어떤 시는 거의 끝까지 읽게 되지 않는다. 우리 중대장동무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시들을 따라가며 몰밀어 지독하게 혹평하곤 하지만 웬일인지 눈에 뜨이는 시마다 이렇게 가위로 정성껏 오려내서는 두툼한 앨범에다 붙여놓곤한다. 참 리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중대장이 또 책상을 상대로 《특수체육》훈련을 시작한다. 나는 그의 책상우에 유리를 받쳐놓지 않은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세심한 사관장이 학습일과표며 주사업일력 등을 두툼한 유리밑에 끼워놓곤하였는데 김삼덕의 주먹에는 아무리 강도 높은 남포유리도 견디여내지 못했던 것이다.

《고치겠습니다. 중대장동지.》

고길남은 이윽하여 힘들게 한마디했다. 무엇을 고치겠다는것인지 아리송하다. 결함을 시정하겠다는건지 울바자를 수리하겠다는건지...

나는 머리를 들고 그를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평범한 얼굴이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약간

세모진 작은 눈이며 짧은 인중밑의 옥뿔힌 입귀며 어딘지 모르게 고집스러운 인상을 준다. 전사들은 그를 몹시 따른다. 고길남의 작은 눈이 물기에 젖어 번들거린다.

(왜? 중대장의 비판이 너무 가혹해서? 아니면 자책감인가?…)

나는 아직 걸모양을 보고 사람의 속내를 다 꿰뚫어보지 못한다. 하긴 진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인간이 있을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자 고길남에게 은근히 동정이 가고 나의 마음은 한결 누그러진다. 앉아있기가 답답했다. 나는 군모를 집어 들고 중대부를 나섰다.

병실쪽에서 두 병사가 피우던 담배를 오그린 손바닥에 감추며 슬며시 눈길을 떨군다. 키만 경중하고 군복이 후렁해보이는 전사는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는 고길남분대의 박철남이다. 군무생활에서나 제식훈련에서 늘 뒤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주눅이 들고 말수더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알리는 전사다. 아마 중대장에게 불리워간 분대장이 근심스러워 서성거리고있는 모양이다. 나는 착잡한 생각에 잠겨 그들을 지켜보다가 마을 쪽으로 향한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새 눈녹임이 시작되어 퇴색한 흑색영화처럼 단조롭던 자연이 갑자기 다채롭고 환하고 선명한 색조로 물들고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싶은 신비롭고 조화로운 소음이 대기에 가득찼다. 우리 구분대가 주둔하고있는 뒤등성이 이깁숲에는 회백색버람들이 점차 거무스레하게 형체를 내밀기 시작했고 그아래 깊숙한 골짜기에만 아직도 잔설이 흰곰마냥 웅크리고있는것이 눈에 안겨든다.

울적하던 나의 가슴에 짜릿한 애수와도 같은련련한 감정이 한줄기 바람처럼 언뜻 비껴든다. 구분대전사들에 대한 가지가지 근심들이 이 순간에는 락엽처럼 흩어져버리고 생활과 앞날에 대한 희망과 용기가 북받쳐오른다.

동구길에 들어서자 나는 정령감네 집이 있는 키높은 느티나무쪽을 바라보았다. 허름한 누빈 솜복을 입은 정령감이 집옆에서 느릿느릿 비자루질을 하고있었다. 나는 그쪽을 바라보고 슬금슬금 다가갔다.

《정치지도원 나왔나?》

정령감은 반색을 하며 연기가 문문 나는 두툼한 마라초를 문 이새로 중얼거렸다. 들벌에 탄 주름살투성이의 적동색얼굴에는 진심으로 손을 반기는 농촌사람 특유의 친절성이 배여있다. 나는 뜻하지 않은 친절에 다소 어리둥절하여 정령감의 얼굴과 그리고 길결의 울바자쪽을 바라보았다. 울바자가 없어졌다.

《아니, 아바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울바자가…》

《어, 임자 그때문에 나온게로군, 내레 아예 없애버렸네.》

정령감의 목소리에서는 무엇인가 미루었던 일을 후련히 해제된 사람의 결기가 느껴진다.

《우리 전사들이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신 사죄하구 오늘중으로 잘 고쳐놓으려고 나왔습니다.》

나는 울바자가 서있던 자리를 눈여겨 살피며 먼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정령감은 마라초를 꺼버리고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아닐세. 그 말을 되려 내가 하려던걸세.》

그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이 늙은게 나살이나 건사해가지구 주책머리없이 놀았어. 사실은 전번에 농장 젊은 녀석들이 프락프르를 망탕 몰아 울바자를 못쓰게프린바람에 그놈의 울바자를 내레 길쪽으로 한걸음이나 침범해다 세웠드렸네. 임자네 차들이 이리로 지나갈줄이야 알았나.》

《…?!》

《나두 두 아들과 손주녀석까지 군대에 내보낸 사람이야. 전해오는 말에두 있듯이 나라의 울바자가 든든해야 내 집의 울타리도 있을게 아닌가. 밤새 생각해보니 내레 임자들을 친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던것 같애. 이젠 임자네 차들이 마음놓고 내 집옆을 지나갈수 있을걸세.》

령감은 눈을 가늘게 찌프리고 순박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봄비마냥 따뜻하고 축축한것이 마음속으로 흘러드는것 같았다.

(참,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나라의 울바자… 육친의 정… 과연 나는 우리 전사들을 그런 정으로 대해왔던가…)

별안간 나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한순간 웬일인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는 먼 고향마을의 상징적인 찢레꽃술과 다심한 어머니의 얼굴이 얼핏 떠오른다.

정령감과 헤어진 나는 눈석이물이 즐벅한 동구길을 따라 초소로 되돌아섰다.

동구길옆의 넓지 않은 강덕에 아직 남아있는 부실부실한 얼음판에서 몇명의 아이들이 장난질을 하고있었다. 깊은데는 이미 얼음이 녹아버리고 아이들이 뛰노는곳은 물이 겨우 발목을 잠그는곳이다. 나는 무심히 그쪽을 보며 스적스적 걸었다.

키가 호리호리하고 목이 썩 빠진 처녀가 강기슭에서 물탕칠을 한 소년을 붙잡은후 한참 안타깝게 무엇인가를 타이르고있다가 나를 보더니 얼굴을 껌 돌린다. 하관이 좀 빠른 매끈하고 툭박이 또렷한 얼굴, 별같이 반짝이는 눈, 나의 가슴은 한순간 야릇한 충격으로 섬쩍해진다. 무엇인가 따뜻하고 친근한 감정이 북받쳐오른다.

처녀는 목소리를 푹 그친후 소년의 손목을 잡은채 서둘러 동구길에 올라섰다. 처녀가 걸을 때마다 날씬하고 가는 허리선을 부드럽게 패워주는

플색썰타와 장화를 신은 하반신을 팽팽하게 조인 회색바지가 언뜻언뜻 나의 눈앞을 스친다.

내가 왜 그 처녀를 보고 이처럼 충격을 받았는지 나 자신도 전혀 뜻밖이었다. 차림새를 보면 평범한 농촌처녀가 분명한데 무엇때문일까? 녀성다운 단아하고 산뜻한 미때문일까? 동생을 타이르는 누이의 그 절절한 목소리때문일까? 저런 사심 없고 지어 일면적이기도 한 《만누이》의 심정을 지니고 싶기때문일까?

나는 저런 녀성적인 애투한 새별눈을 좋아한다. 그런 눈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해바라기가 가웃이 얼굴을 내민 먼 산촌의 외할머니네 집이며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이며 떠오르는것이다... 그리고보면 나에게도 그 무슨 《시》적인 감정의 세계가 있는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스스로 얼굴이 달아오르는것을 감축했다.

여보게 친구, 엄격한 총각군관, 딴 생각 말고 초소를 향해 앞으로 갔!

×

군무생활에 들어서서 우리 김삼덕중대장이 싫어하는 세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의지가 나약하여 어려움이 제기되면 주저하거나 비실비실 뒤로 물러서는 군인을 질색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동작이 굼떠 제식훈련이나 체육훈련때 앉은자리에서 멍개는 전사를 싫어하는것이다. 세번째로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저 생활의 하루하루를 상관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저럭 굼떠며 지내는 병사를 미워하는것이다.

그런데 박철남전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소유하고있는 《기준병사》다.

가령 가을철 기동훈련이 있을때면 발바닥이 온통 부르르치고 다리에 쥐까지 일어 끝내 런대위생차신세를 지고야말며 철봉을 잡으면 익살군인 우리 사관장이 흉내내 것처럼 훈련을 《뺨자루》를 매달아 놓은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친구다.

박철남이때문에 농촌출신의 어리무던한 고길남분대장이 속을 몹시 태운다. 방금전만해도 그렇다. 오늘 우리 중도하구분대는 며칠후에 있게 될 군부대적인 강행군을 앞두고 위수구역인 00장과 이팔숲에서 예비훈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점검때도 일없던 박철남이가 오늘 아침식사도 하지 않은채 자리에 누워버린것이다.

대렬점검을 위하여 중대는 병영앞에 정렬하였다. 야전복차림에 위장망까지 쓴 김삼덕의 사내답게 생긴 기름한 얼굴에는 아침부터 이마에 땀자가 새겨져 풀리지 않는다. 허우대가 큰 김삼덕은 남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있는것 같아 자못 위풍이 당당하다. 야전복이지만 바지주름이 칼날같고 목달개는 눈같이 희어 안해의 세심한 손길이 부럽게 느껴온다. 그는 외동딸의 다심한

아버지다.

《요즘 고길남동무네 분대가 말이 아니요. 인민들의 울타리를 마사프리지 않나, 제식훈련에선 매번 뒤꼬리에 서지. 오늘은 또 긴장한 전투임무를 앞두고 환자까지 발생했소. 앓겠으면 하루쯤 정열적으로 앓아버리구 아침에 자리를 툭 털고일어서는게 진짜 병사란 말이요.》

김삼덕의 마지막말은 너무나것 같다.

대오가 이팔숲으로 출발할 때 나는 김삼덕에게로 다가갔다.

《중대장동무, 아무래도 내가 철남이에게 들렀다 가지요.》

김삼덕은 핵 몸을 돌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내가 너무 박하게 말한것 같습니까?》

《전사들의 얼굴에 그늘이 비끼더군요.》

나는 그를 외면한채 대답했다. 어쩐지 그를 마주보기가 서먹서먹했다. 이상한 일이다.

《허허허, 동문 함께 일해보니 원칙성두 있구 정치상학때는 식견두 높아보이는데 생활에 들어가선 외곶이거든. 내 소견엔... 전사들을 그렇게 다루다간 야단입니다. 군대란 군풍을 떠나선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는 이 순간 《시인》들이란 남을 내려다보며 자기 주장을 열렬히 감정을 돋구어 웨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허허, 중대장동무두 참, 내가 제일 바라는건 만누이처럼 되는거지요. 만누이는 손길도 눈길도 부드럽지요.》

나의 말이 좀 새삼스럽게 들렸는지도 모른다. 김삼덕은 피식 웃었다.

《흠, 만누이의 손이 얼마나 매운지 외독자인 성립동무가 알기나 하겠소?》

《중대장동문 학교때 누이의 애를 좀 태운 모양이군요.》

나는 활기를 띠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누이가 자그만치 여섯이나 되니 하루도 속편한 날이 없었지. 학교전엔 좀 애를 먹었소. 지붕에 올라가 설익은 호박두 따던지구 남의 김치독두 깨구... 하지만 난 중학시절부터 말하자면 모범학생이었소. 가령 어떤 친구들이 새잡이를 다닐 때 난 나무에 새둥지를 만들어주는 축에 섞여 있었으니까.》

김삼덕은 웬일인지 속이 누그러진듯 목소리마저 부드러워졌다. 그는 갑자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불쑥 서로 마주보았다. 김삼덕은 희고 가지런한 대단히 녀성적인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나는 그와 헤어져 중대식당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역시 김삼덕은 시인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솔직하고 소박한데가 있거든. 목소리는 높아도 전사들이 저 인간을 따르는것은 알만한 일이

야...)

그에게서는 격분할 때조차 인간적인 향기가 풍기는 것이다. 약간 텁텁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치 들꽃처럼 자연적이고 순결한 것이었다. 평범한 그 대화가 있은 후부터 나는 김삼덕이 나의 마음속으로 더 가까이 접근해왔고 나역시 그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다.

중대병실로 내려가 직일판에게 알아보니 예견한 대로 박철남이가 아침식사를 건넸다는 것이다. 나는 식당으로 향했다.

취사장문을 열자 얼굴이 밥김에 뿌옇게 뜬 혈액색 좋은 사관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식당근무성원에게 한참 또 익살을 부리고 있다. 그의 발치에는 훈련장에 가져갈 《특식》인 짜배기가 한바치 담겨져 있다.

우리 사관장은 온통 익살과 기지로 빚어놓은 친구 같다. 아버지가 영예군인으로 오래동안 구두수리를 해오는 과묵한 사람이라는데 어디서 저런 《웃음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한번은 내가 그의 말주변을 믿고 선동문을 부탁했는데 후에 써온 걸 보니 엉터리였다. 역시 김삼덕의 말처럼 《구두문학》이란 믿을 게 못되었다.

《사관장동무, 철남이가 누웠다는데 날 좀 도와주.》

나는 뜨끈뜨끈한 부뚜막에 엉치를 붙이며 그를 마주보았다.

《마침 잘됐습니다. 기막힌 영양회복제감이 있습니다.》

사관장의 입귀는 또 새로운 익살을 준비하느라고 실룩거린다.

나는 식당근무성원과 함께 지난해 가을에 마련해두었던 잣으로 죽을 쑤어가지고 중대병실로 향했다.

알루미늄식기에 잣죽과 갓김치를 담아들고 병실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다. 지휘관이 전사에게 아량을 안고 가는 걸음이니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운 감이 들고 솔직한 심정으로 잣죽을 받아안은 박철남이 지을 얼굴표정과 몸동작을 그려보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다. 바로 그래서 지휘관노릇하기 힘든 것이고 또 보람도 있는 것이 아닐까?

병실에 들어서자 군용외투를 뒤집어쓰고 침대에 엎디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굵적거리고 있던 박철남이가 황급히 종이장을 모포속에 뭉그러넣었다.

나의 즐거운 기분은 순간에 사라지고말았다. 환자는 역시 《환자》다와야 하는 것이다. 나의 입가에는 아마 쓰거운 미소가 비겼을 것이다. 나는 침대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알루미늄식기가 려결 침대덕에 놓이면서 불쾌한 소리를 냈다.

박철남은 몹시 웅색해하면서 엉겨주춤 일어나 앉았다. 나는 아무 말없이 손을 뻗쳐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전혀 없었다. 산뜻산뜻한 식

은땀만이 손바닥을 적신다. 나는 그 무엇인가 배반당한 듯한 느낌에 가슴이 쓰렸다.

《철남이, 강행군을 한다는 걸 알고있겠지? 중대는 동무가 속히 일어날 걸 믿어. 자, 잣죽을 들라구.》

생각과는 달리 나의 목소리는 결코 부드러워지지만 않았다. 나는 이런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긴말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에 나서니 비인진 진눈까비인진 가려보기 힘든 것이 구질부실 내리기 시작한다. 굳이 말한다면 이해의 첫비가 아닐까? 하늘이 침침하게 흐려 있다. 바람은 전혀 불지 않는다. 나는 중대부에 잠깐 들렀다가 울적한 마음으로 훈련장인 이깎숲으로 향했다.

김삼덕은 메마른 이깎숲속의 공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야전군복의 상의에 목달개를 달고 있었다. 저쪽에서는 어느새 훈련의 실참을 알고 찾아온 사관장의 주위에 병사들이 오구구 모여앉아 짜배기를 먹으며 폭소를 터뜨리고 있다. 우리 사단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는 사관장의 익살이 또 시작된 것이다. 그의 말대로 《입이 마려워》 참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독한 옹고집쟁이였다네. 한번은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다가 외나무다리에서 한 나그네와 정면으로 부딪쳤지. 두사람은 조금도 양보할 기색이 없이 딱 뺨쳤다네.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아나섰던 아버지가 드디어 이 광경을 발견했지. 아버지는 외나무다리로 급히 다가가 아들에게 <애, 손님들이 기다리니 넌 먼저 집에 가거라. 내가 이 녀석과 마주 서있을테다.> 하고는 교대하여 들어섰다네...》

병사들의 웃음소리에 놀란듯 마른 이깎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나는 모닥불결의 돌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삼덕은 나를 흘끔 올려다보더니 그냥 바느질 손을 놀린다. 커다란 《곰》이 인형을 쥐고있는 형국이다.

《무슨 목달개를 벌써 또 갈아답니까?》

나는 모닥불우에 젖은 삭정이를 주어던졌다. 제법 불티가 탁탁 일어나는 게 불다운 맛이 난다. 불앞에 앉으니 주위의 추위가 현실적으로 감수된다. 어쩐지 몸이 으시시하다.

《넵다 조겼드니 군복주제가 말이 아니구만.》

김삼덕은 눈석임물과 흙탕이 게발린 군복상의를 툭툭 털어보이며 히죽이 웃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아 흙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땀 목달개나 산뿔해야 사람이 규모가 있어 보이거든. 전사들이 보고있지 않소.》

《어쨌든 <총각동맹>성원들을 너무 부럽게 하지 마시오.》

나는 모닥불옆에 놓여있는 아기자기한 실토리

갑과 가장자리에 파란 실로 수를 놓은 여벌 목달개를 눈여겨보며 시무룩히 웃었다.

《제기랄, 내 분임이 엄마에게 성립동무에게도 한몫 만들어달라구 부탁했소. 군관이란 전사들앞에 마주선 커다란 거울갈거든.》

《중대장동문… 총각때부터 그렇게 외모가 매끈했소? 말하자면 멋쟁이였는가 말입니다.》

김삼덕은 가지런한 이발로 실을 꿸으며 나를 흘끔 바라보았다. 그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역시 동무처럼 겉보다 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댔소. 허허허, 우리 집 <내무대신>의 통제속에 새 습관이 붙었다고 할수 있지.》

나의 마음도 웬일인지 슬며시 풀려내린다.

김삼덕은 군복을 툭툭 털어 비벼대고는 재빨리 몸에 걸쳤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좀 더 따뜻한 이 모닥불앞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싶어졌다.

《올해는 성립동무도 가정을 꾸려야지. 물론 눈여겨봐둔 처녀가 있을테지?》

화제를 갑자기 바꾸는것은 김삼덕의 독특한 장끼다.

《글쎄말입니다.》

《전우로서 충고하고싶은데 이왕 얻을바엔 안해를 좀 고운 녀자로 데려와야겠소. 겉볼 안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우리 집 사람같은 <몬상>이 아니라 눈이 확 부시는 미인을 찾아보우. 사단적으로 군관가족들이 모이면 이 중대장 어깨가 좀 으쓱해지게 말이요.》

김삼덕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유쾌하게 웃었다. 녀성적인 이가 또 드러난다.

모닥불의 연기가 가는 비발속에 피어올라 이갈 숲속으로 슬슬 퍼진다. 메마른 숲이건만 상긋하고 씩씩한 일향기가 야릇하게 코끝을 간지럽힌다.

한순간 나의 눈앞에는 군관학교시절 나의 심장을 틀어잡았던 한 녀성의 자태가 불쑥 떠오른다.

…처녀는 군관학교 학생들이 아침달리기를 할 시간이 되면 길옆을 따라 총총히 걸어오군하였다.

무용수처럼 늘씬한 몸매는 녀성다운 그 나긋나긋한 걸음걸이로 하여 툭동적이고 희고 가름한 얼굴에는 정다운 새별눈이 늘 애뜻함을 담고 반짝거렸다. 이따금 내가 아침달리기대렬에 끼여 그 녀자를 보는 순간이란 불과 몇초밖에 되지 않았다. 처녀는 우리가 달리는 길옆 인도의 빠스정류소에 내려 몇걸음안팎의 구역도서관으로 들어가버리군하였다. 처녀가 걸을 때마다 수많은 재빛에 가까운 검은 중발머리가 단아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며 부드럽게 흘러내린 연약한 어깨우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그 녀자를 볼 때마다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거리고 온통 주위가 보라빛 들국화피는 환한 들관처럼 느껴지군하였다. 겨울이었다. 피가 몸에서 한동이씩 끓는 군관학교 학생들은 여름운동복바람으로 거리를 달리군하였다.

구리빛 몸종이들에서 허연 김이 피어올라 싸늘한 겨울대기속으로 잦아들었다. 했어도 나는 늘 추위를 느꼈다. 하지만 그 녀자와 마주 치고나면 따뜻한 봄날속으로 들어선것처럼 온몸이 후더워지고 가슴이 영문모르게 젖어오면서 기분이 붕 뜨는것이였다. 무엇인가 낯설기도 하고 정깊기도 한 신비한 새가 도무지 떠날념을 하지 않고 나의 심장속에 푸른 넝쿨의 소우주를 형성하며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공상의 나래를 펼쳤다. 날개가 퍼득일 때마다 나는 아픔을 느꼈다. 아니, 행복을 느꼈다. 끝내 나의 《비밀》은 호실에 공개되고말았다. 트렁크에도 심장에도 열쇠를 채우지 않고 살던 시절이였다. 졸업을 앞둔 어느 휴식일, 드디어 호실친구들로 무어진 《의교사절단》(후에 이마벗어진 군사예술헌장의 담임교원은 그것을 《중대사절단》이라고 고쳐불렀다.) 이 군복을 깨끗이 다려입고 구역도서관으로 떠나갔다. 도저히 용기를 낼수 없었던 나는 《사절단》성원들의 군복상의에 품들여 새 목달개를 밤새 달아준후 호실에 불박혀있기로 결심했다. 들직한 나이와 자못 위풍이 당당한 꾀꾀한 몸자세로 하여 정무원급간부를 련상시키는 구역도서관장은 《사절》들을 정중하게 맞아주었다. 《사절단》성원들은 군민관계를 귀중히 여기는 도서관장으로부터 배단물까지 대접받았다. 하지만 《사절단》은 실망을 안고 도서관문을 나서야 했다. 도서관장은 레절있게 몇명안되는 사서아주머니들까지 다 휘동해가지고나와 그들을 따듯이 바래주었다. 묘령의 그 녀자는 대학통신수업을 올라온 어느 주변농촌의 지방독자였다는것이다. 자체학습을 위해 열람실만 리용하다나니 관찰력이 예민한 도서관장도 꼼꼼한 사서아주머니도 인상적인 《새별눈》만 기억할뿐 이름도 주소도 알지 못했다. 주간대학학생들의 방학때이자 통신학부 학생들의 등교시절인 겨울철도 끝나버려 처녀는 새처럼 제고장으로 날아가버린것이다. …날아간 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이 도지에서 《날아갈》 차례였다. 새는 날아갔지만 나의 가슴속에서는 그 나래의 퍼덕임소리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이보우, 정치지도원동무, 무슨 공상에 잠겨있소? 그래 박철남이는 어떻습니까? 예비훈련에가지 빠졌으니 야단은 야단이요.》

김삼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헉뻘을 조여맸다.

《내보기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든것 같습니다.》

나의 눈앞에는 또다시 눈을 내리깔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던 박철남의 혈골한 얼굴이 확대되어 안겨든다. 지금 생각하니 축은한 감도 든다.

《병사생활의 강철로를 거치기가 그리 험치 않소. 우리들의 전사때를 생각해보우. 내 의견인데 박철남이를 이번 강행군에서 제외시키면 어떨것 같소?》

나는 눈길을 들어 김삼덕의 기름한 얼굴을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그게 진정입니까?》

《제길, 동무하고는 말할 재미가 없구만. 그렇게 꼭 꼬집어야겠소?》

《내 생각엔 어떻게 하나 그를 이번 강행군에 참가시켰으면 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끼고 단련시킵시다. 오늘의 한걸음 후퇴가 래일에는 정말 락오자를 만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삼덕은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됐소. 어디 <만누이>가 끼구 보살펴보우.

척 보문 삼천리라구 서울갈 하를소는 발통부터 다르우.》

저녁녘에 중대로 돌아왔다. 직일관이 나에게 다가와 마을에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진눈까비에 후줄근해진 군복을 대충 끄당겨 정돈한후 중대정문으로 나갔다.

뜻밖에도 정령감이였다.

《아니, 아바이가 어떻게?...》

《정치지도원이 마침 있었구만. 엿저녁에 고길남분대장이 이애보구 사과를 좀 부탁했던 모양일세. 우리 고장에서는 사과가 나지 않지. 철두 철이지만... 이애가 남동생 주려구 전사했던 배 몇알을 가져왔구만.》

정령감의 뒤에 서있던 처녀가 자그마한 보꾸레미를 들고 나섰다. 풀색셰타와 하반신이 뽕뽕한 회색바지, 파란 사출장화가 물기에 젖어 번들거린다. 그윽한 눈이 수줍음과 기쁨을 담고 반짝거린다. 나는 또다시 마음에 짜릿한 감을 느낀다. 우리 두사람의 눈길이 부딪쳤다.

나는 서둘러 눈길을 정령감에게로 돌렸다.

《그런데 고길남분대장이 무슨 일루?...》

《오- 분대의 막내전사 하나가 고뿔에 걸렸다는데 사과를 찾는다는구만. 밤새 열이 나다가 새벽엔 좀 떨어졌다는데 계속 식은 땀만 흘린다는구만... 그런 때야 파일이상 있나. 분대장이 나이는 어려두 속은 깊은 사람이야.》

《철남이가?...》

불시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였다. 그렇다면 내가 전사를 오해했던 말인가? 무엇인가 부끄럽고 면구스러운 감정이 밀려들어 나는 눈길을 들수없다.

두사람은 저녁식사를 하고가라는 나의 청을 굳이 마다하고 급히 되돌아섰다.

나는 배꾸레미를 손에 들고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두사람을 눈으로 바래였다. 정령감의 퇴색한 누비솜옷과 처녀의 파란셰타가 희미한 저녁빛에 대조를 이루어 얼른거린다. 초소길이 끝나는곳에서 처녀가 얼핏 얼굴을 돌렸다. 가무스레하게 별에 탄 귀여운 얼굴에서 그윽한 눈이 또다시 반짝하는 순간 나는 기억에서 무엇인가 방전하는 불꽃같은것을 느꼈다. 혹시 그 녀자가 아닐가? 나의 가슴은 야릇한 흥분으로 설레이고 애

수 비슷한 감정에 휩싸여 온몸이 구름을 탄듯한 기분에 빠져든다.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의 우렁찬 군가소리가 나를 현실로 이끌어온다. 노래소리와 함께 상긋한 이팔숲의 향기와 습습한 눈섬임냄새가 비온뒤의 청신한 대기속으로 흘러든다. 가책의 중압감으로 우울해진 나의 마음속으로 따뜻하고 다정하고 활기롭고 벽찬것이 조용히 스며든다.

나는 처녀가 가져온 배꾸레미를 들고 서둘러 중대병실쪽으로 걸어갔다.

×

행군나팔소리가 나의 심장의 피를 끓게 하며 병영에 울려 퍼진다. 어릴 때부터 군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다니면서 나팔소리에 습관되었던 나다. 나팔소리를 들을 때면 먼저 기름냄새와 타르냄새가 코를 찌르는 새벽의 역두가 생각나고 병사들의 철갑모와 총창이 떠오르곤하였다. 어디론가 떠나자고 재촉하며 작별을 다그치는듯한 나팔소리, 입대할 때는 학교 취주악단의 환송곡으로 이어졌고 병사시절과 군관학교 나날에는 한층 풍부하고 의미깊은 음향으로 전투적량만과 활기속에 나를 떠밀며 긴장시키던 유정한 나팔소리다.

아직은 창박이 어둡다. 병실밖에서는 살얼음을 짓이기는 군화소리들이 빠드득거리고 젊은이들의 열기띤 숨소리와 분대장들의 웨침소리, 장구류들이 부딪치는 금속성이 조화를 이루어 생과 투쟁의 열띤 음악처럼 울린다.

구호판들과 선동연설문을 정리하며 서두르는데 고길남분대장이 숨이 턱에 닿아 방에 들어섰다.

《정치지도원동지, 야단났습시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다. 나는 전투가방을 달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모가 없이 등실하고 눈섭이 연한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한데 엉켜 이전의 침착성을 찾아볼수 없다.

《왜 그러오?》

《우리 분대 박철남동무가 행군훈련에 못참가하겠답니다.》

《뭐라구?...》

나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고길남은 눈을 내리깔았다. 키가 나보다 작은 그와 마주서니 그의 실눈은 거의 감은것처럼 보인다. 나는 박철남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자주 만나 담화도 하고 제식훈련도 도와주며 원심을 썼었다. 요즈음은 그가 남다르게 군무생활을 충실히 한다고 병사들앞에서 칭찬도 해왔다. 그런데?... 나는 본격이 서서히 치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어제 점검때만해도 결심이 돼있었는데... 본인의 말이 중대의 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행군이 끝날 때까지… 차라리 병실근무를 세우는것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 순간 나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졌을것이다. 나는 흥분하거나 격분하면 나의 얼굴색이 창백해진다는것을 알고있다.

나는 아무말없이 전투가방을 둘러멘후 병실쪽으로 향했다. 중대부에서 중대병실까지는 몇걸음 되지 않는다. 병실마당에서는 행군준비를 갖춘 병사들이 큰 명절놀이나 가뭇 법석을 피우고있다.

허나 나의 귀에는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병실로 가는 이 몇걸음속에서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함을 의식하고있었다. 나의 믿음과 인정을 까그리 앓아가버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직도 정치지도원이 애무의 손길로 쓰다듬고 이 분격을, 이 모욕당한것 같은 감정을 눌러야 하는가? 아니, 나는 알수 없었다. 군인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이글어서가 아니라 명령으로서 움직여야 하는것이다. 군풍을 떠난 인정이나 애무는 한갓 속된 감정에 불과하며 중대정치지도원

리성림중위가 아니라 보통인간 리성림의 서툰짜리 동정에 불과한것이다. 선량한 사람은 자기를 선량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병실창가에는 박철남이가 혼자 외로이 서서 봄비는 병실마당을 내다보고있었다. 나를 보자 주춤 돌아섰다. 나와 그의 눈길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나는 전사의 눈빛에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상관의 눈치를 살피는 당황함이 없는것을 느꼈다. 나의 가슴은 진공상태라도 된것처럼 옥죄여들고 답답했다.

나는 자신을 자제하느라고 권걸침대의 턱에 걸터앉았다.

《철남이, 난 진말을 하지 않겠어.》

무슨 말을 하고싶은지 떠오르지도 않았다. 어머니때처럼 말을 고르느라 머리를 쓰고싶지도 않았다.

《강행군을 벗어나보려구 병실근무를 자진했다지.…. 물론 병사의 군화자국이 물우에는 찍히지 않아. 하지만 그 반복되는 걸음속에 일당백병사가 자라나는거야. 철남이도 사내대장부인데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무슨 낯으로 부모들을 대하겠어?》

나는 이 순간 나의 말이 이 전사에게는 한푼의 가치도 없을것으로 느껴졌다. 그러자 마음속이 큰 산이라도 무너져내려왔은것처럼 허전해진다.

나는 피로운 눈길을 돌렸다. 침대우에는 그의 행군배낭과 함께 며칠전에 가져온 그 배 몇알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나의 가슴은 말못할 노여움과 억울함으로, 안타까움으로 터질것만 같다. 만약 앞에 서있는 이 전사가 내동생이라면 가차없이 주먹으로 뺨을 갈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결 속이 후련할것이다.

(이녀석, 말이라도 좀 해보렴. 군복을 입은 전사가 이게 뭐야. 학창시절을 마칠 때 같길은 많

았겠지. 하지만 너는 그 꿈과 리상을 혁명의 군복과 바꾸어입었다. 신성한 조국보위가 그 꿈을 지켜주기때문에, 아버지들의 뒤를 이어 당의 뜻을 자기의 리상과 포부로 삼을줄 알았기때문이야!

그런데 네가 병사생활의 첫걸음부터 이렇게 비틀거리면 어떻게 총대와 함께 헤쳐가야 할 먼 진펄길을 끝까지 가델수 있겠는가?)

《철남이, 속시원히 말이라두 해보라구!》

《…》

박철남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았다.

《철남이두 가슴에 피가 뛰는 젊은인데 자존심이 그리도 없어? 생각해보라구. 그래 힘들다구 싸움마당에서까지 물러서겠는가! 그러다간 나중에 붉은기아래에서까지 물러서게 돼! 왜 대답이 없어?... 좋아, 마음대로 하라구. 나두 이젠 손을 들었다. 군복은 땀때문에 입었는가 말이야! 예익, 그저 내동생이라면…》

나는 핵 돌아서서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마음이 피로운속에서도 이젠 마지막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어린 전사앞에서 자제력을 잃고 큰소리를 쳤으니 이젠 깨진 사발이다. 만들기는 힘들어도 마스기는 쉬운 법이 아닌가.

행군대오는 물이 오르기 시작한 이팔숲을 빠져 나와 묵묵히 산골짜기를 따라 흘러갔다. 아직은 날이 밝지 않아 주위는 어둠속에 잠겨있다.

앞선 대오가 희끄무레한 물웅덩이같은것을 뛰여넘자 뒤따르던 병사들은 저마다 닝큼닝큼 몸을 솟구어 건너편다. 체구가 릉름한 중대사관장이 《물웅덩이》를 들여다보더니 《여, 친구들 이건 물판이 아니라 석회석을 흘린 자릴세.》하는 바람에 폭소가 터져올랐다.

나는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중대장 김삼덕이 곁에서 묵묵히 걸음만 옮겼다.

김삼덕은 나의 심정을 알았는지 전혀 아무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런 그가 더없이 고맙게 느껴졌다.

《정치지도원동무, 왜 그리 우울하우?》

한참만에 그가 묻는 말이다.

《몰라서 문소?》

나는 통명스레 대꾸했다.

《제기랄, 동문 너무 곧은목이야. 외곬이란 말이요. 저 백명두 넘는 끝끝한 <동생>들이 지금 정치지도원동무 얼굴을 쳐다본단 말이요. 아직 어둡다구 마음놓지 마우. 병사들은 어둠속에서도 지휘관의 얼굴표정을 가려볼수 있소.》

《…》

그 많이 옳다. 난 아직 멀었다. 당에서 바라는 참된 정치일군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의 만누이가 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만누이! 그래, 박철남이,

나는 너를 그냥 내버려둘수 없다. 필요하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찾아가 너를 일으켜세울테다.

나는 머리를 짓수긋하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
다.

《요즘 내가 쓴 시를 한수 들어보려우?》

김삼덕이 한수 더 뜨려는 속심을 내비친다.

《흠, 들어보지요.》

어쩐지 나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간다. 박
철남의 일도 그렇게 난감하게만 여겨지는것이 아
니였다.

《비웃진 마우. 그럼 아예 시란걸 지구밖으로
집어던질테요. 제기랄, 허허허... 이런거요. 제목
은 <나의 해병시절>이요.》

《생똥같이 중도하병이 해병시는 뭐요?》

《이런 무식한 친구라구야. 중도하병이지만 이
렇게 <맨발>로 행군도 하지 않소. 시의 주제는
다양한거요... 하긴 난 해병이 될걸 꿈꾸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소. 바다는 내가 늘 동경하는곳
이라고 할가. 하여튼 들어보우...》

망망한 바다에 래를 묻은듯
해병은 파도와 인연을 맺었네
안식을 모르는 해병의 마음
언제나 출항의 항로에 있네
아 엄격한 함장동지 명령만 내리면
나의 함은 살갈이 폭풍을 헤치네

평범한 선실엔 소금내 풍저도
전투적우애가 차고넘치네
사랑을 꿈꾸는 젊은이처럼
해병은 령해에 심장바치네
아 교실이 아니라 세찬 파도우에
해병은 청춘기의 자서전 새기네
...

《흠, 어디선가 들은 소리같소.》

《제기랄, 동무도 내 악습을 닮아가는것 같구만.
시란...》

우리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요? 분대장동무.》

시흥이 깨어진 김삼덕의 목소리는 아쉬움에 젖
어있다. 숨을 몰아쉬는 고길남의 목소리는 떠들
거린다.

《철남동무가 대오에 들어섰습니다!》

(뭐라구?! 철남이가? 그제 사실인가?...)

나는 심장이 툭 멎는것 같은 감을 느꼈다.

《스스로 따라왔소?》

김삼덕의 목소리는 너무도 평범했다.

《예, 배낭을 벗어달라니까 무작정 뺄칩니다. 아
직 몸이 추서지 못했는데...》

고길남의 대답은 걱정과 기쁨과 안도감이 한데
어울려 길게 늘어진다.

《됐소. 자기 위치로 가시오. 절대로 전사들을

어루만져서는 안되겠소. 강행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오.》

《알았습니다!》

고길남의 발자국소리는 뒤로 사라졌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싶었다. 그러나 군복주머니
에서 손을 뺐었다. 행군도중에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것이다.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것이 목구멍을 알알하
게 지저놓는듯싶어 부지중 지침이 나왔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말했다.

《중대장동무, 난 지금 어리둥절한 기분입니다.
어쩐지 박철남이가 제발로 따라섰다는게 통 믿어
지지 않는군요.》

김삼덕이 유심히 나를 건너다보았다. 나도 그
를 마주보았다. 그는 갑자기 눈길을 내리깔더니
나의 등에 손을 얹으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두 원, 그렇게두 모르겠소? 철남이는 동
무의 말에서 진정을 느꼈단 말이요, 진정을!》

《...?!》

《진심은 억지로 만들어낼수 없는거요. 그래서
귀한게지!》

김삼덕은 마감말을 《시인》답게 계속하더니 별
안간 결이 난 사람처럼 뒤로 돌아서서 행군대오
의 끝쪽으로 걸어가버렸다.

희뽐히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총창을 비껴든
열병대오같은 이팔숲이 또다시 행렬의 옆으로 지
나갔다. 병사들의 발걸음소리가 지축을 흔든다.

나는 걸머진 장구류를 추슬러올리며 발걸음을
늦추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모든것이 끝장
이 났다고 포기한 때에 그가 따라서다니... 이게
생활이 나에게 주는 교훈일까? 과연 내가 다소나
마 만누이구실을 했던 말인가? 아니다, 아니야.
난 김삼덕의 말처럼 생활에 들어서서는 아직 못
내기에 불과하다.》

나는 이 순간 가슴이 빠근해지는 기쁨을 맛보
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과연 남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었다. 반대로 생
활이 이렇게 나를 가르치는것이 아닌가.

나는 행군대오의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
았다.

대오는 이팔숲을 지나 강변의 개활지대를 통과
하고있었다.

나의 발걸음이 어째서 떠졌는지 모른다. 아니,
나는 웅졸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서
슴없이 포용할수 있으며 제잘못에 비단보자기를
씩워 구구히 변명하는것을 질색한다. 나에게도
세가지 싫어하는것이 있다. 위선과 아는제하는것
과 자기밖에 모르는 감정이다.

박철남은 내가 곁에 다가서자 눈길을 돌리고
땀배인 얼굴에 손등을 가져갔다. 어쩐지 정색해
보이고 의젓해보이는 얼굴이다.

나는 서슴없이 그의 배낭끈을 잡았다.

《철남이, 배낭을 이리 주오.》

《...》

박철남은 얼핏 나를 마주보더니 주저없이 배낭을 넘겨주었다.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고길남이나 김삼덕에게는 고집을 부릴수 있어도 나에게만은 선뜻 넘겨주리라는 자신심이 은연중 들었던것이다. 그것이 무슨 생활론리에 기초한 감정인지는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날은 완전히 밝아 메마른 속에서도 무엇인가 환희로운것이, 거대한것이 고요히 태동하는, 늦은 겨울과 이른 봄이 말없이 즐기차게 교차하는 분기점과도 같은 계절이 우리의 발아래 누워있었다.

휴식나팔소리가 울렸다.

나는 박철남과 함께 물황철나무옆의 마른 잔디밭우에 앉았다.

《힘들지?》

나는 군복안설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그의 땀뻘이마를 씻어주었다. 얼굴에서 제법 사내다운 열기가 확확 풍긴다.

《힘듭니다. 하지만 견디여 내겠습니다.》

싱긋이 웃는 볼에 귀인성스러운 볼우물이 패인다. 내가 처음 보는것 같은 볼우물이다. 코날이 시큰하다.

《아깐 내가 너무했지?...》

박철남은 나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의 얼굴표정은 곧 굳어졌다.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동공이 유난히 크고 검은 총명한 두눈이 초불처럼 타오르는것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흔히 말한다. 전사의 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 순진하고 진실해보이는 그 무엇이 력력히 비껴있다.

마치 맑은 샘물우에 떠있는 단풍잎처럼 그것은 선명했다.

《아닙니다... 정치지도원동지가 저를 잡에서 깨운것 같습니다. 정치지도원동지가 떠난 다음 저는 고향집에 있는 누이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전... 방직공장에 다니는 누이가 잘못을 저지른 저를 때려도 그 순간은 분했지만 아프진 않았습니다.》

《...?!》

무엇인가 따뜻한것이, 가슴을 후덥게 하는것이 보이지 않고 만질수는 없지만 그것없이 사는 살아갈수 없는것이 나의 심장을 콕 채운다.

힘들게 찾는 기쁨은 그만큼 고귀한것인가 나는 생각에 잠겼다. 얼음이 풀린 강에서 물소리가 속절없이 주절거리며 들려온다.

《누이에게서 편지가 왔었는데 회답을 쓰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모포밑에 감추던 종이장을 생각하자 갑자기 목이 마르는것을 느꼈다. 물통은 비어있었다.

행군도중 다 마셔버린것이다.

박철남이가 자기 배낭을 당겨놓고 부스럭거렸다.

《정치지도원동지, 제게 배가 한알 남아있습니다. 자, 드십시오.》

《아니, 철남이나 들라구. 사과는 아니지만 평대신 닭이라지 않나.》

《전 일없습니다.》

《그럼. 나눠먹지.》

김삼덕이나 사관장처럼 《특수체육》에는 관심이 적지만 나의 손탁에도 배 한알쯤은 잘 쪼개졌다.

겨울을 난 배라 물기가 적으면서도 달콤한게 별맛이다. 나의 목구멍으로는 배물만이 아닌 그 어떤 시원하고 후더운것이 꼭 차서 넘어가고있었다.

김삼덕이 중대기통수와 함께 나에게로 다급히 걸어왔다. 그는 나의 팔소매를 붙잡고 외진곳으로 끌고갔다.

《정치지도원동무, 좋지 않은 일이 생긴것 같소.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소.》

김삼덕의 얼굴은 퍽퍽했다. 그는 나에게 전보용지를 내밀었다. 아버지의 병이 위급하니 급히 고향으로 와주었으면 하는 내용이였다.

한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이 떠오른다. 외독자인 내가 군관학교로 떠나기 몇달전에 아버지는 제대되어 고향으로 갔었다. 전쟁시기의 부상자리가 도지였던것이다. 아, 그 나날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그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다 아물었을까?

《정치지도원동무, 이번 훈련은 나에게 맡기구 어서 떠날 차비를 하우.》

나는 정신을 차리고 김삼덕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중대장동무, 행군출발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마우.》

나는 얼굴빛을 그에게 보이고싶지 않아 강쪽으로 돌아섰다.

《전사들이 알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첫 목적지까지만이라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옛 정치일군인 아버지는 전투임무수행중엔 돌아온 이 아들을 외면할것입니다. 병사는 병사의 아들구실을 해야지요.》

《사람두 원...》

김삼덕은 한팔로 나의 어깨를 부여안고 대오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그와 한몸이 되어 걸음을 옮겼다.

《중대장동무, 난 오늘 처음으로 생활의 기쁨을 맛본것 같습니다. 내 일도 꼬이기만하는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하지만 행복은 불행과 쌍으로 공격해오누만요. 어쨌든 똥고나가봅시다!》

《제기랄, 아무래두 내가 시쓰는걸 집어던져야 할가보우. 진짜 시인이 내곁에서 태어나는것 같소.》

나는 눈물속에 웃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다.

행군나팔소리가 들려온다. 병사들의 철갑모와 총창이 번뜩이고 장구류들이 부딪치는 소음이 강 기슭을 메운다.

대오는 다시 행군길에 올랐다.

×

걸어갈 앞길처럼 두줄기 은빛케도가 내앞에 펼쳐져있다. 불타는 락조가 비낀 역구내에는 마음을 이상하게 격동시키는가 하면 작별의 애수로 가슴을 울렁거리게도 하는 차갈이화차의 둔중한 바퀴소리와 호각소리, 기름냄새, 석탄냄새, 타르냄새가 가볍게 풍기고있다.

급행렬차의 뒤를 따라 완행렬차가 들어섰다. 나는 급행렬차를 타면 안된다. 우리 구분대가 주둔하고있는 고장에는 급행렬차가 서는 일이 없다.

어머니는 세개의 커다란 지함과 트렁크를 열차에 실자 서둘러 역홈으로 내려섰다. 열차가 떠날가봐 겁이 난 모양이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 다시 역홈을 밟았다.

《성림아, 넌 차에 올라가거라. 그러다 떠나면 어쩔려구.》

《일없어요. 어머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얼핏 눈을 내리깔며 나의 군복에 묻은 검볼을 툭툭 털어준다. 무거운 지함을 지고왔더니 군복주제가 말이 아니다. 김삼덕중대장이 내 모양을 보았으면 찌프린 눈살을 찌지 못할것이다.

《어쩐지 널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구나.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되겠니?...》

나는 어머니의 주름잡힌 눈언저리를 바라보았다. 이 몇해사이에 켜 더 늙었다. 이제는 체소한 몸집이며 꽤운 불이며 늙은이리가 완연히 난다. 가슴이 쓰러오고 눈곱이 뜨거워진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이 이토록 아프지는 않을것이다.

나의 눈앞에는 한순간 아버지가 마지막시절에 땀을 쏟아부은 고향의 과수원이 떠오른다. 아버지는 색날은 군용외투를 입고 마감으로 그 언덕을 내려왔었다. 내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뒤였다. 나는 아버지의 송아지친구인 군당책임비서와 함께 과수원을 걸었다.

잎떨어진 애어린 사과나무들이 목상에라도 잠긴

듯 서있다. 그 연약한 나무가지들을 매만지며 나는 멀리 서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은 새처럼 그 하늘을 나는것이다. 한가마밥을 먹은 다정한 전우들의 품으로 날아가고있는것이다. 피로운 마음도, 슬픔도 그들이 곁에 있다면 한결 평온해질것 같았다. 문득 조글조글한 노란 배한알을 내게 내밀던 박철남의 보조개된 얼굴이 떠오른다. 나의 가슴은 몽클해진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행복감만도 아니다. 어쩔수 없는 마음의 현실적인 안정감이다. 나는 군부대 정치일군이었던 아버지의 어깨에 지워져있는 《짐》이었다. 나는 나의 어깨에 새롭게 지워져있는 《짐》들을 생각해본다. 그래, 난 그 《짐》을 지고 뗏뗏이 걸어갈테다. 그 《짐》을 나는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평생 군복을 입고 걸어온 아버지가 넘겨준 《짐》이고 우리 세대가 걸어가야 할 행군로이다. 철남이, 너도 언젠가는 이 《짐》을 지게 될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어머니는 한 아들을 떠나보내고 마음을 놓지 못하지만... 저 구분대에는 끝끝한 백명 두 넘는 동생같은 전사들이 날 기다려요. 나도 전사들걱정때문에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과를 구해달랬니?》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고장은 사과가 안돼요. 전사들은 정치지도원의 고향이 사과고장이라는걸 다 알거든요. 사과를 받아안고 환성을 지를 전사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것만 같아요.》

《그 박철남이가 좋아하겠구나.》

《어머니가 이제 이름까지...》

《네가 하두 외우니까 내뱀 귀에 익었구나. 하긴 네 동생같은이들이라니 이 예미가 몰라서야 되겠니?...》

《어머니, 제마음을 알아주어서 고마와요.》

나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큰손을 감싸쥐었다.

《너석두, 어쩔 그렇게 제 아버지를 판에 박은듯 닮았느냐.》

어머니는 갑자기 두눈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성림아, 이 예미가 우는게 아니다. 기뻐서 그런다. 방금 네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폭 놓이는구나.》

우리 마음을 몽클하게 하며 기적소리가 울린다. 완충기들이 부딪치는 덜커덩소리가 역구내에 메아리친다.

나는 열차의 승강단에 올라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성림아, 어디 처녀라두 봐둔게 있으면 인츰 알려라. 잔치준비는 다 해두었다.》

어머니는 드디어 버르고버르던 말을 뱉아놓고 야말았다.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곱이 축축해지는데

을 느꼈다.

《어머니두 참, 걱정마세요. 래년봄엔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어요. 우리 전사들이 기뻐할거예요.》

완행렬차는 사정없이 앞으로 달려가버린다. 흰 옷입으신 어머니는 역홈에 홀로 서서 뭐라고 부르짖건만 나에게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다. 단 조롭고 소란스러운 차륜소리만이 귀를 멍하게 만들뿐이다.

어머니는 쳐들었던 손을 다시 눈언저리에 가져간다.

이윽고 내가 태어난 고장은 나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고장을 고향이라고 부르기가 사뭇 먼구스러운 때가 많다. 우리 집은 구분대 정치일군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렬차처럼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머니는 친절집이 있는 고향땅에 와서 나를 낳고는 반년후에 다시 철령너머의 군관사택을 찾아갔던것이다. 그러니 고향은 나에게 낯설은 땅이다. 내가 고향사람들을 모르니 더 낯선 고향으로 된것이 아닐까? 여기에는 추억이 깃든 징검다리도, 물장구치며 놀던 시내물도, 잠자리를 쫓아 달려가던 푸른 등판도, 산비둘기를 놀래우던 회색벼랑도 없다. 다정한 송아지친구도, 목이 상큼한 이웃집 소녀도, 풀피리의 노래를 불러주던 녀선생도 없다. 그런 목가적인 추억의 그림자들은 저 전연초소 여기저기의 타버린 빨간 구멍탄재로 울바자를 두르고 처마에는 늘 동태두름이 매달려있는 군관사택마을들에 묻혀있다. 이제 나에게도 가정이 생긴다면 병사의 아들들인 나의 자식들이 또한 그런 운명으로 제 고향에 대한 인상을 못가질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정들은 군관사택마을들이 고향으로 될것이다. 무엇인가 따뜻한 향수가 나와 가슴속을 가득 채운다.

하지만 고향은 고향이다. 어쩔수 없는 운명의 땅, 선조의 무덤이 있고 나의 태가 묻혀있고 아버지의 넋이 살아숨쉬는 땅이다.

나는 차창에 바투 얼굴을 붙이고 어둠이 짙어가는 밖을 내다보았다. 중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이 며칠간 나의 심장을 틀어잡았던 고독과 불안감이 산산히 흩어져버린다.

차창밖이 점차 어두워진다. 대지가 하늘보다 먼저 캄캄해진다. 강철빛하늘도 푸른빛을 잃어가나 드디어 별들이 나타나 어둠을 몰아낸다. 밤하늘은 결코 어둡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새처럼 그 창공을 나는것이다...

...들판의 싱싱한 풀냄새같은 류다른 향기가 풍기는바람에 나는 눈을 떴다. 따뜻하고 밝은 아침빛에 눈시울이 시다. 얼굴을 드니 내 앞좌석에 웬 처녀가 앉아 빙그레 미소를 띠우고 나를 바라본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것을 느꼈다.

《음에 갔다오는 길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책방에도 들릴겸 동생에게 이걸 사다주려구...》

처녀는 깜찍한 곱이 그려져있는 자석식필갑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처녀를 건너다보았다.

아침해빛에 처녀의 별에 탄 매끈하고 단아한 얼굴의 별같은 눈이 반짝거린다. 버들초리같은 날씬하고 탄력있는 몸을 더욱 팽팽하게 하는 파란 세타와 발목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진 회색바지.

이 처녀는 얼핏 보기에 그 구역도서관앞에서 만났던 녀자와 같은데가 조금도 없어보인다. 아니, 얼굴이 별에 타서 그럴까? 하지만 바로 그 녀자였다. 나는 그것을 확신했다. 어쩐지 마음이 뚝 놓였다. 오랜 구면친구를 만난 기분이다.

《동생이 이제 물넉에 나가 놀지 않소?》

《이젠 얼음이 다 풀려버렸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맑고 초량초량했다.

나는 나의 동문서답에 스스로 화가 났다. 하지만 어쩐지 이 처녀앞에서는 스스로없이 속을 터놓고싶은 류다른 친밀감이 생긴다. 내가 이런 다심한 মানুষ이 되고싶은것이 평소의 소망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류다른 《인연》때문일까?

《정치지도원동진 고향에 갔다오는 길이에요?》

《철남전사랑 이야기하더군요...》

완행렬차가 갑자기 기적을 내뿜었다. 나는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정든 초소가 자리잡고있는 이팔숲과 회백색 산봉우리가 보이고 조그마한 간이역이 나타난다. 나의 가슴은 마구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진정한 병사의 고향이 눈앞에 있는것이다. 한적한 역홈에서 서성거리는 몇명의 군인들이 보였다. 나는 허둥지둥 지함들과 트렁크를 들고 승강단쪽으로 걸어나갔다. 처녀가 나의 짐을 곁들여주었다.

렬차가 벗어나버리자 고길남이와 박철남의 뒤를 따라 군복을 가끈히 차려입은 기골이 장대한 김삼덕이 성큼성큼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병사들은 처녀와 함께 짐들을 끌어내렸다.

《제기랄, 이거 무슨 갓 시집오는 새색시처럼 야단스럽소. 난 이 녀성동물 하마트면 동무의 <내무대신>으로 착각할번했소.》

김삼덕이 우선우선하며 지함 하나를 닥쳐 돌려메자 그때에야 말뜻을 해석한 나와 처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고말았다.

우리는 땅늑이가 끝나 풍만하게 부풀어오른 들길을 따라 구분대로 향했다.

앞에서는 지함을 하나씩 든 두 병사와 처녀가 깔깔거리며 가고 그뒤를 나와 김삼덕이 걸었다.

《정치지도원동무가 없으니 난 하루가 천년맛잡이같았소.》

《훈련총화는 있었습니까?》

《박철남이가 군공메달을 받았소. 왜 이자 상등병이 된걸 못봤소? 이젠 그 친구도 <울바자>감이 돼가는것 같소.》

김삼덕은 나와 발걸음을 맞추느라 우정 느릿느릿 걸었다.

나는 뒤를 돌아다보며 밝게 웃는 박철남에게 머리를 끄덕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가에는 어느새 노란 개나리가 눈을 부시게 하고 묵은 풀덤불속에서 파란 제비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좋은 봄입니다.》

나의 말에 김삼덕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턱으로 앞을 가리켰다.

《저건 뭐요?》

《...》

《이젠 정치지도원동무도 것처럼 바라던 만누이가 다 된것 같구만.》

중대병영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나와 우리를 둘러쌌다. 화창하고 선명한 봄이다. 나는 김삼덕과 함께 병영앞의 물오른 은백양나무밑에 나란히 앉았다.

문득 우리 앞으로 사과를 한아름씩 안은 병사들이 다가왔다. 박철남이와 고길남이, 사관장과 전사들이...

《정치지도원동지, 어서 이 사과를 먼저 드십시오. 우린... 다 알고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우린... 기쁨도, 슬픔도 지휘관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박철남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과를 받아든 병사들은 환성을 지르지 않았다. 내가 바라던것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다. 생각깊고 물기에 젖은 눈길들로 땅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서있었다.

김삼덕과 나의 눈길이 한점에서 부딪혔다. 나는 눈길을 돌려버렸다.

나의 가슴은 흥분과 행복감으로 뛴뛰고 눈에는 눈물이 펴 돌았다.

(그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바라시는 중대의 만누이! 그 만누이심정은 기쁠 때나 피로울 때나 변함이 없어야 하는것이구나...)

평범한 생활속에서 얻은 진리가 나의 작은 가슴에 쇠뿔처럼 든든히 박히는것이다.

나는 김삼덕에게 눈물을 보이길 싫어 또 얼굴을 돌렸다.

김삼덕은 군복주머니를 부스럭거리더니 담배를 꺼내물었다.

《사람두 제길, 동무가 그렇게 감정이 세차기때문에 난 정말 시끄는걸 집어던져야 할가보우... 허허, 우리 부모가 내 이름을 지어주면서 세가지 덕을 타고나라고 삼덕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람복은 있는것 같습니다.》

김삼덕의 목소리도 어쩐지 푹 젖어있었다.

나는 그를 마주보았다.

《중대장동무, 전사들이 우리를 리해해주니 온갖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니 난 이 순간처럼 행복한 때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보우, 성립동무. 난 전사들이 우리 지휘관들을 리해해줄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사들을 리해해야 한다고 보우... 이게 바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지휘관들에게서 바라시는 전투도덕적품성이요!》

생활은 이렇게 나에게 걸음걸음 귀중한것을 가르치는것이다. 전사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혁명군대 지휘관에게 있어서 체질화된 진실로 아니, 친혈육의 정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것이 아닐가?

친혈육의 정은 피줄기가 달라질수 없는것처럼 어떤 정황속에서도 변함이 없으리라.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손뽕금반주는 없어도 제법 가슴을 파고드는 은은한 곡조다.

우리는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름다운 이 강산에

태어난 사내라면

총잡고 이 땅을 지킨 시절

영원히 못잊으리

아 병사시절 피끓는 시절에

눈비를 다 맞으며 조국의 귀중함 배웠네

편지를 안한다고

동무야 노여워말아

그대 집 창가에 불뵈으면

초소는 금성철벽

...

언젠가 김삼덕의 사업수첩에서 얼핏 본 구절들이다. 이젠 《해병》시가 아니라 진짜 《보병》의 노래다. 지난해 가을 인민군문예창작실의 중견작곡가가 중대에 와서 며칠 묵어가더니 드디어 곡을 단 모양이다.

나는 물을 먹어 파란 햇일이 피기 시작한 아름드리 은백양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부풀어오른 가지들사이로 해빛이 밝게 비치며 눈이 시울다.

산새들이 즐겁게 우짖으며 나무가지들을 가볍게 흔든다.

중대직일병의 오전상학시간을 알리는 구령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그래, 이젠 일어나야지, 엄격한 총각군관!

랑만과 사랑과 위훈이 깃든 생활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있는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새 정치상학을 집행해야 한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김 속

어머님처럼
저도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엿한 내 모습 보여드리고싶어
여기 섰습니다
어머님앞에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뜨거웁에 젖어 조용히 부르니
오각별 빛나는 군모밑에
밝은 웃음 지으시며
내 군복깃도 살뜰히 여며주시는듯

봄이 오고 다시 가도
언제나 풀빛 군복만 즐겨입으신
어머님
기쁘고 슬프던 그 모든것을
이 군복속에 다 간직하신
아 어머님

아직도 그 옷걸이에는
처창즈의 피어린 그 나날에
동지들의 끼니를 마련하신
그 산나물냄새
대사하언덕에 흐르던
포연도 스며있어

아직도 그 옷걸이에는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따뜻이 안아주신 그 온기도
수령님 젖은 행전 품에 안아 말리우신
그 뜨거웁도 배여있어
불타는 이 마음입니다

백두의 빙설광야 다 헤치시며
군복가슴에

어머님 안고오신
조선의 봄
그 봄날속에 이 딸도 자라
오늘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내 총잡고 걸어갈 혁명의 길
그 길에 땀에 젖고 찬비에 젖어도
어머님 사랑으로
나를 감싸줄 이 군복
때가 오면 불길속을 헤쳐도
어머님 사랑으로
나의 갑옷이 될 이 군복을

정녕 이 군복이
나의 숨결
나의 맥박도
어머님의 심장에 이어주거니
오늘은 나도 갑니다
어머님 군복입고 심장을 불태우신
백두의 그 낮과 밤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 받드는 길을
백두의 행군길처럼 나도 갑니다

믿으십시오 어머님!
그 어떤 값진 옷이 있다 해도
더없이 소중한 이 군복과
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모시는 길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용맹스러운
조국의 병사로 서있고싶어
저도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님처럼

우리의 봄이다!

최희숙

5월이다! 봄이다!

봄빛이 완전히 무르녹아 산과 들에, 거리와 마을에 온통 꽃의 세계가 펼쳐진 이 5월에 나는 지금 새삼스러이 봄에 대한 생각을 하고있다.

새싹이 파릇이 움터나는 초봄이나 꽃망울이 뽕뽕이 얼굴을 내여미는 4월에 봄향기에 취했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것이다.

그런데 지금이야 화창한 봄날에 익숙된 사람들이 봄날에 살면서도 봄의 진미를 쉽게 잊게 되는 5월이 아닌가.

정말이지 나도 이 5월을 두고 봄에 대한 그렇듯 절절한 심경에 빠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나는 5월의 첫 휴일을 아이들과 약속한대로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보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춤추듯 오르내리는 분수, 아이들의 아이를 생동하게 형상한 조각작품들, 백화만발한 꽃밭, 보트놀이로 흥성이는 호수...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푸른 표적을 밟느라니 어린애처럼 마음이 즐거워지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엄마! 저것봐! 말! 진짜 말갈애.》

《정말 그렇구나. 우리 혁이 말태워줄가?》

나는 어린 아들이가 가리킨 돌로 만든 말우에 아들을 닮은 안아 올라앉았다.

아들애는 좋아라 배허벅을 차며 《쩌쩌.》 하고 제법 말몰아가는 시늉을 냈다.

나란히 서있는 뒤말에 팔애를 마저 올려놓으려고 돌아서니 팔애는 역시 팔애여서 꽃밭속에 얼굴을 묻고 향기를 맡고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놀음을 방해하고싶지 않아 한쪽 구석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책을 펴들고 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나는 누군가 나의 머리에 무엇인가 얹어놓는것을 감촉하고 머리를 들었다. 팔애였다. 그애는 활짝 핀 진달래꽃송이 하나를 내 머리에 열성껏 꽃고있었다.

《이젠 다 놀았냐?》

나는 팔애에게 머리를 맡긴채 물었다.

《아니요. 어머니! 우리 이젠 보트를 타자요.》

팔애는 또 새로운 놀음을 생각해낸것이였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두?》

나는 점심시간을 가리키고있는 시계를 팔애에

게 내보였다.

《그래두... 난 보트를 타고싶어!》

나는 하는수없이 아이들에게 이끌려 호수가로 향했다.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낸 아이들은 좋아라 들까불며 뽕박질을 했다.

《난 봄이 좋아. 그냥그냥 봄이면 좋겠어!》

《나두! 날씨두 따뜻하구 거리두 꽃단장하구 또 보트도 타구 유희놀이도 하구! 그래서 좋아!》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나도 속으로는 애들의 말을 동감하고있었다.

역시 나에게도 봄이 좋은것이다. 봄은 겨울이면 기다려지고 지나면 아쉬워지는 좋은 계절이다.

꽃, 봄옷, 들놀이, 봄노래...

얼마나 정답고 친근한 생활들이 우리를 찾아 달려오는 계절인가.

정말 노상 봄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문득 한 시인이 이 봄에 대한 시에 《발목이 시도록》 걷고싶다고 썼던 생각이 났다.

(참 좋은 시구야. 발목이 시도록 걷고싶은 생각도 이 봄엔 생겨나니까.)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웃음짓던 나에게 는 불현듯 그 시가 지금의 나처럼 행복속에 봄길을 걸으며 쓴 시가 아니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분명 시인은 그때 울고있었다. 울분속에 가슴 답답한 설음을 안고 시인은 봄을 적었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그는 왜 다리를 절며 가리마같은 논길을 따라 울며 헤매야 했던가.

그때도 5월의 그 봄이 있었고 봄이 불러온 아름다운 경치도 있었으련만...

넓은 벌에서 속삭이는 바람결, 우짖는 종다리, 잘 자란 보리밭과 찰랑이는 도랑물, 깎치며 나는 나비와 제비...

하건만 그때 우리 인민에게는 봄맛은 부드러운 흙은 발목이 시도록 밟아볼 대지가 없었다. 손에 호미를 쥐고 좋은 팟조차 흘릴 제땅이 없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와 권리, 땅과 봄마저 빼앗겼던 우리 인민.

그래서 시인은 봄을 노래하며 울었다.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네

땅도 남의 땅, 봄도 남의 봄으로 되어버렸던 그때 조선사람치고 그 누가 봄이 와 즐겁고 봄이 가 아쉬웠으랴.

그런데 오늘에는...

봄에 대한 나의 생각은 깊어가는데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듯 백화원의 높은 나무에 매여달릴 확장기에서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5월 5일,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1936년 5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다.

방송원은 그다음에도 《조국광복회》에 대한 긴 해설을 하고있었지만 나는 다음말을 가려들을수 없었다. 그저 가슴 뜨거움에 젖어 《조국광복회》라는 말을 곱씹어 외웠을뿐이다.

나의 마음은 나라를 빼앗기고 봄마저 빼앗긴 우리 인민에게 진정한 인민의 새봄을 주시려고 항일의 눈길 만리 불길 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리고있었다.

벌써 10대의 그 시절부터 기어이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실 큰 뜻을 품으시고 광복성업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

설새없이 달려드는 적들과 싸우면서 수백리길을 걸어야 하는 그 어려운 길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어떤 위대한 구상이 무르익고있었던가.

전투의 실참이나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바위돌과 나무그루를 책상삼아 한자두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일제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와 혁명군대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8시간 노동제, 남녀평등권, 의무적인 면비교육...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그날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조국광복의 렬명을 안은 위대한 강령이였다.

감격도 새로운 1936년 5월 5일 력사적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되던 그날에 우리 인민은 벌써 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광복의 아침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진정한 인민의 봄날을!

그래서 뜻깊은 그날 우리 인민은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1936년 5월 백두산북쪽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조선혁명의 보다 창창한 새날은 이렇게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를 헤치시며 도란에 빠진 우리 인민을 구원해주시고 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시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완전히 실현된 꿈같은 새봄, 인민의 새봄을 불러오시였다.

봄이 와도 봄을 즐길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좋은 땅을 흘리였다.

땅은 제땅으로 되고 봄도 우리의 봄으로 되였다.

그렇다! 우리의 봄이다.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다함없을 우리의 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인민의 봄은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인민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어제날 나라잃은 백성의 눈물에 젖었던 봄노래는 먼 옛시로 돼버리고 오늘에 태어나는 봄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로 온 세상에 울려간다.

우리의 봄! 우리의 행복한 봄노래! 어이 변함이 있으랴.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을 걸음걸음 일격에 요정내시며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주신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이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가꿔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여 우리의 봄은 영원무궁하리라.

지금은 5월이다! 화창한 봄이다! 영원한 우리의 사회주의봄이다!

《엄마! 빨리!》

호수가에 다달은 나의 두 자식이 꽃처럼 밝게 웃으며 나를 향해 어서 오라 손짓하고있다. 마치 봄이 어디 가버리기라도 할가보아 걱정스러운듯 발까지 동동 구르고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조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을 마음속으로 타이르고있었다.

《애들아! 걱정 말아! 우리의 봄은 가지 않는다! 절대로 가지 않는다!》

탑은 무엇을 전하는가

-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을 찾아서 -

최성진

평양지하철도 《건국역》 앞을 지나 광복거리방향으로 한키로미터정도 가느라면 팔팔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건너기전에 형제산구역 하당동쪽으로 갈라져들어가는 길이 있다. 보통강기슭을 따라 난 이길로 조금 올라가면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서있는 사적지구역에 이른다.

5월의 훈풍이 불어오는 좋은 봄날이었다.

나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생각깊은 길이었다. 새 조국 건설의 장엄한 노래가 울리던 사연깊은 역사의 고장을 찾아간다는 의식때문이었다.

뜻깊은 역사의 자욱이 새겨진 길은 키높이 자라온 가로수속에 묻혀있다.

잘 포장된 길우로는 자동차들이 이따금씩 지나가고 행인들이 드문히 보일뿐이었다.

나는 《사적지구역》이라고 쓴 자그마한 표말이 서있는곳에 이르러 사무실부터 찾았다. 거기서 마침 강사동무를 만났다. 나이 오십이 조금 넘어보이는 강사 김조미는 오래전에 귀국하는 남편을 따라 온 일본인 녀성인데 우리 말을 무척 부드럽고 상냥하게 했다.

나는 찾아온 취지를 말하고 강사동무를 따라 곧장 기념탑이 있는 봉화산 중턱쪽으로 향했다.

푸른 송림을 배경으로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기념탑이 보였다.

사적지안은 정갈하게 꾸려져있었다. 길 좌우권의 넓은 공지는 연록색잔단을 펼쳐놓은듯 일매진 잔디밭인데 그 한가운데 진달래며 두봉화, 장미가 무더기 무더기 자랐다. 햇빛에 눈부신 포장길을 걸으면서 강사동무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보통강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난당하는 민족의 설움과 불행을 가슴아프게 새겨안으시던곳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린 시절 3. 1운동때와 창덕학교시절에 보통강변을 지나다니시면서 《토성광》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수없이 목격하시였었다.

보통강주변에는 《토성광》외에도 지난날 가난과 피눈물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이름들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산다고 하여 《적굴동》, 빈민들만 모여사는 동네라고 하여 《빈민굴》, 《거랑촌》... 그나마도 비가 오면 물란리에 가난한 살림마저 잃고 생목숨들을 빼앗기곤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해방되자 제일 먼

저 이고장 사람들이 쓰고있던 재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영원히 수해를 모르게 해주시라고 보통강기슭을 찾으시여 수도건설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였고 이 땅에 자연개조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나오셨던 그날은 해방된 그해의 12월 26일이였다.

그이께서는 보통강기슭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들과 움막집들, 오몰더미들을 가슴아픈 눈길로 바라보시며 함께 온 수원들에게 이고장은 예로부터 비가 조금만 와도 물에 잠기곤하여 사람못살고장으로 버림받아왔는데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개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거랑촌》, 《빈민굴》, 《적굴동》으로 불리여온 이 고장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잡관목이 엉키고 웅덩이들이 널려있는 길아닌 길을 헤치며 봉화산 중턱에 오르시여 지금의 서평양일대와 만수교 주변을 가리키시며 저기가 바로 물바다가 되군했는데 평양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보통강개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때 함께 갔던 김책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어떻게 이고장을 잘 아시는가고 물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자신께서는 어렸을 때 이고장을 자주 다녀와서 잘 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산에서 싸울 때 국내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여겨 보통별사람들을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국내공작원들을 파견하실 때마다 이곳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먼저 알아보게 하셨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고장 인민들의 불행을 그리도 잊지 못하시여 나라가 해방된 오늘 그토록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몸소 여기로 나오셨다고 생각하니 수원들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해방된 당시 우리 나라의 형편은 대단히 어려웠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고 갓 해방을 맞은 우리에게서는 공사를 맡아 할만한 인재도 자금도 자재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것처럼 어려운속에서도 새조국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의 양양된 기세와 그들의 힘을 믿으시고 보통강의 물줄기를 돌리는 대규모의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다시금 보통강기슭에 나오시여 설계도면을 보아주시고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공사를 하루빨리 끝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통하여 수도건설의 첫 봉화를 지피시고 온 나라에 새 조국건설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시려는 위대한 구상을 안고계시였다.

하기에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전체 평양시민들을 공사애로 부르는 격문을 발표하고 동원령을 내리였으며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1946년 5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장에 나오시였다.

보통벌은 삽과 곡괭이를 든 건설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발들이 힘차게 나뭇기고 프랑카드들이 도처에 나뭇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격려사를 하신 다음 연단을 내리시는 걸음으로 공사장한복판으로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거기서 착공의 첫 삽을 뜨시였다.

그이께서 쓰신 첫 삽! 그것은 실로 새 조국 건설과 이 땅에 자연개조의 새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력사의 첫 시작이였다.

그때로부터 여기 보통강기슭은 산악같이 일떠선 건설자들의 열의로 끓어번지였고 건국의 길에 나선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사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쓰신 첫 삽이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건국의 불씨를 심어준것이였다.

여기 보통강기슭은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와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잊지 못할 고장으로 되고있다.

바위를 까내고 산을 헐어내며 물줄기를 돌려야 하는 어려운 전투의 나날 존경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아드님과 함께 매일과 같이 여기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오시여 몸소 질통으로 흙을 져나르시며 건설자들의 일손을 고무해주시였다.

바로 그 나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그마한 삽을 드시고 어머님의 질통에 흙도 담아주시고 휴식시간이면 건설자들을 위해 노래도 불러주시였다. 언제나 인민들과 자그마한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허물없이 굵은 일도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그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이 미치고 조국의 룡성변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남기신 그 거룩한 자욱이 비껴여 보통강개수공사는 시작한지 두달도 채 못되는 단 55일동안에 끝났다. 오랜 세월 재난의 강으로만 불리워오던 보통강엔 새 물길이 열리고 만년홍수에도 끄떡없을 제방이 생겨났다.

그해 7월 21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보통강

개수공사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공경축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력사적민주과업을 실현함에 있어 민주수도인 평양시민 여러분은 가장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보통강개수공사의 승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적과업실행의 승리를 말하는것이며 또한 그 기초가 튼튼하여진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사를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평양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게 되었을뿐만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건국을 위한 생산을 다그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조국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실로 보통강개수공사의 완공은 주체의 요구대로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첫 승리였다.

나는 강사동무의 이야기에 흥분되어 기념탑앞에 이르렀다.

우리 인민은 보통강개수공사 착공 2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여기 봉화산에 기념탑을 세우고 보통강혁명사적지를 정중히 꾸리였다.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은 탑과 받침돌, 배경돌, 사적비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깊은 뜻을 담고있다. 한단한단 쌓아올린 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대자연개조의 첫 봉화를 상징하는것이였다.

사적비에는 보통강에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기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78년 6월 20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완공된 이 기념탑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기념탑과 사적비를 잘 세웠다고 만족해하시면서 평양시건설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보통강개수공사때의 그런 신심과 기백을 가지고 일해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며 앞으로 보통벌에 새로운 거리들을 더 일떠세우고 계속하여 만경대까지 수도건설을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벌써 스무해가 넘는 세월이 지나갔다. 우리 평양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하에 얼마나 몰라보게 변모하였는가.

나는 평양시건설의 력사를 새삼스럽게 더듬어 보며 멀리 수도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 바라보니 위대한 건설의 년대들을 상징하는 수도의 거리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저 멀리 락원거리며 비파거리, 천리마거리… 4.25문화회관이며 **김일성** 종합대학, 대성산유원지며 층층 솟아오른 살림집들…

서쪽을 바라보면 만경대쪽으로 뻗어간 광복거리의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안겨온다.

어찌 그뿐이라. 여기저기로 짙은 뻗어간 거리들과 초고층살림집들이

해방전에 오막살이와 오물장들만 널려있던 보통강기슭에 교예극장이며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솟아나고 아름다운 유원지들이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의 《적굴동》이라 부르던곳을 《락원동》이라고 고쳐지어주시고 지난날 병마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오늘의 행복을 노래하며 병없이 오래 살라고 다리이름도 《만수교》라고 지어주시었다.

오, 평양이여. 위대한 주체시대를 맞이하여 너는 얼마나 몰라보게 발전변모했는가. 이제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놀라운 비약을 할 것인가!

강사동무도 감격에 넘쳐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여 우리 평양은 가까운 앞날에 더욱 현대적이고 문명한 도시로 개화만발할 것이라고.

나는 뜨거운 생각에 잠겨 봉화산을 내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삽을 몸소 뜨신곳을 직접 밟아보고싶었다.

나는 그리로 가는데중 봉화산아래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유화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곳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착공식장에 나오시여 연설하신곳이었다. 유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팔소매를 걷어올리신 차림으로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의 첫 삽을 뜨시는 역사적인 장면을 형상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하신 모습을 우러러보노라니 그날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여기 강반을 뒤덮은 사람들의 물결, 바람에 날리는 오색기들, 힘있는 구호들, 우렁찬 건설의 노래들...

...

파자 쌍자 우리의 애국제방을

세우자 키우자 우리의 민주국가를

건설의 그날에 불리웠다는 《애국제방가》의 한 구절이다. 노래는 온 강반에 울려 퍼지고 애국의 만년제방은 뻗어갔으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삽을 뜨신곳은 거기서 한기로 못미친곳에 있었다. 지금은 력사의 그 자욱을 후세들에게 길이 알리는 표식비가 서있다.

보통강과 서포천이 합쳐지는 이곳은 당시 공사 전구간에서 가장 중요한곳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걸어오시여 첫 삽을 뜨시여 보통강개수공사의 착공을 선포하시였고 한나절이 다 가도록 건설자들과 함께 일손을 잡으신것이였다. 그리고 휴식참에는 노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도 같이하시고 교향이 어딘인가고, 해방전에 어떻게

살았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주시였다.

그때 평양이 교향이라는 한 건설자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은 오랜 력사를 가진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 평양을 언제나 그리워했다고 감회깊이 회고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건설자들에게 공사를 장마철전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에 고무되어 건설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다.

그때로부터 어언 반세기가 지나갔다.

나는 흘러간 력사의 자취를 더듬으며 락원의 보통강반에 서있는것이다. 움막집들과 오물더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날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유유히 흐르는 보통강반이 그날의 이야기를 속삭여 전하는듯했다.

저기 팔팔다리우로는 버스들과 승용차들, 궤도전차들이 경쾌하게 달려가고 푸른 물우에는 행복의 거리가 비끼었다. 물우에 비친 초고층살림집들은 마치도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듯했다.

활짝 잎새를 펼친 공원수들이 유보도에 좋은 그늘을 던지고있었다. 거기서는 산책을 나온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낚시군들로 붐비였다. 마침 날도 일요일이었다.

나는 강변에 나앉아 낚시줄을 드리우고있는 한 로인에게 눈길이 미치였다. 머리가 반백을 넘었고 풍채가 좋은 건강한 로인이였다. 행복해보이는 저 로인이 혹시 장마비에 불어난 보통강의 란리에 가족도 집도 다 떠내려보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쓰셨던 옛 《토성량》의 주인이나 아닌지? 그러나 강반의 꽃말속을 거니는 저 젊은이들은 보통강의 력사를 다는 모를것이다.

바로 지나간 그 력사를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은 전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하신 여러 교시들에서도 보통강개수공사시기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한 우리 인민은 그러한 정신으로 서해갑문을 건설하였고 2천리 물길공사도 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때의 그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그날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백두에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야 할 오늘의 정세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맨 주먹으로 새 조국을 건설하던 그때의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할 때 우리 식 사회주의는 굳건해지고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

그렇다. 탑은 그것을 전하며 솟아있는것이다.

제주도의 동백꽃

1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크게 공헌한 다음의 애국인사들과 렬사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한다.

리인모, … 김영태, 김선명, …, 고진히… …

나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읽어내려가다가 눈길을 멈추었다. 분명 그 녀자의 이름이 옳은가?

북과 남, 해외에 널리 알려진 이름있는 인사들 속에 조용히 들어앉은듯싶은 한 녀성의 소박한 이름이 나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고진히… 나의 눈앞엔 가름한 얼굴에 아련한 표정을 띤 한 녀성의 모습이 떠오른다. 칠순이가까운 내 나이에 만나고 헤어진 사람을 어떻게 다 꼽으랴만 단 한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이 녀성이 나의 기억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수십여년전… 잊을수 없는 그 시절, 나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 일인가를 미처 깊이 생각못하고 대의원등록마감날까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제주도의 한 녀성대표때문에 속을 태우며 안타까와하고있었다.

래일이면 공화국창건을 선포하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가 열리는데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제주도에서 선거된 여섯명의 대표들가운데서 다섯명의 동지들은 도착했지만 유독 고진히라는 녀성대표 한사람만 도착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에 잔등으로 진땀이 줄줄 흐르는것도 모르고 38경비대초소 전역에 걸쳐 전화를 걸어댔다.

《서기동무, 공연한 수고요.》 하고 나의 옆에 와있던 제주도당위원장 강규찬동무가 굳어진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녀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인정과 국사의 중요한 이 자리와 바꿨소!》

나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준엄한데 놀랐다.

마치 그 녀자에 대해서 사형선고라도 내리듯 무자비하고 서리발이 돌힌 목소리였다. 컴컴한 얼굴에 끓는 쇠물을 부어넣은듯한 두눈은 섬광을 튀기며 창밖너머 멀리 남쪽을 향해있었다.

로련한 지하투쟁의 조직자이며 영웅적인 제주도 4.3봉기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이 사나이는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낼줄 모르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처럼 흥분을

양익선

감추지 못하는것은 그자신이 사형장에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하여 이 회의장에 왔을뿐만아니라 중요하게는 그 녀성한데 남제주지구 선거자명단을 맡겼던것이다.

남조선의 다른 도와 선거구들에서는 선거합들을 봉인한채 산도 넘고 사름치는 강도 건드며 끝내 평양에까지 안고들어와 여기 최고인민회의 준비위원회앞에서 개봉하였다.

그 승엄한 장소에 강규찬도 있었다.

그는 개표되어 번져지는 선거표 한장한장에서 창건되는 공화국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법적담보만이 아니라 이날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친 남녘의 투사들과 인민들의 피라는 념원을 보는듯싶었다. 제주도인 경우 다른데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8월선거가 진행되었다. 제주도는 섬 전지역에 걸쳐 4.3의 혈전을 치르고있었고 새로 군정장관으로 부임해온 브라운대좌관놈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안선에서 4키로메터이상 떨어진곳은 적지》로 인정하고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려 선거 자체가 또 한 형태의 유격전, 지하전이였었다.

그 선거전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얼마였던가. 그렇게 이룩한 승리의 문건, 제주도 사람들의 피와 생명의 문건인 선거자명단을 맡은 대표가 못왔으니 강규찬동무의 심정인들 오죽했으랴.

《좀 더 찾아봅시다. 혹시…》 나는 그를 좀 진정시켜볼양으로 이렇게 말하고 전화통에 달라붙었다. 허나 그는 기다리지 않고 나의 곁을 떠났다.

끝내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못했다. 력사적인 회의가 시작되어 폭풍같은 환호와 만세에 답례를 보내시며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실 때 회의참가자들은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도 몇줄 앞에 놓인 의사등받이에 《제주도》라고 쓴 빈자리가 유표하게 안겨와 가슴한구석을 에이는것 같은 피로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이기에 빈자리가 있다니… 어쩌서 그 녀자만 오지 못했는가. 사사로운 인정과 이 자리를 바꿨다는 강규찬동무의 말속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가?)

나는 펍 후날에야 그 말에 담긴 놀라운 사연을 알게 되었다.…

강규찬은 제주도에서 선거된 다섯명의 동지들

을 한척의 배를 비밀리에 정박시켜놓은 정대라는 어촌으로 떠나보내고 여기 성산지구에 내려왔다가 놈들한테 체포되었다.

일을 끝내고 정대어촌으로 가던 좁은 모래불의 외통길에서 놈들의 해안순찰대와 맞닥들었다. 그는 놈들을 정대의 반대쪽인 구좌리쪽으로 유인해갔다.

논넌 탄알이 그의 대퇴부를 관통했고 어둠속에서 놈들이 이리떼처럼 그에게 덮쳐들었다.

그 이튿날, 놈들은 소나무 한그루가 외로이 서있는 나지막한 둔덕우 사형장에 그를 끌어냈다. 제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이 《거물급》의 항쟁지도자를 사형하는 이 《의식》에 놈들은 각별한 의의를 부여한 모양이었다. 부근 리들과 어촌의 남녀로소는 물론이고 아침일찍 무잡이에 나갔던 해녀들도 물으로 끌어들여 여기로 몰아왔다.

스리퀴다를 타고 군정장관 브라운대좌놈두 나와 있었다.

남대서양군도들에서 일본군토벌에 명성을 떨치던 자기를 것처럼 수세에 몰아넣어 전틀케 하던 이 불가사의한 적수를 그자는 심각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하나 강규찬은 놈들한테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한생을 원쑤들과 싸운 그, 언제나 마음속으로 서리발총창을 버리며 원쑤들한테서 강철빛 눈초리를 순간도 떼지 않은 그였건만 오늘은 그자들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는듯싶었다. 항상 준엄했던 그의 눈은 부드럽고 평온한 빛을 띠고 놈들의 머리너머로 끌려나온 로인들과 아낙네들, 머리칼 흘날리는 해녀들 그리고 더 멀리로는 새초설레는 방목지와 한나산과 푸르른 바다를 향해있었다. 생의 마지막시각을 재촉하는 이 사형장에서 그는 본래의 자기자신인 제주도의 아들로 돌아온것이였다.

그렇다. 그는 굶핍줄 모르는 이 섬사람들의 성미를 타고난 아들로서 고향사람들과 고향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힘자라는것 한셈이다.

한나산과 여러 성지들에 4.3의 봉화를 지펴올렸고 놈들의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고 공화국을 세우는 8월선거를 승리적으로 결속지어 대표들을 평양으로 떠나보냈다. 미구에 자기를 바라보는 저 굶주리고 혈벗은 사람들의 머리위로 멀리 북쪽에서 새로 탄생한 새 세계의 광명한 빛발이 비쳐오리니 다만 지금 바라는것은 그 빛발과 이들의 운명을 이어줄 동지들이 평양에 무사히 가닿기만을 바랄뿐이였다.

(동무들! 나의 뒤편까지 **김일성**장군님 만세! 공화국 만세를 목청껏 불러주오. 동무들이 만세를 부를 때 나는 그 웨침을 심장의 피를 내 사랑하는 제주도의 거친 땅에 뿌리는것으로 대신하겠소!)

지금쯤 추자군도의 쇠머리섬을 에돌아가고있을

동지들을 생각하며 멀리로 향했던 그의 유연한 눈길이 문득 굳어졌다. 무서운 전룡이 그의 온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방금 새초발을 헤치고 한녀인이 사람들속을 비집으며 다가오고있었다.

흠어진 머리칼, 창백한 얼굴과 절망에 가득찬 커다란 눈길...

결코 여기에 나타나서는 안될 안해였다. 강규찬의 얼굴에 어렸던 평온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준엄한 빛을 띤 눈길이 다가오는 안해를 향해 못박혔다.

때마침 그의 눈길이 안해를 붙잡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었다. 흐트러진 머리칼밑의 창백한 얼굴에 눈물을 머금고 정신없이 사람들을 헤집고나오던 안해는 칼날같은 남편의 눈길을 받고 우뚝 멈춰섰다. 남편의 눈길이 그대로 총알이 되어 녀인의 심장에 날아가 박히듯싶었다. 터지려는 오열을 참듯 주먹을 입으로 가져가며 안해는 몸을 떨었다. 허나 강규찬은 그한테 자그마한 동정의 빛도 런던의 눈길도 보낼수 없었다.

(당신은 정신나가지 않았소? 동지들과 함께 가야 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엘 나타났나 말요. 선거자명단은 어떡허구, 엉?!...)

심장이 터질듯한 웨침이 제값을 못찾아 눈에서 피롭게 뿜겨나왔다. 정녕 그것은 무섭고 무자비한 질책이 담긴 눈길이었다. 남편이 한생을 다 바쳐 찾은, 방금전 죽음의 시각에조차 웃음을 지었을수 있었던 전체 삶의 가치, 죽음의 의의를 다름아닌 안해가 허물어버리려는데서 오는 공포와 전룡과 분노의 눈길이었다. 그것이 안해의 눈길에도 그대로 전달된 모양이었다. 소리없는 웨침을 들은 모양이었다. 안해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눈길은 아직 절망에 사로잡혀 남편의 모습을 더듬고있었지만 몸은 천천히 뒤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강규찬은 안해가 사라진 새초발쪽을 바라보며 묶이운 팔을 들어 흥건히 젖어난 이마를 훔치였다. 풀대의 흔들림이 방목지멀리까지 이어지다가 푸르름속에 잦아들어서야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브라운놈이 손을 내저었다. 놈들이 서둘기 시작했다. 절걱절걱 격발기소리가 울렸다.

강규찬은 머리를 들었다. 멀리 잔잔하던 바다 위에 흰 물갈기가 일기 시작하고 갈매기들이 불안스레 울어였다. 그쪽의 넓은 초원이 설레며 그우를 방목하던 말들이 갈기와 꼬리털을 흘날리며 대가리를 하늘로 쳐들고 코투레질을 하였다.

강규찬의 두눈에서는 그 어떤 랑만적인 빛이 번쩍하고 뿜겨나왔다. 그는 빙긋 웃더니 묶이운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뒤이어 날카롭고 긴 휘파람소리가 군중들의 머리위에 드리웠던 답답하고

긴장했던 침묵을 깨며 멀리로 울려갔다. 그것은 초원의 남아들이 말뚝을 부르는 소리였다. 파도 사납고 바람새 거칠은 이 섬의 남아들이 애달고 구성진 해녀들의 휘파람소리에 화답하는 자유분방하고 통쾌한 이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의 가슴은 느닷없이 뛰논다. 초원의 말들도 례외가 아니었다.

갑자기 저 멀리 새초밭에 널려있던 말뚝들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말울음소리, 발구름소리가 울리고 우리를 머금은 구름떼처럼 이쪽으로 밀려왔다.

놈들은 당황해났다. 조금만 있으면 말들의 사나운 발통에 짓이겨질것이다. 사형장은 삽시에 수라장이 되었다.

강규찬은 고개를 제치고 통쾌하게 웃으며 또다시 휘파람을 불어댔다. 순간 총성이 고막을 울렸다. 그가 우뚝 굳어지며 가슴을 펴는데 갑자기 장벽처럼 나타난 청년이 그의 어깨에 얹어졌던 손을 축 늘어뜨리며 천천히 미끄러져내리는 것이 아닌가. 잔등에 총탄을 받은 청년은 눈도 못감은 채 그를 바라보며 쓰러졌다. 강규찬이 그를 부축하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또 누군가의 거울진 손이 그의 팔을 틀어쥐었다.

《팔을 인주, 어서!》 수염발이 성성한 로인이 장도칼로 그의 포승줄을 끊고있었다.

《령감님,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누가 당신더러 여기에 장한듯이 버티고있으라 했수? 어서 말을 잡아타구 여길...》

로인도 미처 말을 못하고 잔등에 총탄을 받았다. 안간힘을 모아 마지막 바오라기를 끌어던지고는 맥없이 장도칼을 떨어뜨렸다.

《평양에 가거들랑... 장군님께... 우리의 소원을...》

강규찬은 로인을 안았다. 뜨거운 피가 그의 손을 적시었다. 《어서!...》 로인은 마지막힘을 모아 독촉하였다.

강규찬은 누군가 자기앞에 멈춰세운 말의 갈기를 움켜잡고 어떻게 말잔등에 올랐는지, 쏘아대는 놈들의 총탄을 피해 말의 배밑에 붙어 다른 말뚝들속에 섞여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 로인이 숨결을 헐떡이며 떠들떠들 마지막으로 한 부탁의 말이 충격이 되고 힘이 되어 사형장을 탈출했다는 기억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던 눈길들엔 결코 슬픔과 동정의 빛만이 어려있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로인의 말처럼 거기에 《장한듯 버티고서있을》 자기가 아님을 깨우쳐주는 원망과 노여움조차 섞인 눈길들이었다. 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 그의 삶을 지켜주고 평양으로 떠밀어보냈던것이다. 사형장을 탈출하여 떠난 걸음이 평양에 닿는 기간 그는 자기 생명의 의의를 그때처럼 느껴본적이 없었다. 안해 역시

그레주기를 바랬다. 허나 응당 먼저 와있어야 할 안해는 와있지 않았다...

첫날 오전회의가 끝날무렵 허헌의장선생이 나를 회의주석단 뒤로 불러냈다.

《서기선생, (그는 나이가 많건 적건 공식적인 대화에선 언제나 <선생>이라고 불렀다.) 지금 당장 38선 00초소에 나가보오. 그곳 동무들이 방금 전에 웬 낯모를 녀성이 38선을 넘어섰다는 전화를 보내왔소. 너무나 지쳐 풀아떨어졌기때문에 신분도 확인해볼수 없다는거요. 동무가 나가보고 그 녀성이 우리 대표면 빨리 여기로 모셔오오.》 《그렇습니까?》 나는 너무 기뻐 뿜기듯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녀자라면 대수랴. 뺨을 치고 찬물을 끼얹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여 평양에 데려오리라. ... 그 빈자리를 한시바삐 메꾸는것이 나의 일념이었다.

승용차를 질풍같이 몰아 경비대에 대니 부대장이 직접 보초소까지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그 녀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물었다.

《조용하오...》

부대장은 나를 만류하며 보초소앞 느티나무그늘밑에 있는 군용승용차를 가리켰다. 나는 다가가 차창 뒤좌석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첫순간 놀랐다.

백지처럼 해쓱하고 가름한 얼굴에 찢어진 저고리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어깨며 너털너털해진 치마기슭에 드리운 가느다란 다리... 나의 눈엔 스물안팎의 처녀의 시신이 누워있는것처럼 보였다.

성급한속에서도 동정과 런던의 정이 내 가슴을 몽클하게 했다.

하지만 깨워야 했다. 이 녀자가 분명 우리가 기다리는 대표동지라면 한시바삐 평양에 데려가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혀야 했다. 저런 모양으로 회의에 참가시킬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부대장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우리도 평양에 데려가려고 저렇게 승용차안에 안아다 눕혔소. 새처럼 몸이 가볍더군...》

《빨리 확인해보고 데려가야겠습니다. 지금 하는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하고 나는 독촉했다.

《나도 아오. 우리 동무들 모두의 녀이 평양에 가있소. 하지만 방금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소.》

《장군님께서요?》 나는 놀래여 물었다.

《그렇소. 장군님께서는 그 녀성을 당장 떠나보내지 말고 한잠 푹 재우라고 하셨소.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38선을 넘자마자 풀아떨어졌겠는가. 제집에 들어선 심정에 허탈과 안정이 함께 왔겠는데 깨우면 안된다고 하셨소. 그러시고는 그 녀자의 품에 제주도인민들의 선거문건이 있겠

는데 신분을 확인해보느라 그걸 다칠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르셨소. 그걸 다치면 놀랄거라고 혹시 경악을 하여 잘못될수도 있다고 넘려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차결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어쩌면 장군님께서 옆에서 직접 보는 나보다도 이 녀성의 신상에 대해서 더 잘 알고계실가. 정말 녀인의 여위고 창백한 얼굴과 살췌이 내려감인 눈시울엔 포근한 안정감이, 약간 벌려진 입술엔 안정뒤에 온 허탈과 피로감이 가득 실려있었다. 그리고 가냘픈 두손은 가슴우에 서로 얹힌듯이 포개져있었다.

나는 저절로 눈곱이 찌릿하니 젖어남을 느꼈다. 초조하게 드놀던 가슴은 훈훈해지고 이 낮모를 제주도녀인이 무척 가깝고 다정한 손우누이처럼 여겨졌다. 어쩌지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녀인을 알고계셨고 딸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계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이의 넓은 품과 다함없는 심려는 언제나 우리 동지들사이의 이해와 우의를 두텁게 해주는 사랑의 터전으로 되어주었던것이다.

차결을 떠나 나는 녀인이 넘어온 38선 저쪽을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았다. 조국의 남단의 맨 끝, 파도 사납고 바람 사나운 섬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그 녀자가 겪었을 가지가지 경난과 고통을 그려보았다. 나는 그때에야 이 연약하고 가냘픈 녀인이 가장 멀고 험한길,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고비들을 이겨내야 하는 눈물겨운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

2

녀인은 허둥지둥 파도치는 새초발을 헤쳐가고 있었다. 초원의 광풍은 녀인의 머리카락을 형클어뜨리고 얇은 옷자락을 마구 쥐어뜯었다. 돌부리에 채우고 후박나무, 북가시나무같은데 걸채이면서도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다. 동지들이 떠나간 부두는 북쪽에 있건만 그는 남쪽으로 가고있었다. 어떤 잠재의식이 그를 북으로가 아니라 남제주군인 모슬포쪽으로 떠밀었는지는 알수 없다.

오직 그의 눈앞에는 지금 갈가리 찢긴 옷자락을 날리며 둔덕우에 서있던 남편의 모습으로 꼭 차있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어보!...》 하고 절절한 소리를 지르며 통곡이라도 하고싶은 심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폭 꺼져내려앉아 죽고라도싶은 심정이었던건만 그때마다 그는 꺼실꺼실한 바위나 나무를 부둥켜안고 머리와 불을 비비고는 또 다시 걸어갔다. 진히는 자기가 어쩌서 남편한테 달려가 품에 안겨 그와 운명을 같이하지 않고 자기 혼자 어디로 가고있는지 몰랐다. 차라리 그의 곁에서 함께 충구를 마주하는것이 지금보다 더 편하고 행복할듯이 여겨졌다. 남편의 성격이 중

오와 투쟁의 신념으로 굳어진 무쇠덩이같다면 진히는 오직 가슴속에 사랑만을 지니고 사는 녀자였다.

남편 없이는 이 세상, 이 섬, 자기의 생명도 그 존재를 믿지 못할 사랑의 의존심만으로 살아갈 녀자였다. 사형장에 정신없이 달려간것도 이 녀자로서는 달리는 어찌할수 없는 웅당한 행동이었다.

그때 남편의 눈길에 그를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정신없이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 그대로 남편의 품에 안기고말았을것이다.

그는 지금 모슬포 앞바다 멀리에 있는 마라도라는 섬으로 가고있다.

조선의 남단 끝이라면 제주도치고도 웅당 마라도로 봐야 할것이다. 8월선거를 결속짓는 회의에서 남편은 남제주군 선거위원장을 호되게 꾸짖었다.

《한사람이 체포되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선거를 했어야지. 거긴 조선땅이 아니란 말요?!

이번 일이 조국의 끝 마지막 한사람까지 빠짐없이 참가해야 할 국사중의 대국사라는걸 동문 모른단 말요!》

자그마한 등대섬엔 인가가 다섯채, 선거자가 일곱명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리로는 피뢰 9련대의 주둔구역인 모슬포를 거쳐서 가야 하는만큼 이만저만 위험한데가 아니었다. 그때 남편의 흥분을 이해하면서도 선거위원장도 자기 할바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진히였다. 떠날 날이 박두했던 관계로 남편자신도 다른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로정을 토의하는 안건으로 넘어갔었다.

진히는 자기가 어쩌서 이 길을 택했는지 알수 없었다. 사형장에서 남편의 눈길에 비졌던 질책의 뜻을 깨달은때문만은 아니었다. 나타나지 말아야 할 자기가 거기에 나타나 남편의 마음을 불안스럽게 뒤흔들어놓았다는 뼈아픈 반성감때문만도 아니었다. 오직 그리로 가야 한다는 한마음, 자기의 녀도 육체도 남편곁에 두고싶어하는 그 녀자의 녀의 본능인 사랑의 힘이 여기서도 작용하고있었다.

그는 모슬포지구를 밤중에 통과할수 있었다.

새벽 무잠이에 나가는 해너들속에 섞여 바다에 나가 그중 한 배군의 힘을 빌어 마라도에 도착한것은 그날밤 자정이 가까와올무렵이었다.

쪽배를 섬에 붙여놓고 물에 오른 그는 너무나 캄캄한 밤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전혀 분간할수 없었다. 광막한 어둠속에서 음산한 파도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희미한 하늘과 바다 물을 배경으로 인가들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며 걸었다.

때마침 바다기슭에 외파로 떨어져있는 새초이영에 돌덩이들을 듬성듬성 얹은 집 한채를 발견했다.

바다바람에 돌각답이 덜그럭거리고 새초이영이 설렁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진히는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난듯싶는데 대답을 않는걸 보니 바깥동정을 살피는 모양이다.

《여보세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급한 일루 본섬에서 왔어요.》 진히는 애원하다싶이 속삭였다.

허나 이 흥흥한 세월, 자정이 가까운 이밤에 무슨 일로 본섬을 건너온담? 형클어진 머리칼, 해쓷한 얼굴, 찢기고 너덜너덜해진 자기의 옷주제가 안주인한테 어떤 인상을 주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아마 《해너귀신》이 아니면 미친 녀자가 돌아다니다고 생각할것이다. 투박한 문은 꼭 달아맨 성문처럼 열릴줄 몰랐다.

진히는 그 집을 휘청휘청 걸어나왔다. 다른 집을 찾아야 했다. 빨리 서둘러야 날이 밝기전에 여기 일을 끝내고 쪽배로 돌아가 다시 무잠이군들속에 섞여들수 있다.

섬 도래굽이에서 초롱불을 들고 마중오는 웬 로인과 맞다들지 않았더라면 진히는 절망에 싸여 모래불에 주저앉고말았을것이다.

《이밤중에 뉘기슈?》 로인은 걸음을 멈추고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절 도와주세요. 본섬에서 왔어요.》

로인은 초롱불로 진히를 비쳐보았다.

《아낙네의 행색을 보군 대낮에두 십리를 도망치겠소. 무슨 일루 한밤중에... 어쨌든 날 따라오우.》

로인이 안내해간곳은 진히가 맞다들렸던 바로 그 첫집이었다.

《보래 있냐? 어서 문을 열어.》

스물네댓살의 젊은 녀인이 문을 열다말고 진히를 보고 흠칫 떨었다.

《어서 문을 열어!》 로인이 꽤 소리쳤다.

《내 막내딸네 집이라우. 세상이 흥흥한데다 사내들 없이 혼자 있자니 겁이 잔뜩 난거라우. 애야, 뭘 멍청히 보고만 서있는거냐! 세수물도 떠오구 뭘 먹을게 있으면 쟁겨라.》

그제야 안주인이 서둘렀다. 진히가 얼굴을 씻고 나았자 젊은 녀인은 미안한듯 웃으며 말했다.

《아이참, 이렇게 아릿다운분인걸... 아까 문틈으로 내다볼 땐 꼭 해너귀신인줄만 알았어요. 요즘 불꺼진 등대꼭대기에 해너귀신이 깃들었다단 소문도 돌구요, 그러찮으면 어떻게 문을 걸구있겠나요?...》

거지와 도적이 없고 인심이 후한곳으로서 대문이 없는것을 이 섬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겼다.

그 아름다운 빛이 로인의 말에도 녀인의 변명속에도 비껴있었다.

《암말처럼 자갈을 물릴라. 무슨 쓸데없는 수작질이냐!》 다 큰 딸을 철부지 꾸짖듯하고는 진히한테 돌아앉아 로인은 물었다.

《무슨 사연때문에 이밤중에?...》

《선거때문이에요, 아버지님...》

로인은 믿어지지 않는듯 진히의 얼굴을 물끄러미 건네다보았다.

《얼마전에 장정 한분이 여길 오려다 붙들려 학살당했던 말은 들었네만...》

《누구든 한사람은 꼭 와야 하잖나요. 여긴 뭐 조선땅이 아닌가요? 우리 공화국을 세우는 일인데 한사람도 빠져선 안되지요...》

진히는 지금 자기가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고있음을 의식하자 목소리가 떨리고 눈곱에 뜨거운것이 핑 돌았다.

《아낙네가?... 옮겨니!》 로인은 진히의 손을 덥석 잡고 후들후들 떨었다.

《고맙네!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려 임자가 와주어 진정 고맙네!》

그는 올방자들이를 했던 몸을 벌벌 일으켰다.

《임잔 눈을 좀 불이라구. 난 이밤중으루 이 기쁜 소식을 알리구 래일아침 사람들을 여기 모이도록 하지.》

《수고스럽지만 지금 모이게 해주세요. 전 이밤중으로 떠나야 해요.》

로인은 진히를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볼뿐 만류하지 않았다.

《이 늙은게 내인앞에 무릎꿇고 큰절을 하고싶은 심정이우. 아낙네의 고생에 비기면 수고랄게 있수. 그럼 내 결시(빨리라는 뜻) 갔다오리다.》

진히는 처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쫓아 이 섬에 온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생각했다. 남편이 이 일을 알았으면 얼마나 기뻐했으랴. 말이 적고 무뚝뚝하면서도 이럴 때면 그윽한 눈길로 오래도록 쳐다보군하던 눈길, 그 눈길앞에 몸둘바몰라하던 진히였다. 진히는 그 믿음과 신뢰의 안광에 싸여있는듯한 침착한 자세로 찾아온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한테서 찬성의 수표와 인장들을 받아낼수 있었다.

《인젠 이 섬에 빠진분이 없겠지요?》 진히는 바래주러 나온 로인한테 물었다.

《한사람이 있긴 한데...》

진히는 걸음을 멈추었다.

로인은 머뭇머뭇하며 웅얼거렸다.

《딸애한테도 말하지 않았네만 내가 보는 등대탑에 숨겨둔 비바리(숙성한 처녀를 가리킴)가 하나있소. 이놈의 세상은 아귀들 판인지... 제주서 군정장관이란놈이 서귀포에 정방폭포구경을 왔다가 그 녀자를 본 모양이요. 그곳 경찰지서장이란놈한테 그 비바리 얘기를 몇번 곱씹고 돌아갔는데 속심이 뭐겠소. 뻔하지. 그 속심을 알아챈 지서장놈이 그애를 잡아다 상전놈한테 바치려구 날치는통에 여기루 도망쳐온게요. 인물 잘난것두 불행이구려. 사실은 그애한테 먹을걸 가져다주려구 그리로 가다가 내인을 만난거라우.》

《아버님, 가시던 걸음에 절 거기로 데려다주세요.》

로인은 초롱불에 비친 진히의 얼굴을 한참동안 들여다보더니 가타부타없이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아!- 북에서 벌어지는 거룩한분들의 거룩한 정사가 임자네들같은 장한 사람들을 낳거니.

내 한평생 이 섬에 살았건만 이밤처럼 장한 걸음 디딘적 없소. 정말 난생 처음 제땅을 걷는 심정이우!》

《올아요. 바로 그걸 위해서 많은분네들이 피를 흘렸구 지금도 너무나 많은 피가 이 땅을 적시고있어요.》

진히는 속삭이듯 이렇게 뇌이며 성큼성큼 내짚는 로인의 뒤를 따랐다.

3

등대실의 좁은 지붕밑 초롱불아래서 선거자명단의 맨 마지막란에 자기이름을 토박토박 적고난 처녀는 그자리에 어푸러져 어깨를 들먹거렸다.

진히는 처녀의 칠혹같은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며 등대밖 멀리 캄캄한 어둠에 잠긴 광막한 공간을 생각깊은 눈길로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처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이 평온과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미칠것만 같던 절망감대신에 그 어떤 굳건한 신심이 생겨나 오히려 지금은 격동에 휩싸여 흐느끼고있는 처녀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고있었다.

《여기까지 온 걸음보다 임자가 인제 가야 할 길이 몇곱절 더 멀은가보이...》

로인이 진히옆에서 등대밖 어둠을 내다보며 생각깊은 목소리로 걱정했다. 그러나 진히는 걱정하지 않았다. 너무나 먼먼 길이였다. 여기 마라도를 떠나면 본섬을 횡단하고 풍랑사나운 해협을 건너 또 그보다 몇곱절 넘는 험한 길이 놓여있건만 걱정하지 않았다. 남편과 동지들이 피를 뿌려 열어주고 선거명부에 적힌 사람들모두의 마음이 떠밀어주고 받들어주고있다는데서 오는 배심때문인가. 여기 울고있는 처녀를 위해서도 자기를 걱정해주고있는 등대지기로인을 위해서도 꼭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진히는 로인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떠나겠어요. 바래주느라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혼자 가야 할 길인걸요 뭐.》

《제가 함께 가겠어요.》 울고있던 처녀가 고개를 쳐들고 진히의 손을 움켜잡았다.

《제가 제주부두까지 언니를 바래드리겠어요.》

진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선화는 안돼. 내 일두 놈들 눈을 피해 가야

하는게지만 선화도 경찰이 눈박히고 찾고있는 몸이 아니냐?》

《전 여기 오기전에 미치광이로 가장하구 어느 정신병원에 들어갈가도 생각했었어요. 제가 미치광이행색을 하고 선거명부를 감추고가는게 한결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러구 제주에서 목포에 건너다니는 배우인이 저의 친척되는분이예요. 배에 오를 땐 거기에 부탁해보자요. 저의 이름자도 적힌 선거명부가 평양에 무사히 가닿길 바래서 하는 말이니 꼭 저의 소청을 들어주세요!》

진히는 선화를 와락 그러안았다. 형용할수 없이 아름다운 처녀의 두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주며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선화의 말이 옳았다. 선화가 옆에 없었더라면 진히는 마라도에서 제주까지는 물론 목포로 가는 배에 오르지조차 못했을것이다. 람루한 옷차림에 머리칼을 풀어헤친 미친 녀자의 고모가 되어 검색소들을 통과하였다. 놈들은 진히의 보짐이며 몸수색은 꺼리낌없이 했지만 감히 미친녀자의 더러운 몸엔 손을 댈념을 안했다.

《시렁뱅이같은년. 어서 가!-》 놈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는 길을 독촉하기도 했다.

선화의 친척되는 배우인은 몹시 무뚝뚝한 중년의 사나이였다. 그는 말없이 선화가 부탁하는 선거자명부가 붙어있는 꾸레미를 고기그물통구리에 넣어 배밑 선실로 날라갔다. 고진히도 배에 올랐다.

《언니!》 선화는 크고 아름다운 눈으로 진히의 모습을 더듬더니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큰집에 가거들랑 존경하는분들께 이 불쌍한 비바리의 간절한 인사두 전해주세요!》

《그래, 그래, 네 말뜻을 알겠다! 꼭 전하마, 전하구말구...》

진히의 두눈엔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는 자기가 가져가는 수천수만의 심장의 혈서와 인장들이 찍힌 선거자명부가 얼마나 많은 운명들이 갈구하는 기쁨과 희망, 준엄한 요구들이 담긴 문건인가를 생각했다. 선화의 모습은 멀어져갔다. 웅자를 드러내고있는 한나산만이 이윽도록 제가 낳은 딸의 모습을 의미깊은 침묵속에 굽어보며 멀리까지 바래주고있었다.

제주도사람들의 수난당한 녀의 고향이요, 생활의 뿌리인 한나산을 바라보는 진히의 얼굴엔 굳세고 엄엄한 빛이 어리었다! 어쨌지 어느때는 장엄하게만 보이던 저 산조차 오늘은 진히한테 고독과 외로움의 침묵속에 무엇인가 애절한 부락을 하는듯싶었다. 그것은 진히의 작은 가슴에 받아안기에 너무나 크고 벅찬것, 이 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우한 운명을 안고 슬픔과 고통으로 시달림만 받던 운명의 피해자로부터 그것을 지키려는 수호자로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하는 무거

운 침묵속의 웨침과 같은것이였다.

돛배는 하차군도를 지날때 놈들의 순찰정에 두 번이나 검색을 당했다. 진히는 그때마다 배주인의 도움으로 검색을 무사히 넘겼다. 제주도관할을 벗어나 배는 목포로 가고있었다. 진히는 머리칼과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주인을 찾았다.

《이 배를 하태도에 대줄수 없겠어요?》

《거긴 왜? 사람이란 그림자도 없는 무인지경인데...》

《전 거기로 가야 해요.》

하태도는 우리 나라 서남단 목포앞바다에 무수히 널려있는 라주군도의 맨 끝섬이다. 일명 소리치는 여울목이라 불리우는 그곳으로는 감히 어느 배군도 키를 돌리지 못하는 돌섬들과 갈대숲, 밀물썰물에 드러났다 잠기군하는 무인지경의 수렁판으로 이루어졌다.

《머칠전에 웬 남정들을 태운 쪽배 한척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행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동지들이구나!) 하고 진히는 기쁘게 생각했다. 머칠전에 거길 갔으면 지금쯤은 1호지점 아지트가 자리잡고있는 후대산에 가닿을수 있다.

《배를 대기 힘들면 그 섬근처에서 잠시 멈춰주세요. 바다물에 뛰어들어서라도 전 그리로 가야 해요.》

배주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 그렇다면 할수 없군. 손님들이 날 잡자고 들테지만 선화년의 체면을 봐서 대줄테니 우선 이결루 요기를 하구 한잠 폭 자우. 하태도까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뒤이어 무엇을 뒤지는지 부시력거리더니 진히의 무릎에 고구마 몇알과 피떡이 담긴 뒤옹박이 철썩하고 떨어졌다.

진히는 놀란 눈으로 찌국거리리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나이의 널직한 잔등을 말없이 바라왔다.

그리고는 피떡을 한개 쥐고 깨물었다.

저녁녘에 돛배는 진히를 무인도에 홀로 떨귀놓고 떠나갔다. 홀로 떨귀놓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멀리 다도해우에 붉게 물들여진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한점 홀로 서있는 너인의 보습을 바라보며 어딜 갈려구 저 섬에 내렸을가? 하고 너인한테 다닥친 그 어떤 불가사의한 운명에 대해서 걱정들은 했지만 누구도 그 사연을 다는 알수 없었다.

4

진히는 천천히 자신만 홀로 남은 주위세계를 둘러보았다. 거뭇거뭇 널려있는 섬들너머로 빨간 석양이 어스름속에서 서서히 꺼져가고있었다.

저녁안개가 피어올랐다. 출발에 앞서 동지들과 함께 이틀동안 지도작업을 한탓에 도해적으로는

어느 섬과 어느 여울목들을 건너야 하는가를 알고있었다. 그때도 지도를 들여다보며 지형과 밀물썰물이 험해서 놈들의 경계는 좀 덜 미칠지언정 자연적인 정황이 몇배 더 험하리라는 생각에 마음들이 무거웠었다. 남동무들이 걱정에서 잠겨있을 때 오히려 걱정을 덜한것은 진히였다. 동지들이 어련히 모든 대책을 강구할것이니 자신은 그들에 의지해서 따라가면 된다는 남동무들에 대한 의존심과 믿음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지들도 없고 배도 없다. 자기 혼자뿐이었다. 그러나가야 한다. 질어가는 노을빛, 어둠, 안개, 음산한 파도소리속에 이렇게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음미하며 서있는것도 무의미한짓이며 시간낭비이다. 그는 걸음을 내디뎠다.

배사공이 그한테 던져주고 권했던 음식과 잠이 얼마나 고마운곳이었던가. 그는 이밤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쳐 걸을수 있었다.

그러나 어둠은 무료함을 참지 못했다. 비겁하고 심술궂은 어둠은 불빛만 보면 전방지촉 달아났다가도 연약하고 외롭게 홀로 떨어진 존재를 보면 대뜸 자기 향락의 대상으로 삼으려든다.

어둠은 히죽이 웃으며 무인지경의 섬을 혼자 걸어가는 가냘픈 너인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끝없는 어둠의 심연속에 음산한 파도소리, 갈대밭의 와슬렁대는 소리만 류달리 크게 들려왔다.

진히는 너무도 갑작스레 눈앞이 캄캄해져 잠시 걸음을 멈추었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걸기 시작했다. 때로는 바위에 무릎을 쫓기도 하고 나무등걸에 걸쳐 넘어지기도 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가뻤다. 무릎에선 피가 흘렀다. 하지만 진히는 품속에 간직한 선거자명부를 바로잡거나 피곤을 조일 때만 잠깐 주춤할뿐이었다.

어둠은 더욱 짙어갔다. 광풍이 그를 후려했다.

제주도바람에 어지간히 단련된 그였건만 무엇인가 떠박지르는듯한 느낌과 함께 그는 낭떠러지를 구를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렵곳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둠은 승리자연한 빛을 띠고 천천히 물러가고있었다. 진히는 가까스로 옷몸을 일으켰다.

썰물이 찌면서 드러난 감탕밭이 새벽빛에 희끄무레 번들거렸다. 그앞은 바다였다.

진히는 자기가 이 섬의 북쪽끝 낭떠러지에서 내리굴렀다는것을 알았다. 때마침 썰물때였다. 이 썰물때 드러난 개바닥을 건느지 않으면 다음 상태도까지 건너가기 곱절 어렵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주저앉았다. 원발 아래회목이 쭈시듯 아팠던것이다. (제발 뼈만 성했으면!...) 그는 피가 죽고 퉁퉁 부어난 발목을 두손으로 움켜잡고 안간힘을 쓰며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감탕밑엔 탄탄한 모래불이 밟혀 들쭉날쭉 바위 투성이인 길없는 섬보다 켜 험한듯싶었다. 때로는 드문드문 널려있는 조개와 섬들이 밟혔다.

제주도에서 한뼘 무잡이로 살아온 진히는 밟히는 조개며 섬류들을 무심히 지나칠수가 없어서 걸으면서도 그것들을 하나둘 주어서 치마자락에 싸들었다. 어느덧 앞이 묵직해져서 걸음을 방해했다. 그것을 그냥 던지기 아까와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깜짝 놀랐다. 자기뒤에 새끼곰 두마리가 따르고있었던것이다. 진히가 걸음을 멈추자 그놈들도 걸음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리며 그 어떤 기대에 어린 눈길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진히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철없는것들이 비릿한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따라온 모양이다.

아직은 좀 낮이 설어서 주저하지만 새끼짐승들이 그러하듯이 진히를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자, 어서 먹어라. 갈길이 바쁘지 않으면 이걸 다 까지 주련만... 안됐구나.) 하고 진히는 치마에 찌던것을 털어놓고 다시 걸었다. 어쩐지 마음이 흥그러워지고 걷기가 한결 험해진듯싶었다. 이 무인지경에서 새끼곰들을 만나 그놈들의 신뢰어린 눈길을 받고보니 저절로 웃음까지 나왔다. 그는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새끼곰들은 분명 진히의 뒤를 따르던 모양이다.

감탕밭에 찍힌 고깃들의 발자국이 곧장 진히뒤를 따르다가 어쩔선지 오른쪽으로 활동처럼 휘어나갔다. 오른쪽 멀찍이 서서 그놈들은 이쪽을 우두커니 바라보고있었다. 왜서인지 그 두놈의 눈엔 알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어려있는것 같았다.

(제 어미를 잃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할수 없다.

나는 한시 급히 가야겠으니...)

이런 생각을 하며 몇걸음 걸던 진히는 갑자기 왼쪽발이 수렁속에 빠져들음을 느꼈다. 그 발을 빼려고 오른쪽에 힘을 주는 순간 오른쪽발마저 무릎까지 빠져들었다.

(수렁판이구나!) 갑자기 온몸이 오싹해지며 공포와 전율이 스쳐지나감과 함께 (저 어린 곰들이 저쪽으로 피해가 앉아서 이쪽을 불안스레 바라본것도 우연한것이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짐승본능의 특유한 감각으로 이 검은 함정을 알고있던 모양이다. 아니면 엄지가 저것들을 데리고 먹이사냥을 나왔다가 이 수렁판에 걸려들어 서서히 빨려들며 울부짖는 모습을 직접 본 체험자일수도 있었다.

진히는 끈덕지게 빨려들어가는 자기의 두다리를 내려다보며 절망에 잠겼다.

격렬한 몸부림도 소리도 칠수 없었다. 자기의 사소한 움직임이 육체를 감탕속에 한치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한다는것을 진히는 알고있다. 새끼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진히의 모습을 보고 자기 어미의 최후의 모습과 단말마적인 울부

짖음이 진히의 가슴을 채웠다.

(나는 죽을수 없다! 나는 꼭 살아서 평양에 가야 한다!)

그는 두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눕혀보았다. 다리를 수직상태로 놔두는것보다 모로 눕히면 인력계수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허나 그 시도는 오히려 한쪽 다리를 허벅까지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이 눈섭에 맺히고 입술에 찻찻하게 젖어들었으나 그것을 흠칠념도 못했다. 어쨌든 몸을 수렁판에 가로 눕혀야 했다.

그는 천천히 힘자라는것 자기 몸을 뒤로 눕히었다. 평편하고 굴곡없는 잔등을 수렁판에 댈 때까지 그는 필사의 힘을 쏟았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서 그의 얼굴을 지졌다. 순간순간이 최대 한으로 긴장한 삶과 죽음의 격투로 몇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축축하고 미끈미끈한 감탕판이 잔등에 닿았다. 그는 몸을 옆으로 틀었다. 한쪽다리가 빠져나왔다. 이어 반대편으로 몸을 굴리며 다른 발도 뽑아냈다. 그리고는 그체로 누워있었다.

가슴이 자유롭게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시었다. 그 눈물속에 유난히 눈부신 해빛, 파아란 하늘이 울려다보였다.

새끼곰들의 울음소리가 켜 멀리서 들려왔다. 신선한 기운이 풍겨오는걸 봐서 밀물때가 시작된것 같았다. 해빛이며 파아란 하늘이며 밀물에 쫓겨가는 새끼곰의 울음소리며를 보고 들으며 진히는 그냥 누운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감탕투성이의 그의 얼굴을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이 부동의 자세에서 삶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이었다. 이 한평방도 못되는 수렁판에서 벌어진 삶과 죽음의 혈투에서 삶의 승리를 이룩한 진히의 모습이였다.

그것은 너무나 처참한 승리였다.

사람들이여! 생각해보라. 이것이 첫 《승리》일진대 하태도 맨끝에서 후대산에 갈 때까지 놓인 수십개의 섬과 수렁판을 이 녀성이 어떻게 갔겠는가를!...

그래도 그는 갔다. 때로는 천신만고 헤엄쳐 가는 여울을 바다물이 다시 떠났던 기슭에 그를 날라다 뺨개친적도 있었다. 몸은 지칠대로 지치고 굶주리고 잠을 못자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졌다. 정신이 혼미해졌다가는 발작적으로 맑아지기도 하고 깜박깜박 졸아떨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갔다. 힘이 부칠 때면 남편이며 등대지기며 선화를 생각했다. 그러면 그들의 부추김을 받은듯 천근만근 무겁던 다리도 옮겨지고 물결을 가르느 팔에도 힘이 생기곤했다. 하지만 뇌수엔 전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가자, 가야 한다. 살아서 가야 한다!)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으로 악을 쓰며 걸을 때도 많았다. 생명은

이 한가지 생각에만 불꽃을 튀겨주기에 힘겨웠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졸음이 물려와 망각속에 걸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령혼과 육체의 련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무엇때문에 걷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다가는 쓰러졌다.

육체가 쓰러지면 이번엔 령혼만이 걷는다. 여러가지 환각과 환상속에 평양거리를 자기가 들어서는것 같기도 하고 회의장의 만세소리도 들리는 듯만싶다. 그러나 이것 역시 움직이지 않는 육체속에 죽어가는 령혼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진히는 이 둘의 련계를 잃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다. 생명의 불꽃, 그 존재는 오직 《간다》는 현실속에 있다. 진히한테는 오직 간다는것만이 살아있다는 존재의식으로 돼버렸다. 살아있다는것은 간다는것, 간다는것은 곧 살아있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가고 또 갔다.

생명이 그한테서 떠나가기를 스스로 바랬던적은 그 몇번이었던가! 섭투성이 바위섬에 기여오르는 갈가리 찢기고, 드러난 살점이 떨어지고 굵혀 피가 랑자한 자기의 모습을 팽담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까딱않은적도 있었다. 여월대로 여원가느다란 팔과 다리에서 한점두점 돌히는 피방울을 아 이때 처마끝에 맺혀 떨어지는 비물을 본 때처럼 태연히 바라보며 처멸 생각도 없었다. 이것은 누데기처럼 돼버린 육체속에서 해방되려는 안일한 지향속에 바라보는 싸늘하고 팽성한 눈길이었다.

아, 이런 순간이야말로 수령관에 빠져 절망에 몸부림칠 때보다 얼마나 더 위험천만한 순간인가.

그때마다 그의 생명을 지켜준것은 가슴에 품고 있는 선거자명부였다. 엮어진 가슴타에 심장파한결 더 가까와진 문건에 대한 감촉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생명의 불꽃을 튀겨주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기여나와 집게발로 자기를 물어뜯는 게들을 쫓아버리고 옷섶을 찢어 상처를 치매고는 바위에 들어붙은 섭조개를 우벼내어 짹짹한 맛이 나는 그것을 입안에 넣었다. 또다시 되돌아온 생명은 그를 부추겨 일떠세워 다른 수많은 고향사람들의 운명을 새로 탄생하는 거창한 생명의 새 세계와 잇는 험난한 이 길로 진히를 한치한치 이끌어가는것이였다.

제1호지점인 후대산 숲구이막에 도착했을 때 동지들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다. 그렇게 그림던 동지들이건만 그는 기다리지 않고 떠난 그들을 조금도 찾하지 않았다. 그들도 자기들이 진 사명이 있어 웅당 떠나야 했다.

숲구이막로인이 하루라도 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진히는 머리를 흔들었다.

캄캄한 밤, 증명을 앓고난 사람처럼 휘청거리는 몸으로 그는 초막을 나섰다. 여름밤의 희미한

광채속에 일망무제 펼쳐진 산발들이 굽어보였다. 허나 그는 걱정하거나 실망에 잠기지 않았다. 이미 그는 어제의 진히가 아니였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눈물 많고 설음 많던 그였건만 운명의 이 길에서 자기 사랑의 감정인 그 슬픔과 눈물을 신념과 의지로 굳히고 성장한 진히였다.

오직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있을뿐이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북녘과 한지맥으로 잇닿은 산발우저멀리 밤하늘에 유난히 맑고 정답게 빛을 뿌리는 북극성이 보였다. 그는 부풀어오르는 기쁨에 넘쳐 그 반짝이는 북극성과 그 둘레를 도는 일곱개의 북두칠성을 하나하나 헤여보며 빙그레 미소까지 지었다....

고진히녀성이 그후에 겪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할수는 없다. 수십여년전 일이지만 지금도 나의 눈앞엔 38선초소 군용차안에 두손을 가슴우에 포개었고 누워있던 파리한 녀인의 모습이 삼삼하다. 그 눈물겨운 모습속에 연약한 녀성이 헤쳐온 간난신고의 흔적이 다 어려있었다.

나는 그다음날에야 고진히녀성을 회의장에 데리고 갈수 있었다. 필수록 조용히 뒤로 들어가 자리에 데려다 앉힐 생각이였는데 어버이장군님께서 맨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창 연설중인 연락을 향해 만류하시더니 몸소 일어서시며 우리를 가리키시였다.

《저기 지금 들어서고있는 조국의 남단 제주도에서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방금 도착한 고진히녀성대표를 열렬히 환영합시다!》

장군님께서 먼저 박수를 치시자 이어 회의장엔 폭풍같은 박수가 터져올랐다. 고진히녀성은 멈춤 서버렸다. 여월대로 여원 얼굴에 더 커져보이는 겁먹은 눈으로 주석단과 자기쪽을 향한 수많은 대표동지들을 둘러보았다. 이 녀인은 지금 자기를 향해 온 나라가 박수를 보내고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위대한 사변이 벌어지고있는 이 대회장의 다른 연고로 인해서 터져오른 박수가 아닌가 생각한 모양이였다.

《장군님께서 박수를 보내주고계십니다. 어서 자리에 가십시오.》 내가 옆에서 조용히 귀띔해주어서야 녀인은 고개를 꼭 숙이고 허둥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를 옆에서 부축했다.

제주도에서 평양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연 단신으로 걸어온 그였건만 이 짧은 거리를 그는 나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폭풍같은 박수속에 그 녀자의 연약한 몸은 떨고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박수와 자애로운 눈길, 대표동지들의 따뜻한 환대에 휩싸여 자기가 겪은 수난과 고통을 강그리 잊고 어린애같은 기쁨과 설음만이 가슴에 꽉 차넘친듯싶었다. 남편이 불타는 눈길로 애무하듯 바라보며

자기의 옆 빈자리를 가리키고 거울진 손으로 자기 손을 짚 쥐어주었을 때야 진히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임을 알았다.

이 순간 그는 자기를 여기까지 바래우고 떠밀어준 고향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고 부탁의 목소리들을 들을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제주항을 멀리할 때 묵묵히 지켜보던 한나산의 침묵의 웨침이 무슨 뜻이었던가를 깨달을수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제주에서 여기까지 헤쳐온 길, 영원한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열백번이라도 헤쳐갈 신념의 환희와 행복감에 못이겨 흑-흑느끼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전채 그는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수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같은 감격과 격동속에 선포되었다. 각이한 경로를 거쳐온 수백명의 대표들속에 우리의 주인공인 강규찬, 고진히 부부들도 손을 들어 정부정강과 법령들을 승인했다. 숲처럼 쳐든 손들속에 유난히 가늘고 흰 고진히녀인의 팔을 나는 아직도 눈앞에 보는듯싶다.

그후에 나는 그들 부부가 전쟁이 일어나자 남친의 길에 올랐다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지

리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생사여부를 알지 못했다. 몇십년이 지나서야 리인모동지의 수기를 통해 고진히의 최후에 대해서 알수 있었다.

진정 강규찬, 고진히, 그들은 자신들의 언약을 지켜 공화국의 안녕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에 자기의 청춘들을 바쳤다. 그들이야말로 조국이 요구할 때에는 생을 지킬줄도 알고 죽음을 필요로 할때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이 땅위에 자기 조국과 자기 운명의 뉴대를, 새롭게 창조한 사람들이었다!

강규찬, 고진히... 오직 조국의 영생속에서만 자기의 삶의 의의를 찾은 참다운 아들딸들을 조국은 잊지 않고있었다. 오늘 그들의 명전에 고이 놓여진 《조국통일상》은 영생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 삶의 빛이며 영생의 메달이다.

그들은 지금도 그날의 그때처럼 오고 또 오고 있으며 그 곁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어져 그들의 고향땅인 제주도로 가고 또 가고있다.

나의 눈앞엔 벌써 한나산의 육중한 웅자가 보이는듯싶고 해녀들과 말뚝이군들의 휘파람소리가 들리는듯싶다. 그속에서 유난히 빨간빛을 띠고 우리를 반겨맞아줄 동백꽃의 모습도 있다....

농장벌의 밤은 깊어가는데

리지학

래일은 모내는 날
모판의 풍년모 세간내는 날
기다려 기다려 이날을 맞는
마을의 이밤엔 불빛도 많다

보도랑 깊이 켜 동쪽을 따라
별무리 뛰어노는 별로 나가는
길
두둔 데룩 여물로 배를 불쿠는
소잔등도 철썩 쳐보고싶은 밤

저봐라
모판에 타오르는 우등불
우등불
줄대같은 모를 키운
모판관리공처너
이밤 새면 첫딸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고싶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으랴
싱그러이 불어오는 봄바람에
구수히 풍겨오는 마라초냄새
래일의 만풍년은 오늘에
있다고
언제나 생각깊은 논물관리공
이밤 써레친 논판의 물깊이를
다시 재여보누나

잠이 없구나
하늘엔 별이 총총
개구리의 노래도 뜰해지는 이
밤
농장벌의 주인들이 넓은
포전을 비어두지 않았구나

바친것이 없다면
바랄것도 없는 땅이어서

겨우내 거름내고 땅을 절구고
정으로 땅을 녹여 씨를 뿌린
마음들

이 봄밤 포전에 모보다 먼저
품고사는 꿈과 진정을
펼쳐가며
만풍년의 가을을 눈앞에
그리며
불타는 맹세로 잠 못드는 밤

아 봄날의 이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도
잠들지 못하는 뜨거운 마음들
오늘에 래일을 당겨
살고있구나
새날의 노을을 펼쳐가고있구나

발동소리

김영길

풍년모내기로 들은 도가니처럼 들끓는다.

씨레를 치는 트랙토르의 기운찬 발동소리, 모내는 기계의 경쾌한 동음, 농장원들과 농촌지원자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고등중학교 취주악대의 씩씩한 나팔소리 힘찬 방송원의 목소리와 한데 어울려 대교향곡으로 온 들판에 울려 퍼진다.

이처럼 끓어번지던 들에도 이슬한 밤이 되면 고요가 깃든다.

이런 밤이면 사람들은 포근한 잠자리에서 하루의 로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며 래일의 혁신을 꿈꾼다.

한낮을 모내는 기계우에 앉아 운전공이 되었던 나도 하루의 체험된 감정을 습작노트에 적어놓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들바람을 맞으며 농사의 미립을 띄워가는 현실 체험기간은 꼭 농장원이 된 심정이랄까.

한해가 지난후에 다시 해보는 농사일이어서인지 상쾌한 기분속에서도 괴로운 소르시 찾아들었다. 어느새 몽롱해지는 의식속에 들었는데 꿈결에서인지 어디선가 트랙토르의 동음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후닥닥 일어나앉았다. 금시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분명 한밤의 고요에 싸안긴 통통거리는 발동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밤에 누구일가...?)

눈을 비비며 나는 생각했다.

옳다, 분명 저 소리는 씨레를 쳐나가는 최동무의 트랙토르 소리이다. 왜서인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낮동안 부지런히 씨레를 쳐나가던 그가 설참에 나에게 하던 말이 피곳 떠오른다.

《아마 이 들끓는 모내기전투장에서 일선은 우리가 맡고있는 셈이지요. 맨먼저 이 논판을 타고있는 사람들이 트랙토르 운전수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벌을 잘 주물러놓아야 모내기를 질적으로 할수 있지요. 한주일, 아니 한주일이상을 앞서 나가야 하는 우리랍니다. 그래

서 우린 시간을 아깁니다. 사실 낮에만 일하구서는 성이 차지 않지요.》

옳다, 그래서 최동무가 남 다 잠든 깊은 밤에 하루의 피로를 마다하고 나

선것이구나.

트랙토르의 발동소리는 멎을 줄 모른다. 오히려 잠자는 대기를 깨우며 온 들에 기운차게 울려 퍼진다.

이밤따라 트랙토르의 발동소리가 새롭게 느껴진다.

어찌 저 소리를 단순한 기계의 소음이라고만 하랴.

저 힘찬 동음! 그것은 이 땅에 펼쳐질 만풍년을 하루빨리 충성으로 가꾸어가려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이며 대지의 숨결, 시대의 맥박이다.

나에게는 이밤도 선행공정의 열쇠를 열어가느라 밤잠도 마다하고 일판에 나선 최동무의 모습이 온 나라 트랙토르운전수들의 불타는 마음이 되어 승엄히 안겨왔다.

트랙토르의 발동소리는 안식의 잠자리에서 단꿈을 꾸던 나를 질책하며 심장을 울려주었다.

자책과 함께 최동무의 수고가 헤아려졌다.

남 다 자는 깊은 밤, 홀로 벌을 누버가는 일육십 많은 최동무. 그의 가슴엔 모내기를 질적으로 제때에 끝내려는 하나의 일념만이 굵이치고있으리라.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고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그 깨끗한 량심을 들에 수놓으며 시간을 앞당겨가는 농장벌의 일선병사.

그렇다. 트랙토르운전수들이야말로 풍년모내기의 돌과구를 열어나가는 전초병이라고 할수 있다. 저 운전수 최동무가 이 벌의 가장 귀중한 존재로 느껴지기는 이밤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저런 귀중한 사람을 그 무엇으로든지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밤에 차를 몰아가자니 얼마나 고적할가.

누구나 홀로 일을 할 때면

그리워지는것이 동무다. 진수성찬을 마주하는 동무보다 외로움속에 있을 때 찾아와 담배 한가치이지만 그것을 권하는 동무가 얼마나 더 반가운가. 이제부터라도 그의 동무가 되어 주자. 그래서 그의 힘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자. 아니 무엇으로라도 그의 심장과 박동을 같이 하자. 내가 도울 일이란 이것 밖에 없지 않을가.

생각은 나를 자리에서 일으켜세웠다. 불도 켜지 않은채 손더듬으로 가방을 열어제끼고 남은 담배를 모두 꺼내어 양복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옷을 걸친 다음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서는 부실부실 비방울이 뿜어지고있었다.

어둠속을 더듬어 분간하여 씨레를 쳐나가는 최동무의 트랙토르결로 다가갔다.

강렬한 전조등불빛이 무대를 밝히는 국부조명처럼 눈독우에 선 나를 환히 드러내놓았다.

내결으로 바짝 다가온 트랙토르가 갑자기 발동소리를 낮추며 멎어서더니 차문으로 몸을 반쯤 내민 사람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이 밤중에 작가선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동무인가 했더니 아니었다. 누군가 해서 기웃거리는데 그가 눈독우로 훌쩍 뛰어내렸다.

자세히 보니 여러번 만나 구면인 군당책임비서였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너무나 뜻밖이었다.

《아니, 책임비서동지가?!...》

더 다른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책임비서는 절쭉한 말로 곳은 밤달씨를 욱질하며 나에게 담배가 없는가고 허물없이 물었다.

나는 넣고나온 담배 한갑을 터쳐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는 한가치를 뿔아드는 것이었다.

넣고 피우라고 했더니 그는 주인이 손님신세를 저서야 되겠는가고 소탈하게 웃으며 운

전칸을 가리키는것이였다.

《저 친구 고집은 이 바퀴힘보다 더 세군. 끝내 찢는걸.》 그는 프락포르뒤바퀴를 장화신은 발로 두드리더니 소리치는 것이였다.

《여, 담배나 붙여물구 하라구. 요 배미만 넘기군 들어가야 해.》

그리고는 로련한 당일군의 안목으로 내 마음을 다 꿰뚫어본듯 나에게 직방으로 들어대는 것이였다.

작가선생이 최동무의 발동무가 되어주려고 나온 모양이라고. 하고는 부탁이라며 《작가선생이 좀 저 친구 등을 밀어 들여보내주십시오.》라고 나를 떠밀더니 수고해달라며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였다.

언제 내려왔는지 최동무가 내곁에 서서 멀어지는 책임비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모내기때면 늘 이 벌에서 살군하지요. 아마 또 모판으로 갈 겁니다.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가군하는데 하 글썽 어느새 나를 알아냈거든요. 혼자 몰래 하려고 하던 일인데... 이제는 작가선생한테도 들켰으니 야단인걸.》 그는 껄껄 웃는 것이였다.

《그럼 군당책임비서동지가 매일 이 벌을 떠나는 마지막사

람이란 말입니까?》

나는 의아한 기색으로 되물었다.

《물론이지요. 농장원들을 다 들여보내고는 다음날 전투도 작전하고 매 포전마다 간간히 돌아보고서야 퇴근길에 오르는 걸요. 우리 군이 매해 제철에 모내기를 어김없이 끝내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생각을 깊게 해주는 말이다.

모내기로 들끓는 이 나라의 벌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돌격로의 앞장에 서있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기어 이 관철하여 쌀로써 당을 받들고 우리의 붉은기를 지켜가려는 하나의 일념은 선행공정을 말은 프락포르운전수로부터 한 개군의 호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뜨겁게 숨쉬고있는 것이다.

저런 다정한 손길들이 있기에 사람들은 힘든줄을 모르고 이밤도 흥건히 단잠에 드는 것 이리라.

힘찬 프락포르의 저 동음속에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면 그 언제나 스스로없이 모내기 전투원들의 지휘관이 되어 힘을 주고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참다운 일군들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깃들어있는 것이다.

갑자기 낮아진 기온때문에

모판을 돌보느라 령상모판관리공들과 한패가 되어 온 하루를 관리공이 되었던 일군들.

어느 협동농장의 수리분조원들이 모뜨는 기계를 새롭게 개조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는 열흘간을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해가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던 일군들.

저런 일군들이 있기에 이해의 모내기도 의심할바없이 제 기일에 질적으로 끝날 것이며 드넓은 이 벌에 또다시 황금물결이 너울칠 것이리니.

그때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농장벌을 걸으시며 농사일을 두고 심려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로고를 풍년이삭은 알알이 실어 전해갈 것이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자라는 얼마나 큰 것 이랴.

내 나라, 내 조국의 위력은 또 얼마나 튼튼히 다져지랴.

내리던 보슬비는 가뭇없이 그치고 어느새 맑게 열린 밤하늘에는 한껏 목욕을 하고난듯 깨끗한 못별들이 금모래를 쥐여뿌린듯이 반짝이였다. 그 모든 별들이 다 좋은 동무들처럼 생각되는 참 좋은 밤의 풍경이다.

조국의 이 봄들판에

김선환

말씀들은 고맙소만
덤벼들 하지 마오
나이는 많지만
마음이야 늙었겠소

이런 날 골라서
우정이라도 오겠는데
날 좋은 이 봄날에 조국방문
왔으니
어서 모쭼을 던지소
한포기라도 더 심게

밭목이 깊어 논판에 잠길수록
어머니 젖품에 파고들던
어리광이 사무치오
논물에 비끼인 설음많은
흰서리를
푸른 하늘 맑은 빛이 깨끗이
씻어주오

목깃을 스치는 봄바람마저 왜
이리도 살뜰하오
우짚는 종다리 청고운 노래가
왜 이리도 못건디게 눈물을
퍼내오

한뼘기 모를 낼 제땅이 없어
쪽박차고 떠나가던 그날이
삼삼하오
쌀밥 한술 없어 굶어죽은 내
동생
망국노의 설음이 이 들판에서
가서지오

봄도 조국이 없는 하늘아래
봄이 아니었소
땅도 이국살이 구슬픈 나그네
길엔
걸음걸음 눈물젖는 설음이었소

이런 봄이 없어
이런 땅이 없어
한숨속에 흘러간 한생이어서
조국의 고마움에 눈물젖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심으려오
그 사랑을 심으려오

자, 어서 모쭼을 섬기소
해외만리 뿌려졌던 이 못난
인생도
따뜻이 안아준 조국의 은혜
이 하루 몇포기 내는 모로
어찌 다 갚겠소만
조국에 이어지던 사무치던 그
정을
다 심게 해주오 조국의 이
봄들판에

순결한 애국정신의 시화

-윤동주와 그의 시세계-

은종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비록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일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되어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민의 소유물로,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윤동주에 대하여 귀중한 말씀을 주신 이후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속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윤동주를 **《재능있는 애국시인》**으로 내세워 주시였고 숭실중학교에서 공부한 명망있는 애국 인사들의 이름을 열거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나란히 세워주시였다.

이 글은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기초하여 윤동주와 그의 시세계의 기본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작가들과 인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지향에서 씌여졌다.

△ 형무소에서 요절한 애국시인

윤동주는 조국해방을 꼭 반년 앞둔 1945년 2월 중순 일본 후쿠오카형무소에서 28살의 한창나이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애국시인이다.

자료에 의하면 윤동주는 1940년대초엽에 조선 독립의 결의를 굳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선학생그루빠를 조직하고 **《징병제도》** 비판, 무력봉기를 지향한 군사지식습득, 민족독립의식고무, 조선어와 조선문화 고수발전, 일제의 **《동화정책》** 반대 등의 내용으로 선전활동을 벌리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단말마적발악을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념을 잃고 지조를 지켜내지 못했던 그 엄혹한 시절에 조선의 독립을 지향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반일애국활동을 벌린 열혈청년 윤동주는 분명 우리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 할 애국인사였고 민족의 장한 아들이였다.

윤동주의 반일애국정신은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1917년 12월 30일 이국땅인 중국 화룡현 명동촌에서 소학교교원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원래 회령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때 이곳 북간도로 건너와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윤동주는 아버지의 교양을 받으면서 그리고 민족의식이 강한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울분을 가슴속에 키웠으며 조국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간직하게 되였다.

그는 3년제 중학을 마친 1935년에 아버지에게

줄라 평양숭실중학교로 전학하여 그해 9월부터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숭실중학교는 5년제 학교였다.)

윤동주가 평양에서 공부한것은 두 학기 만 7개월로서 길지 않은 기간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의 사상정신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국에서 나서자라 부모들의 말로만 듣던 그리운 조국땅을 밟은 다감한 소년의 심장은 무한한 감동으로 끓어번졌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란봉과 대동강, 슬기로운 민족의 력사가 력력한 평양의 수많은 유적들은 그의 넋을 조국에 대한 사랑의 불길로 덮혀주었고 강렬한 민족의식을 깊이 다져주었다.

한편 수려한 강도, 슬기로운 민족이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히는 현실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허뻛다. 이 시기 조국에서 느낀 윤동주의 사상감정은 숭실중학교시절에 그가 지은 시작품들에 그대로 나타나있다!

소학교때부터 문학서적을 탐독하고 글짓기에 취미를 가졌던 윤동주는 숭실중학교시절에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시를 창작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그가 평양에 오기전 8개월기간에는 한편의 시를 창작하였는데 숭실중학교에 재학하던 7개월기간에는 **《모란봉에서》**를 비롯하여 무려 15편의 시를 썼다고 한다. 이것은 그렇게도 그리던 아름다운 조국의 산천과 짓밟힌 조국의 현실이 애절한 그의 가슴에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숭실중학교 재학기간 그는 학생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숭실활천》**의 편집자로 활동하였는데 이 잡지 1935년 10월호에는 그의 시 **《공상》**이 실렸다. 이것은 활자화된 그의 첫 작품이였다. 이런 의미에서도 평양은 그에게서 잊을수 없는곳으로 되였다.

윤동주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숭실중학교학생들이 집단퇴학을 할 때 학우들과 보조를 같이하고 1936년 4월 숭실중학교를 중퇴하였다.

그후 그는 간도에 돌아가 통정에서 중학을 마치고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1942년에 일본에 건너가 공부하였다. 처음에는 릿교대학에서, 다음에는 동지사대학에서 영문과에 다니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준비를 하던중에 경찰에 체포되였다.

윤동주는 거의 1년간에 걸치는 예심과정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며 1944년 6월에 일제의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2년형을 언도받고 후쿠오카형무소에 수감되였다가 8개월만에 감방에서 목

숨을 잃었다. 학생시절 축구선수이기도 했던 20대의 건장한 청년 윤동주가 수감된지 1년반만에 옥사한것은 일제교형리들이 이 반일애국청년의 육체를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하게 파괴하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말해준다.

윤동주는 문단에서 활동한 전문시인이 아니다. 그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시를 썼다. 백수십편의 시를 창작하였으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표된것은 불과 몇편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시들은 순결하고 뜨거운 애국정신을 특색있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오늘 널리 알려져있으며 우리 민족문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마치던 1941년말에 그간 창작한 시를 골라 19편으로 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3부를 필사하여 스승과 학우에게 한 부씩 기념으로 주었다. 시집은 해방후에 간행되었다.

△ 순결한 애국정신의 연소, 부끄러움의 정서적본질

윤동주의 시에서 애국정신은 화약처럼 격렬하게 폭발하거나 장작불처럼 소리치며 타오르는것이 아니라 초불처럼 고요히, 사색깊게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연소한다.

그의 시에서 애국정신은 무엇보다도 조국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애착속에 표현되고있다.

그리움은 망국민의 자식으로 이국에서 태어나 생애의 대부분을 이국땅에서 보낸 그의 생활속에서 우러나온 체질적인 감정이였다. 그의 시에서 그리움과 애착의 정서는 어머니와 동생들, 어린시절의 동창생들을 비롯한 다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조국의 산과 강, 하늘과 땅에 대한 애착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별 헤는 밤》에서)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리운

서리날리는 저녁-

어린 령은 쪽나래의 향수를 타고

남쪽하늘을 떠돌뿐-》

(《남쪽하늘》에서)

이러한 표현들은 그의 시에서 수많은 찾아볼수 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의 감정은 특히 그가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았던 평양 숭실중학교시절에 남긴 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는 곳마다 보는것마다 대동강 맑은 물도 모란봉의 나무와 꽃들도 온 누리에 가득찬 따뜻한 해살도 지어 끼마다 대하는 밥상도 그에게는 모든것이 그지없이 정다웠고 감격스러웠다.

대동강물로 끓인 국

평안도쌀로 지은 밥
조선의 매운 고추장

(《식편》에서)

그는 체험하는 모든 생활을 뜨거운 심장과 예민한 시적감각으로 감수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화하였다.

윤동주의 시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의 감정은 빼앗기고 짓밟히는 현실을 보는 서글픔, 상실의 아픔과 하나로 융합되어있다.

시 《모란봉》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양상한 나무가지에
훈훈한 바람의 날개가 스치고
얼음섞인 대동강물에
한나절 해발이 미끄러진다

허물어진 성터에서
철모르는 너아들이
저도 모를 이국말로
재잘대며 땀을 뒹고

난데없는 자동차가 밟다

시에서 《양상한 나무가지》와 《얼음섞인 대동강물》로 상징되는 짓밟히고 수탈당하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가슴아픈 감각은 《훈훈한 바람》과 《한나절 해발》로 표현된 따뜻하고 정다운 조국에 대한 애착의 감정과 하나로 융합되어있다. 여기에서 상실의 아픔은 따뜻한 감각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애착이 강할수록 그것이 짓밟히는것을 보는 아픔은 더욱 예리한것이다.

다음 편의 《허물어진 성터》라는 시구에 와서 상실의 아픔은 강한 민족의식으로 심화되어 가슴에 와닿는다. 특히 《요이 땅》과 같은 저도 모를 왜말을 아무 생각없이 입에 올리며 땀박질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시인의 심장을 아프게 허뻐다. 급기야 시인의 시선은 모란봉유람객을 싣고 온 자동차를 포착한다. 여기에서 승화된 아픔의 감정은 나라와 민족을 짓밟은자들과 일신의 안락을 위해 강토도, 력사도, 민족의 뉘까지도 서슴없이 제물로 바치는 친일매국노들에 대한 불붙는 증오로 급전된다.

《난데없는 자동차가 밟다.》

하나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마지막편은 시의 사상감정을 의미깊고 여운있게 결속해준다.

간결한 시형식속에 몇개의 본질적인 시적세부로 당시 모란봉의 풍경을 화폭처럼 펼쳐보이면서 가슴속에 뿜어넘치는 정서를 깊이있게 구현한 숨씨는 19살 청년의 시적재능을 한눈에 감득케 한다.

윤동주는 단지 짓밟히는 현실을 가슴아파하고 사라져가는 민족적인것을 서러워만한 우국지사가 아니였다. 그는 유린당하는 강토와 가난하고 억눌린 겨레의 삶을 뜨거운 애착과 울분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그속에서 꺾이지 않는 민족의 넋을 찾았으며 밝아올 조국의 앞날에 대한 굳은 신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신이 그로 하여금 일제 말기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길에서 한목숨 아낌없이 바칠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시 《슬픈 족속》에도 그의 이러한 신념이 구현되어 있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운다
 흰 저고리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시에서는 《거친 발》, 《가는 허리》, 《슬픈 몸집》이라는 시구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수탈당하는 가난한 우리 인민의 초상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그에 대한 동정의 감정을 표현하고있다. 그러나 시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것은 매개 시행 첫머리에서마다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흰》이라는 감각적표현이다. 여기에는 백의민족으로 불리우는 우리 겨레의 강한 민족정신이 구현되어있다. 이 시는 1938년 9월에 창작한것으로 되어있다. 이때로 말하면 일제가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한 고리로 흰옷 입는것을 단속하고 색갈옷을 입도록 강요하던 때이다. 색갈옷이 아니면 가는곳마다에서 봉변을 면치 못하던 시대적정황에 비추어볼 때 저고리치마뿐 아니라 수건과 허리띠 지어 고무신조차 흰것으로 골라 걸친 서정적주인공의 초상에는 반일민족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있다.

시인은 마지막시구에서 《질끈》이라는 한마디 시어로 서정적주인공의 초상에 역센 기개, 힘찬 전진의 기상을 부여하고있다. 여기에서는 불굴의 항거의식이 숨쉬고있다.

우리는 《슬픈 족속》이라고 제목을 단 이 시에서 불쌍한 수난자가 아니라 힘있는 항거자,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을 단호히 배격하여나선 우리 민족의 초상을 보게 된다.

운동주의 시에서 애국정신은 또한 짓밟히는 조국의 현실앞에서 느끼는 자책의 감정, 부끄러움없이 살려는 지향으로 표현되고있다.

부끄러움은 그의 시에 일관하고있는 기본정서의 하나이다.

그는 자기 창작을 일관하는 기본시정신을 노래한 《서시》의 첫구절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이라는 시구로 시작하였다.

그의 시에서 부끄러움이라는 표현과 시적정서는 도처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의 시에 표현된 부끄러움의 정서적본질을 명확히 밝히는것은 그의 시세계를 옳게 이해하는데서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부끄러움이란 량심에 비추어 남을 대할 낮이 없는것으로 느껴지는 감정정서이다. 부끄러움은 인간을 량심적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인간적삶의 궤도에서 탈선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소중한 감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량심은 심장과 같다고 가르치시였다. 량심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인간, 죽은 인간이며 동물과 같은 존재이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파렴치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리익과 향락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도 배반하고 남을 서슴없이 희생시킬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을 반역하고 치욕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수 있으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어려워도 욕된 길을 걷지 않고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운동주의 시에서 부끄러움의 정서적본질은 무엇인가. 어디에 비추어 어느앞에서 대할 낮이 없는것으로 느껴지는 감정인가. 그것은 서시에서 노래한바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비추어 느끼는 부끄러움이다. 그렇다면 《하늘》은 그의 시에서 무슨 의미로 씌여지고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운동주의 할아버지가 기독교장로였고 그도 태어나 세례를 받은 교인이였다고 하면서 그의 시에 표현된 《하늘》은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운동주의 생애와 반일애국적인 사상정신에 비추어보나 구체적으로 그의 시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맥의 의미에 비추어보나 옳은 해석이 아니다.

운동주의 시에서 《하늘》이라는 의미는 한없이 깨끗하고 숭엄한것, 정답고 거룩한 모든것이였으며 사랑하는 겨레이고 조국이었다.

여기에서 운동주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쉽게 씌여진 시》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것이 필요하다. 이 시는 1942년 6월 그가 릿교대학에 적을 두고있을 때에 지은 작품이다.

시는 모두 10개련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사상정서적구조의 견지에서 보면 1~7련까지와 8~10련까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할수 있다.

전반부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룩침방은 남의 나라》

로 시작하여

《부끄러운 일이다》로 맺어진다.

여기에서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이 체험하는 부끄러움의 내용이 밝혀진다. 서정적주인공은 어느앞에서 무엇을 두고 부끄러워하는가.

부모들이 보내준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학비봉투》를 받아쥐고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은 그리운 부모들에게로, 민족의 넋을 키워준 은사들과 학창의 벗들에게로 달린다. 그는 어린 시절 다정한 벗들과 함께 손잡고 뛰놀며 축구선수로 학교의 명예를 지켜 더운 땀도 흘렸고 교내 문예지를 만들면서 자작시가 활자화되는 기쁨도 맛보았으며 민족의 운명을 론하는 웅변대회에서 열변을 토하여 청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1등상도

타보았다. 시인-서정적주인공은 자신의 가슴속에 민족의식을 복돋아주고 민족을 위해 살것을 함께 약속한 그들앞에서 오늘의 자기 삶을, 부모의 로고가 깃든 학비를 다달이 받아 대학강의를 듣는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신의 삶을 무위도식하는 삶으로, 그날의 맹세와는 거리가 먼 삶으로 자책하며 부끄러워하는것이다.

또한 시인-시정적주인공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여지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고 자책한다.

자료에 의하면 운동주는 시재라고 할만큼 시를 잘 썼으나 그는 시 한편한편을 매우 힘들게 써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가 쉽게 씌여졌다는것은 무슨 뜻이며 왜 시가 쉽게 씌여진다고 부끄럽게 여기는가.

인생이 살기 어려운 시절이라면 그것을 반영한 시도 힘들게 씌여져야 할것이다. 말하자면 시는 어려운 인생을 반영하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시를 압제의 현실과 맞서는 힘있는 글로 만들어야 하며 시인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것이다. 하기에 서정적주인공은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단정하는것이다. 어렵게 시를 쓰는 시인, 현실에 맞서는 힘있는 시를 쓰는 시인은 수난의 운명을 면치 못하며 따라서 당시로서는 량심적인 시인, 시대앞에 부끄럼을 모르는 시인은 《슬픈》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의미일것이다.

시의 다음부분은 제목과는 달리 매우 어렵게 씌여졌다.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있고 쓰기도 매우 힘들게 썼을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후반부에서 시인이 구현하려고 한 사상정서의 특성과 관련되어있다. 시인은 전반부에서 자신의 삶을 부끄러운것으로 규정하고 후반부에서 부끄럼없이 살려는 지향과 의지를 노래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조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로부터 시인은 상징적이며 비약적인 표현속에 자신의 의도를 담는데로 나아가고있다. 시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룩침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을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여기에서 《등불》을 전반부의 사상정서와 련관속에서 음미해보면 그리운 이들과 함께 즐겼던 밝음, 부끄러움없이 살려는 의지가 발산하는 밝음 등으로 이해할수 있으며 어둠은 오늘의 우울

한 삶, 부끄러운 삶이라는 의식이 가져다주는 심적고통 등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시인-서정적주인공은 그리운 사람들과 다졌던 맹세를 실현하는데서 삶의 길을 찾을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으며 우울과 부끄러움의 감정을 조금씩 디디고 올라선다.

《시대처럼 올 아침》에서 밑에 깔린 의미는 《아침처럼 올 시대》이며 아침을 시대에 비유한것은 하숙방의 밤이라는 시적정황에 맞게 씌여진 표현일뿐아니라 시대의 도래가 어김없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는 아침보다 더 확실적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스며있다. 여기서 도래할 시대는 물론 조국의 광복이다.

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이 두명의 《나》로 분신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손을 내미는 《나》는 부끄럼없이 살려는 새로운 《나》이며 내민 손을 잡는 《나》는 부끄러운 생활에 묻혀있었던 《나》이다. 두명의 《나》의 악수로 서정적주인공은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마중하러 나가는 하나의 《나》로 통일된다. 9권 마지막의 《최후의 나》라는 의미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하여야 할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쉽게 씌여진 시》에는 조국광복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구현되어있으며 광복의 날을 몇몇이 맞이하기 위해,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일떠설데 대한 지향정신, 그날을 위해 조국과 민족앞에서 부끄럼없이 살도록 고무하려는 시인의 열정이 숨쉬고있다.

△ 물결치는 서정, 명암이 어우러진 시적정서

운동주는 천부의 서정시인이라고 할수 있다. 그의 시는 서정의 웅어리며 말그대로 서정의 물결로 이루어진다.

운동주의 시에서는 하나하나의 시적세부들이 그대로 주정의 외형화, 무형적인 주정의 유형화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시구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만으로는 내용에서 토막이 나고 련결이 잘 안되는 경우조차 있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있는 서정의 의미를 추출해보면 시는 하나의 줄기찬 흐름, 서정의 물결로 안겨온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서시도 그러한 류형의 작품이다.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에서 표면에 나타난 의미만 따르면 내용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상징주

의시도, 모더니즘시도 아니다. 또한 종교적신앙심이나 자연을 노래한 시도 아니다.

원래 이 시는 윤동주가 시집을 묶을 때 이미 쓴 작품에서 18편을 고른 다음 서시격으로 새로 창작한 작품이다. 시인은 여기에서 자기 창작의 기본지향, 기본시정신을 자연에 의탁하여 노래하고있다. 이 서시를 쓴 다음 본래 《병원》이라고 하였던 시집은 제목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 특히 이 시의 사상정서는 시인의 생활신념, 사상정신적지향과 련관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하늘》의 의미는 이미 위에서 보았으므로 첫 두행은 죽는 날까지 조국과 민족앞에, 량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순결한 지향과 의지를 표현하고있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3, 4행은 일세에 이는 미풍, 미풍에 설레이는 나무잎을 보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 그것이 짓밟히는 현실을 생각하며 피로와하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사상정신세계를 펼쳐보인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조국과 민족앞에 부끄럼없이 살려는 지향을 근거짓는 바탕으로 맞물려있다.

5, 6행에서 별은 명상, 희망, 미래 등의 의미를 안고있으며 《모든 죽어가는것》은 기독교적인 박애주의정신에서 포착된것이 아니라 일제식민지 통치밑에서 유린되고 사라져가는 모든 민족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윤동주가 방학에 집에 와서 동생들에게 《우리 말 인쇄물이 앞으로 사라질것이니 무엇이나 악보까지라도 사서 모으라》고 당부하였다는 자료는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명확히 말해준다. 이 부분에서 부끄럼없이 살려는 지향의 감정은 구체적내용으로 심화된다.

조국과 겨레, 일제에게 짓밟힌 모든 민족적인것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지향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에서 행동의지로 힘있게 승화된다. 《나에게 주어진 길》, 그것은 력사가 그 시대 청년들에게 부과한 사명을 수행하는 길, 조국광복의 길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마지막한개 행으로 이루어진 시련은 오늘의 엄혹한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데 바쳐져있다. 아직은 어두운 밤이고 별은 바람에 스치워 꺾인다. 이러한 형상은 걸어가야 할 길의 준엄함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길을 억세게 걸어갈 결의를 여운있게 부각시켜준다.

《서시》와 같은 시형상수법은 《자화상》이나 《길》 등 그의 신념, 반일애국의식을 정면에서 노래한 작품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다.

윤동주시의 정서는 어둠과 밝음이 하나로 결합되어있는것으로 특징된다.

원래 그의 시는 맑고 밝은 정서가 바탕으로 되

여있다. 윤동주작품에서 동시가 많은 비중(30프로정도)을 차지하는것도 이와 관련되어있다고 볼수있다. 때문지 않은 순결하고 밝은 마음, 그것을 윤동주는 사랑했고 그것이 시의 정서로 구현된것이다.

그러나 본바탕에서 밝은 윤동주시의 정서는 일제에게 짓밟히는 암흑의 현실에 부딪치면서 어두운 색조와 결합되게 된다.

빨래줄에 걸어논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 밤에 내동생
오줌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돈가?
돈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땅 지돈가?

(《오줌싸개 지도》 전문)

이 시는 송실중학교에 다니던 윤동주가 어느 생활계기에서 지은것이다.

동생이 오줌을 싸서 빨래줄에 걸어놓은 요의 얼룩진것을 보며 《별나라지도》나 《만주땅지도》냐고 동생을 놀려대는 서정적주인공의 장난기어린 아이에는 해학적인 요소까지 비껴있다. 그러나 시의 세계속에 한걸음 더 침투하면 우리는 참으로 눈물겨운 정성과 맞닿리게 된다.

아빠는 만주땅에 돈벌러 간다 떠나고 엄마는 어린것들만 남긴채 눈도 못감고 세상을 하직했을 어린 주인공의 집, 찬바람부는 쓸쓸한 밤, 동생아기를 달래며 엄마 그리워 울고 울다가 잠들면 꿈에서나 엄마를 만나보는 어린 호주. 얼마나 가슴아픈 정경인가. 애절한 시인은 함축된 시구속에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인민이 겪은 수난의 한토막을 생생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독자들은 이 시를 읽으며 눈물어린 미소를 짓게 된다. 바로 이것이 윤동주시의 중요한 정서적 특질인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몇편의 시를 놓고 윤동주시의 사상정서적특질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그의 시에 대해서는 많은것을 이야기할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말해둘것은 순결한 애국정신이 윤동주의 시세계를 굽게 관통하고있는 기본지향으로 되어있다는것이다.

윤동주의 생은 길지 않았으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원한 자신의 념원과 맹세대로 지조있게 최후를 마침으로써 그는 민족이 사랑하는 재능있는 애국시인으로 길이 살아가고있다.

닭이 우는 새벽에

손경순

어스름 새벽
퇴마루에 걸터앉아
장화목 당겨신고 농립모
쓰려는데
어허 닭이 우네
뜨락아 떠나갈듯 가락을 뿜네

모내기 서두르는 그 마음
저만이 안다는듯
하루가 다르게
푸른 옷 펼쳐입는 농장별
저만이 관심인듯
해대우에 올라앉아 목청을
돋구네

모내기철 하루는
가을날의 열흘 맞잡이라고

네가 나를 깨우치느냐
써레발 고운 앞벌을 향해
닭이 우네 마음을 흔드네

이른 봄 찬서리 이겨내면서
줄대같이 키운 모 어서 내자고
새벽부터 서두르는 집집마다에
바쁜 일손 늦출라
네가 둔장질하누나

하지만 녀려를 말아
앞내벌 새로 뜬 개간지에도
질 좋은 부식으로 착실히 내고
잘 뜯 두엄으로 흙뻑
결구었던다

녀려를 말아

올해가 어떤 해길래
하마 제철을 늦잡을거나
어버이수령님 간곡한 유훈지켜
위대하신 장군님 쌀로
받들어갈
불같은 마음속에 당겨온
봄이거니

내 오늘은 집뜨락에 앉아
네 울음소리 듣는다면
래일엔 붉은기 펴력이는
앞내벌에서
한배미 넘기고야 너의 인사
받을테다
흰안개 감겨도는 두렁에 앉아
네 울음소리 노래인양 듣는걸
봐라

나래를 벗기자

박동선

나래를 벗기자
나래를 벗기자 처녀들아
봄내 구슬땀 바쳐 키워온 정성
우리 마음 보란듯이 나래를
벗기자

아지랑이 입에 문 푸른 잎새
줄대같이 실한 모가
머리드누나

붉은 기발 모판마다 날리며
애기모 애지중지 키우노라
잔근심 큰걱정 모판에 다 묻어
온
무겁던 우리네 가슴을
온 벌을 향해 오늘은 터쳐들
농자

참말로 바람도 세чат지
참말로 날씨도 구질었지
바람바자 길길이 겹겹치고
떠도는 구름새에 찬서리
내릴라
박막귀 이불처럼 꼭꼭
눌러가며
마음도 벼모도 함께 키워온
봄날이여

물온도계 눈금을 바라보며
갓난아이 머리말같이
못떠나고 맴돌던 모판마다에서
가을향기에 취해 점도록
서있어도
오늘은 우리 나무람 말자

보려마 까맣게 높이 뻗던

종다리도
모판우에 내려와 은방울
굴리고
청제비 쌍쌍 은반우에서 춤을
추는
좋은 봄날이다
참 좋은 봄날이다

어서 풍년나래를 벗기자
우리 마음 나래 활짝 벗기자
우리의 진정을 쏟고 가꾼
모판에서
만풍년은 첫걸음을 뻗단다
겨우내 구슬땀으로 걸군 벌이
벌써 우리앞에 황금물결로
파도쳐온다

모내기철

김석평

논두렁에 나뭇기는 붉은 기폭이
노을을 이끌어올리는듯
모내기철의 새 아침은
우리의 마음에서 밝아와라

어서 프라고
어서 꽃으라고
서로 재촉하는 목소리에
하늘도 들도 푸르게 열리고

해뜨기전에 또 한판
어서 프차고
조반전에 한배미
넘어서자고
주고받는 말에도 불이 이누나

기다리며 기다리며
소한 대한 눈덮인 언땅도

열정으로 녹이며
이날에로 달려온 마음이여서

서두르는 철이여라
드바쁜 철이여라
모내기철의 새날은
불을 단 일손에서 시작되여라

모내기철은 해마다 찾아와도
쌀의 귀중함을 더더욱 절감하며
쌀이 사회주의 승리임을 가슴에 새기며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헤쳐온 길이여서

해마다 오고 온
모내기철우에
전갈지 않은 이 봄의 모내기철
마음속에 먼저 불이 뜨거운
아 이해의 모내기철이여

아,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종영(남조선)

5월!
광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 우리들의 영원한 어머니
무등산이여
산천에 핀 진달래꽃이여

그날 숨을 헐떡이며
하늘이 무너진듯 천길만길 뛰며
어머니 배속에서 죽어간 천사여
그 생명을 앗아간
탐욕스러운 악마의 손이여
피비린내를 맡은 야수처럼
담을 타고 넘어와
무차별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검은 손이여

오늘 우리는 다시 나아간다
금남로에서 도청앞으로
신안동에서 망월동으로
두주먹 불끈 쥐고 나아간다
1980년 5월

광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함성
그날의 분노
그날의 치떨림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발목을 죄여오는
그날의 압제
그날의 고문
그날의 공포를
영영 끊어버리기 위하여
래일의 좋은 세상 우리 손으로
다름아닌 우리 힘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화불을 들고 나아간다
광주의 피맺힌 한을 안고
우리 가는 길 멀고 험하더라도
민주의 그날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아, 5월!
광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조국의 흙

(총련) 정창수

나에게는 80고령에 이른 할머니가 계신다.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셨으며 여러가지 재미난 이야기들도 자주 들려주시었다.

많은 이야기들중에서도 늘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만물은 흙과 물, 불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며 이것들 중에서도 근본은 제 나라의 흙이라고 말씀하시곤 한다.

나는 이 말씀속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의미를 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었다.

×

이제는 조국방문의 일정도 끝나가고 있었다.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조국방문의 나날은 참말로 꿈속에서처럼 흘러 이제 며칠 지나면 조국방문이 끝나게 된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의 《근심》거리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일본을 떠나올 때 할머니와 약속한 선물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의지가 굳센분이어서 여태까지 그 누구에게도 무언을 간청하거나 부탁하는 일이란 좀해서 없으셨었다.

그러나 어찌선지 내가 조국으로 떠나오던 날 할머니님은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조국의 좋은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하시면서 의미심장하신 웃음을 담은 눈길로 나를 오래동안 들여다보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전례없는 할머니의 이런 부탁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꼭 좋은 선물을 마련하여 할머니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국방문이 끝나가는 여태까지도 할머니의 선물을 마련하지 못하고있었다.

어떤것이 할머니께 의의있는 선물로 될가 하는 이것이 나의 《우환》거리로, 나의 《속제》로 남아있었다.

이런 《근심》속에 조국방문

의 나날은 또 며칠이 흘러갔다.

조국방문단이 백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의 길을 이어 나가던 어느날 우리는 청봉속 영지를 찾았다.

《조선혁명 만세!》라고 쓴 구호나무가 나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들을 친근한 눈길로 바라보던 강사는 이 구호나무에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청춘을 바친 항일투사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져있으며 투사들의 뜨거운 숨결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하였다.

강사의 말은 들은 순간 조국의 일목일초, 그를 자래우고있는 조국의 흙, 그 흙의 한줌한 줍마다에는 조국을 지켜싸운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그들의 뜨거운 선혈이 스며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후터워졌다.

눈길을 돌려 청봉의 울창한 수림, 그 수림너머 눈뿌리 모자라게 펼쳐진 백두산의 련봉들, 압록강과 두만강의 굽이굽이들마다에는 항일선열들의 애국의 넋이 살아 나의 귀전에 들려오는 듯싶었다.

좌! 청봉의 밀림에 바람이 분다. 잠풍하던 밀림이 설레인 다.

태고연한 밀림의 설레임소리는 마치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너 애젊은 청년아! 너의 눈길을 모아 백두밀림의 그 어느 천년고목이라도 그 어느 천년이끼 오른 바위라도 삼가 손더듬어 헤쳐보아라. 그러면 거기에는 장군님을 따라 이 땅을 지켜싸운 항일투사들의 고귀한 숨결 그리고 이름모를 수많은 투사들의 고귀한 피가 깃들어있음을 너는 볼것이다.》

나는 밀림의 설레임소리에서 분명 이런 속삭임소리를 들은 듯싶었다.

그래서인지 밀림속을 언뜻 스쳐지나는 바람소리마저 무심히 대할수가 없었다.

나는 청봉의 흙 한줌을 두손에 소중히 담아들었다.

이제와서는 이 흙이 참말로 그저 흙처럼 보이지 않았다.

두손에 받들린 한줌의 흙을 보노라니 얼마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 되살아났다.

그때 1211고지를 지켜싸운 영웅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쟁의 포화가 사라진지도 4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1211고지의 어느 골짜기, 어느 전호가의 흙 한줌을 쥐여본다 해도 거기에는 흙 절반, 파편 절반입니다.》

강사의 말은 끝났어도 그의 목소리는 나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온다.

아, 한줌의 흙을 쥐여보면 거기에는 흙 절반, 파편 절반이라는 그 흙! 고지의 어느 골짜기, 어느 전호가의 흙을 쥐여보아도 거리에는 영웅전사들의 고귀한 피가 깃들어있다는 조국의 흙!

이날 영웅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웬일인지 할머니의 처녀시절이 생각났다.

할머니의 처녀시절은 설음과 슬픔, 눈물로 맞고보낸 불우한 시절이었다. 할머니의 설음과 눈물은 모두 땅과 관련되어있었다.

할머니네는 강냉이 한이삭, 좁쌀 한줌을 거두어들일만한 땅조차 없었다.

할머니네는 땅 한뼘기를 얻기 위하여 왜놈들의 눈을 피해서 야밤에 산으로 올라가 쪼각달을 등불삼아 나무뿌리를 뽑아내고 바위를 굴러내려 화전을 일구는 《도적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화전 한뼘기를 얻어낸 한순간의 기쁨도 맛보기전에 왜놈감독놈의 채찍에 살점을 뜯기우는 가혹한 매를 맞아야 했다.

손바닥만한 뽕기밭이라도 자기의 땅을 가지고싶어 쪼각달을 등불삼아 《도적작업》을 해야 했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왜놈감독놈에게 살점을 뜯기우는 매를 맞으면서 흘리던 눈물은 그 때가 아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내 나라의 내 땅에 살면서도 내 땅,

내 흙 한줌 가져볼수 없었던 설음의 눈물, 원한의 눈물이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깨어진 쪽박을 차고 거치른 현해탄을 넘어 찬비내리는 이역땅으로 류량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놓고보면 조국의 땅, 조국의 흙, 바로 거기에는 우리 민족, 우리 겨레들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한줌의 흙이라도 자기의 흙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소망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문득 나는 이 세상 만물이 흙과 물, 불과 공기로 되어있다고 하던 할머니, 그중에서도 흙

이 근본이라하던 할머니의 말 씀속에서 우리 조국의 땅과 흙에 깃든 지나간 눈물의 력사도, 또한 땅과 흙에 대한 새로운 력사의 진가도 재인식할수 있게 되는듯싶었다.

순간 나는 할머니와 약속한 그 선물은 바로 조국의 화려한 도자기나 조국의 아름다운 절경이 그려진 한폭의 그림이 아니라 조국의 흙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나는 조국의 흙 한줌을 선물로 마련하리라 결심하였다.

마침내 나의 《우환》거리로 남아있던 《근심》과 《숙제》가 한시에 풀려진듯싶어 기쁨

을 금할수가 없었다.

나는 조국의 흙을 안고가리라.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선렬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있는 흙, 그 흙을 우리 인민의것으로써 되찾아준 애국선렬들의 피와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는 조국의 흙을 가슴속에 소중히 안고가리라.

그리고 이 흙속에 나의 청춘도, 나의 삶도 참되게 깃들게 하리라.

조국의 흙을 선물로 받아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할머니의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사화

갓선동전

고구려 말년의 큰 정치가로, 군사가로 알려지고있는 연개소문은 널리 내외에 명성이 높던 장군이었던 만큼 그의 어린 시절에 남달리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풍파사나운 고행길이 전설로 이어지고있다.

고구려의 서울인 강안거리 한복판에 연국혜라는 한 평강이 있었다. 나이 갓 선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하늘에 빌어 옥동자를 낳았다. 이 애가 바로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이다. 그 아버지가 갓선에 낳은 아이라 해서 아이때 이름을 갓선둥이라 불렀다. 자라나매 용모가 비범하고 재치가 출중하여 연국혜는 장중보옥같이 사랑했다.

아이의 나이 일곱살이 나던 해였다. 갓선둥이 문앞에서 놀고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도사가 보더니 《아깝도다! 아깝도다!》 하고는 가버렸다.

그 말을 들은 연국혜는 돌아가서 도사를 붙잡고 그 까닭을 물었다.

도사는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고 입을 열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 부귀와 공명이 그지없으련만 다만 타고난 목숨이 짧아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리라.》

연국혜는 가슴이 덜컥해서 그 흥액을 피할길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도사는 《열다섯해동안 멀리 내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만나지 못하면 액때움을 할수 있습니다.》 하고는 문득 가버렸다.

도사의 말을 믿는 연국혜내의는 후날 찾을 작정을 하고 아이의 등에 먹실로 갓선둥이라는 이름을 새긴 다음 차마 못할 일이었지만 앞

날을 위하여 하인을 시켜서 그애를 산도 설고 물도 선 먼고장에 내다 버리게 하였다.

갓선둥이를 버린곳은 원주라는 머나먼 고장이였다.

원주에는 류씨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있었다. 그는 어느날 밤 앞내에서 황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새벽에 잠을 깨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내가로 나갔다. 그곳에는 과연 준수하고 잘 생긴 아이가 있었다. 류씨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다. 이름은 아이의 등에 새긴 이름을 보고 그대로 갓선둥이라고 불렀다.

갓선둥은 자랄수록 용모가 청수하고 재주가 출중하여 사랑스러웠으나 류씨는 그 태력을 알수 없는 데다 남의 시비를 꺼려 천인으로 대하고 종으로 부렸다.

하루는 갓선둥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중에 문득 청아한 통소소리를 듣게 되었다. 갓선둥은 곧 지계를 버리어놓고 통소소리를 찾아갔다. 한곳에 웬 로인이 앉아서 통소를 불고있었다.

로인은 갓선둥을 보고 반기며 《네가 갓선둥이 아니냐. 네 이제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큰 공을 세울수 있겠느냐.》 하더니 큰 공을 세우려면 왜 배워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였다.

갓선둥은 로인의 이야기에 취하여 해가 가는줄도 몰랐다.

로인은 지는 해를 가리키며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래일 다시 오너라.》

하고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갓선둥은 그제서야 혼자말로 《내

가 나무를 하러 왔다가 빈지계를 버리어 놓고 해를 보냈으니 이 무중을 어찌나.》 걱정을 하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계에는 나무가 가득 실려있었다.

갓선둥은 다음날부터 나무를 하러 가서는 로인을 만나 검술과 도술을 배웠고 해가 질무렵에는 누군가 나무를 해서 실어놓은 지계를 지고 돌아오곤 하였다.

장자 류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셋이 있었다. 맏이는 문히, 가운데는 정히, 셋째는 영히라 불렀다. 모두 아름다웠으나 영히가 더욱 절등하였다.

갓선둥이 나이 열다섯이 되던 해 화창한 봄날 장자는 갓선둥을 불러서 자기의 세 딸을 수레에 태워 화류구경을 시키라고 하였다.

갓선둥이 먼저 문히 방앞에 수레를 대었다.

《아가씨. 수레를 대령했습니다.》

문히는 버선발로 마루끝에 나서며

《아이고, 맨땅을 어떻게 디디겠느냐. 갓선둥아, 거게 좀 얹드려라.》 하고 그의 등을 밟고서 수레에 올랐다.

경히도 문히가 하는대로 했다.

갓선둥은 화가 치밀어 주먹으로 문히와 경히를 때려죽이고싶었지만 장자의 은덕을 생각하여 굳이 참고 수레를 영히 방앞에 댔다.

《그년이 그년이겠지!》

갓선둥은 이렇게 혼자말로 웬치고 우정 목소리를 곤두세웠다.

《아가씨, 수레를 대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뜰아래 얹드리었다.

마루끝에 나온 영히는 그 모양을 보고 자지러지게 놀랐다.

《갓선둥, 이게 무슨짓이여?》

《아가씨, 갓선둥의 등이야 하늘이 아가씨들을 위해 만든것이 아닙니까. 이 등으로 나무를 저다가 아가씨들의 방을 덮히고 이 등으로 쌀을 실어다가 아가씨들의 배를 채우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가씨들은 앉으시려거든 갓선둥의 등을 자리로 쓰셔도 좋고 수레에 오르시려거든 갓선둥의 등을 디딤돌로 쓰셔도 좋고...》

갓선둥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영히는

《아서라! 이게 무슨짓이나. 사람의 발로 사람의 등을 어떻게 밟을 수 있겠느냐.》하고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일으키었다.

갓선둥이 일어나서 바라보니 영히는 여느때보다도 더 아름다와보였다. 갓선둥을 가까이 마주보는 영히도 마음이 설레었다.

《저런 비범한 사나이가 어찌서 남의 집 종이 되겠는가!》

이런 일이 있는 뒤로 갓선둥은 영히를 그리워하고 영히도 갓선둥을 사랑하게 되었다. 둘사이 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고 정분이 두터워 갔다.

어느날 밤 갓선둥은 영히를 만나 속을 터놓았다.

《내 나이 일곱살에 집을 떠나던 일이 어렵듯이 떠오릅니다. 나도 집에 돌아가면 그대와 같은 귀인과 버젓이 사랑할수 있고 짝이 될수 있는 아들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영히의 섬섬옥수를 그려줘었다. 영히도 머리를 갓선둥의 가슴에 묻고 사랑을 고백하였다.

《저는 귀인의 안해가 아니라 사내대장부의 안해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사내대장부 아낀진대 귀인의 아들이라도 내 사내는 못될것이고 대장부라면 그대가 비록 종이라도 저는 그대 아니면 안해로 되지 않을것입니다.》

영히는 이 말을 하고나서 머리를 들며 갓선둥에게 속에 품은 포부를 알고싶다고 하였다.

이에 갓선둥은 정색하여 말했다. 《달팔이 늘 우리 나라를 침범하여 괴롭히나 우리는 달팔을 쳐몰리 칠뿐이고 달팔에 쳐들어가서 화근을 영영 뽑아치우지 못하고있는것이 한스럽소.》

그런 다음 산에 나무하러 가서

한 로인을 만나 검술과 병법을 배우고 익힌것까지 다 이야기해주었다.

영히는 무척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달팔을 치자면 그 나라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몸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피며 후에 싸워이길수 있는 터전을 닦아놓고 돌아오시면 저는 그대의 안해는 못될지라도 그대의 종이라도 되어 끝까지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갓선둥은 영히와 굳게 약속하고 몰래 장자의 집에서 달아났다. 떠날때 영히는 금가락지와 은수저를 로비로 주었다.

그후 달팔로 들어간 갓선둥은 이름을 돌쇠로 고치고 달팔왕의 종이 되었다. 그는 뽕뽕이 준수하고 미려한데다 슬기로와서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리하여 얼마 안가서 말과 풍속도 익히고 허실을 살필수 있었다.

이때 달팔왕의 둘째아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돌쇠가 비상한 인물이고 또 달팔의 씨가 아니니 죽이여 후환이 없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를 쇠올바자를 둘러친 집에 가두어 굶겨죽이려했다.

갓선둥은 자기가 위험한 지경에 빠진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위경에서 벗어나날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몹시도 안타까웠다. 그의 곁에는 길들이고있는 새매초롱이 있었다. 갓선둥은 와락 달려들어 그 초롱을 짓부시고 새매들을 모두 날려보냈다. 그것은 공주가 돌보는 초롱이었다. 마침 왕과 그의 아들은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

돌쇠가 새매를 놓아준것을 알게 된 공주는 크게 놀라 꾸짖었다.

《왜 새매를 다 보냈느냐? 그러니 너는 우리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갇힌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매가 갇힌것을 보니 매도 답답해하는것 같다. 나를 놔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바로 내곁에 갇힌 매를 놔주지 못하면 매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나는 매를 위해 죽을지언정 매의 원망은 받지 않으리라는 불같은 마음에서 초롱을 부시고 매들을 놔보낸 것이다.》

공주는 가엾은 생각이 들었으나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우리 둘째오라버니한테서 듣자니 너는 우리 달팔을 망하게

하려고 생긴 사람이라고 한다. 네가 어찌 그럴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은 돌쇠는 결연히 대답했다.

《하늘이 달팔을 망치자고 나를 낳았다면 그대 오라버니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을것이고 또 나를 죽일지라도 나같은 사람이 또 나올것이다. 그대 오라버니한테 이렇게 잡히여 죽게 된 몸이 어찌 달팔을 망친단 말이나. 그대 만일 나를 놔주면 나는 저 매들과 같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워 그대를 복받게 해달라고 바랄뿐 다른 마음은 없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더욱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오나, 내 아무리 연약한 녀자이지만 너 하나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오라버니가 이제 곧 돌아오시거든 너의 허물없음을 아뢰여 너를 놔주도록 하겠다.》

그러자 돌쇠는 공주의 기색을 살피며 말했다.

《그대는 애쓰지 말라. 돌쇠 한놈 죽이는것이 무슨 큰일이냐. 내 들으니 부처님은 사람을 구할 때 그 아버지, 그 오라버니에게 아뢰는 일이 없었다.》

안색이 질리고 말이 막힌 공주는 즉시 내전으로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문을 열어제켰다.

《너를 보면 이 내 마음 절로 따라간다. 네몸은 새매같이 훨훨 날아갈지라도 네 마음만은 나에게 주고 가져라!》

갓선둥은 문을 나서며 공주의 손목을 다정히 잡았다.

《네가 나를 잊을지언정 내 어찌 너를 잊겠느냐.》

급히 성문을 벗어난 갓선둥은 험산준령의 산밭을 타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달팔의 지경을 넘어 집을 떠난지 열다섯해만에 귀가하였다.

달팔왕의 둘째아들은 돌아오자마자 공주가 갓선둥을 놔준것을 알고 대노하여 그 자리에서 칼을 대어 공주의 목을 베고 군사를 내몰아 갓선둥을 추격하였다. 허나 때는 이미 늦어 제나라 고구려로 돌아간 뒤끝이라 그 추격은 헛물만 켜고말았다.

이 이야기는 력사에 큰 자욱을 남긴 애국명장 연개소문의 성격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신구현